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내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교만해지나니
뜻 맞지 않는 사람으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6월 1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06호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교수·동아리 연계 대학포교 진흥 박차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학불교네트워크 추진
종단-대학생-학계-신도회 포교 일원화 목표

현직 불자교수들이 각 신행포교단체별로 실시하는 대학생포교활동을 일원화하고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는 최근 '대학불교네트워크(가칭)'를 조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5~7일 부산 일원서 열린 '2016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학생포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자리서 교불련 소속 교수들은 대학생포교를 이끌 구심체 조직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불련이 구상하는 대학불교네트워크는 범종단-대학생-학계-신도회가 긴밀한 소통을 하며 대학생포교에 나서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다. 그간 종단이나 단체별로 각각 실시하던 포교활동을 하나의 구심체로 결집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구상한 이유는 현재 부산지역서 교수와 신도회, 사찰 등이 연계해 대학생포교 효과를 보고 있어서다.

부산교불련은 현재 교수들이 108모임을 결성, 매월 1만원씩 후원금을 걷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기법회와 템플스테이를 연다. 여기에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공양을 지원하고, 홍법사 등 일선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 장소를 제공한다. 또한 대불련 부산지역 동문회도 후원하며 원활한 대학생포교가 이뤄지도록 힘도 모으고 있다.

정태권 부산교불련 회장은 "교수들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됐다. 요즘은 정기법회에 50~60명의 학생들이 참석한다. 가장 많을 때는 80여 명의 학생들이 찾아와 법당이 비좁을 정도였다"면서 "다만 방학 때는 참여율이 많이 저조한 편이다. 그래도 교내 불교동아리 유무를 떠나 학생들이 직접 법당을 찾아온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지역에 비해 대학생포교가 그나마 원활한 것은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때문"이라며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이기에 학생들 자체적으로 체계가 잡힐 때까지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불련은 부산지역에서 대학불교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대학생포교의 주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심익섭 회장은 "대학생포교가 위기에 처했는데 교수들은 뭐하느냐는 세간의 지적이 많았다. 교수들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며 "대학생포교의 주체는 엄연히 대학생이다. 현장서 직접 뛰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불련의 네트워크 추진과 관련해 포교단체장들의 입장 역시 긍정적이다.

백효흠 대불련총동문회장은 "현직 교수님들도 교수들이 신행을 중심으로 포교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교불련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언제든 문을 열고 환영할 일"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정한신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평소 신도회장님도 개별적 포교활동보다는 지역신도회와 사찰 등이 연계돼야 한다고 말하셨다. 교불련 취지와도 잘 맞는다"며 "교불련 측이 어느 정도 계획을 정리하면 구체적인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불련은 협의가 필요한 유관단체들이 네트워크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공동체 의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심 회장은 "대학불교네트워크는 불교발전과 중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공동체 의식 없이는 장기적으로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없기에 단체들과 지혜를 모아 확실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포교활동 연계로 효과 본
부산지역 모범사례서 착안
대불련과 구체적 논의 예정
포교단체장들 "취지 공감"

공동체 의식 유지가 관건
"긴밀한 대화로 지혜 모은다"



정각회 소속 의원들이 20대 정각회 출범과 함께 활발한 불법홍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 앞열 오른쪽부터 세 번째가 20대 정각회 회장 주호영 의원, 바로 옆 네 번째가 19대 회장을 지낸 강창일 의원이다.

"나눔·봉사 앞장서는 불자 국회의원으로"

제 20대 국회정각회 13일 출범…주호영 의원, 회장 선출

제 20대 국회의원들의 신행모임인 정각회가 7월 13일 정기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총 41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 20대 정각회는 이날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을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주호영 정각회장은 "어렵고 힘든 곳을 위해 봉사하는 정각회가 되겠다"며 정각회가 자비나눔에 앞장 설 것임을 밝혔다.

정각회(正覺會)는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신행단체다. 이번 20대 정각회에는 부회장으로 이진복 김영주 의원, 간사장에 이개호 의원, 간사에 이헌승 오영훈 의원이 선임됐다. 감사는 이은재 신경민 의원이 맡는다. 전임 회장인 정갑윤 의원과 강창일 의원은 고문과 명예회장으로 각각 추대됐다.

이날 주호영 신임 정각회장은 "연말에는 그동안 개신교와 가톨릭이 나눔행사를 풍성하게 열어 국민적인 조명을 받는 반면 불교는 상대적으로 허전했다"며 "2014년 논산훈련소 정각회 위문과 같이 위문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불자회, 국군불교총신도회, 각 종단 중앙신도회 등 유관단체들과 교류가 많아져야 한다. 임원진끼리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매월 첫째주 수요일 진행 중인 정기법회도 시간을 앞당겨 경전 공부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변경을 모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정각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9월 1일 오전 7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정각회 출범법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2017년 3월 국회 휴회기간 동안 미얀마 성지순례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외서 떠돌던 지장시왕도 '還地本處'

조계종·문화재청·국외재단 獨 경매 출품된 불화 찾아
현재 불교중앙박물관 이운

국외 소재 불교문화재가 불교와 민간재단, 정부의 협력으로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해 체결한 국외소재 불교문화재의 정보공유와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각서에 따라 독일 경매에 출품된 석천암 불화인 '지장시왕도'를 환수했다"고 7월 14일 밝혔다.

석천암 '지장시왕도'는 지난 5월 독일의 한 경매사에 출품된 것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이 확인해 조계종에 알려왔다. 이에 조계종은 출품불화에 대한 환수를 결정했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원을 받아 6월 독일 경매에 응찰했다. 경매에 낙찰받은 불화는 지난 7월 6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현재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운된 상태다.

불암산 석천암 '지장시왕도(비단 채색, 148×154.8㎝)'는 서구식 액자로 변형되어 보관돼 있으며, 본존인 지장보살과 명부의 대왕 10명을 비롯해 판관, 사자 등의 권속들이 잘 남아 있다.

특히 그림 아래에 기록된 화기(畵記)에는 '양주 천보산 석천암(揚州天寶山石泉庵, 현재 남양주시 불암산 석천암)'으로 봉안처가 기록돼 있으며, 봉안일은 '도광28년 무신 4월 초파일 완성하여 14일에 점안하여 봉안(道光二十八年戊申四月初八日神供十四日點眼奉安于')이라고 적혀 있어 1848년에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환수된 불암산 석천암 지장시왕도. 지장보살과 명부의 대왕 10명을 비롯해 판관, 사자 등의 권속들이 잘 남아 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독일 경매사에 출품된 불화를 응찰해 환수했다.

또한, 화승으로는 법총(法聰), 희원(熙圓), 혜호(慧皓) 스님 등이 참여했고, 불화조성 불사에는 상궁 10명과 윤치정 등도 동참했음을 기록됐다. 조성불사에는 지장시왕도뿐만 아니라 후불탱화, 산신탱화도 함께 제작됐음이 화기를 통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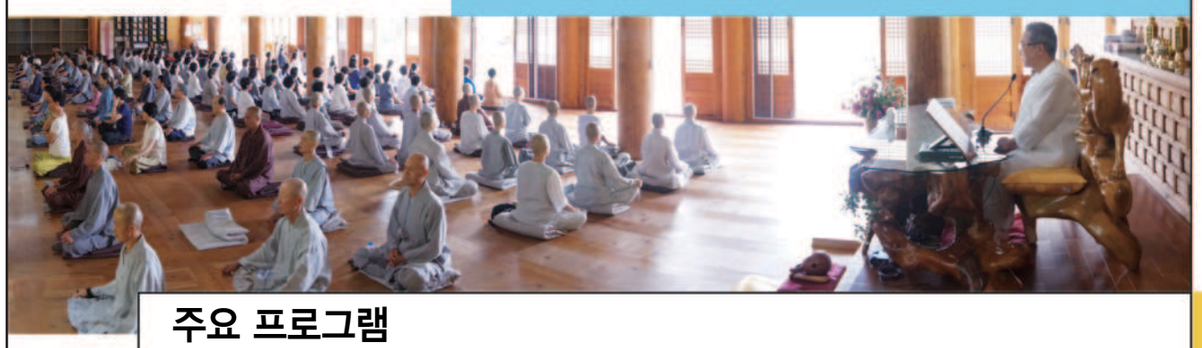
천보산 석천암은 현재 조계종 봉선사의 말사로, 〈봉선사본말사약지〉에 1882년 중창기록부터 남아있어 사찰에 관한 역사와 기록이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번 환수에 대해 조계종은 "앞으로도 예경의 대상인 성보의 종교적 기능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찰의 역사를 찾기 위한 방향으로 성보환수에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문화재청과의 협력 각서에 따른 도난 불교문화재, 해외경매에 출품된 중요 불교문화재에 대한 환수업무도 다각도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조정맥 제78대
대한불교조계종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정맥선원 여름 수련회
8/12(금)부터
8/15(일)까지
3 박 4 일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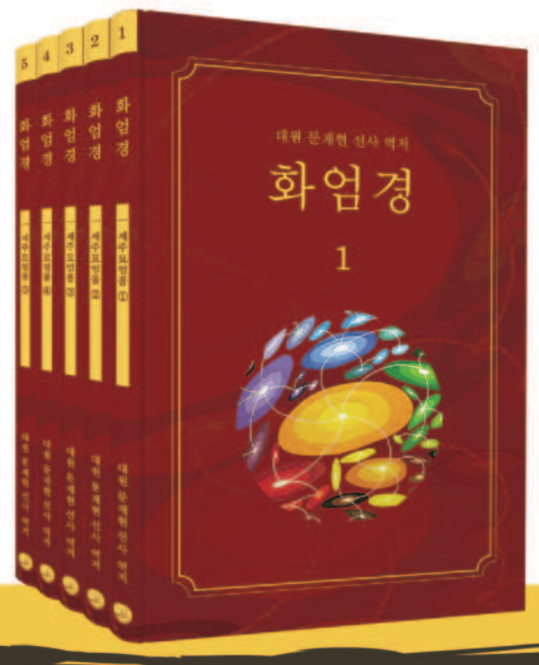
주요 프로그램
법문시간 : 대원 선사님의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 통쾌한 선법문을 만나십시오.
문답시간 : 선사님께 직접 자신의 수행을 세밀히 점검,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선시간 : 선사님께서 직접 지도하시는 참선지도를 통해 앉은 자리에서 선정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 소 포천 성불사 국제정맥선원 / **교 재**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참가비** 10만원
신청문의 성불사 010-6431-8805 / 홈페이지 www.zenparadise.com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전자책 출판으로 1, 2, 3, 4, 5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사문의 : 010-4520-7963〉

전자출판 5권 무료공개 예정

“목적사업 일반처럼 세제혜택 강구해달라”

14일 교구본사주지협의회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장 정념, 월정사 주지)는 7월 14일 구례 화엄사에서 제46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24교구본사 중 19개 교구본사가 참석했다.

조계종의 분담금 제도 개편에 맞춰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정념 스님은 “분담금은 공정하게 형평성을 고려해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교구본사에서 목적사업을 진행할 시 일반사회의 세법과 같이 분담금에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가자 감소에 대해 지방승가대학을 중앙승가대학의 분교로 인정해 교육부 인정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한편,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임명된 사업부장 각운 스님의 건축설계사업소 개설 등의 사업소개가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불교 태고종 종단협 회원 자격 회복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불기 2560년 제2차 이사회에서 태고종 자격 회복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태고종은 2015년 3차 이사회에서 회비 및 사업비 미납 등으로 회원종단 권리가 정지된 바 있다.

태고종은 4월 26일자로 미납회비 및 사업비 4420만원을 종단협에 완납했다. 이번 자격 회복 후 의전순서는 결의사항에 따라 부회장 종단 중 하위로 결정됐다.

태고종이 종단협 회원 자격을 다시 회복함에 따라 부회장으로 총무원장 도산 스님, 상임이사에 신임 총무부장 도안 스님이 선출됐다. 종단협은 이밖에 회의에서 불기2560년 봉축행사 보고와 실크로드 성지순례 및 상반기 사업 보고,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준비보고 등을 진행했다.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는 ‘천년을 이어온 법맥을 이어가자’를 주제로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박5일간 중국 절강성 설두사에서 열린다. 또 12월 21일 동지를 맞아 종단협 회원 종단 및 전국사암연합회가 여는 동지팥죽 나눔축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회비 체계를 개편해 분담회비를 인상키로 했다.

노덕현 기자

재정 확보 · 대중포교, 두 화두 타파 나선 조계종

사업부 11일 공식 출범, 문화사업단 및 신도시 TF팀도 구성

조계종이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과 포교 대중성 강화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은 7월 5일 일반직 종무원 인사에 이어 11일 사업부장에 각운 스님을 임명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수익사업 전개…영리법인 창설 과제

이번 조계종 조직개편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사업부 출범이다. 조계종 사업부는 분담금 중심의 종단 세입구조에서 벗어나 재정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다. 현재 사업부는 사찰 건축설계, 사찰순례버스 운영,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사업 아이템으로 잡고 논의 중이다.

종교계는 그동안 다양한 영리법인을 두고 재정 확보에 나서고 있다. 가톨릭의 경우 ‘평화드림’ 법인 내 5개 계열사를 두고 물품구입, 건축, 레져, 상조 등 사업을 진행해 1년에 2000억이 넘는 매출을 얻고 있다.

조계종은 2010년 포교원 산하였던 조계종 출판사를 주식회사로 전환, 사내 유통사업부를 두고 생수 및 달력 판매 등을 진행해왔지만 한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조계종이 2011년 재향군인회와 로열티 형식으로 진행한 상조사업도 재가입율 하락 등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조계종 내 사업부 개설은 이같은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펼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조계종의 본격적인 수익사업 진행을 앞두고 영리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지난 3월 열린 205회 임시회에서도 사업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총무원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종회의원 스님들의 비영리법인인 종단의 수익사업 전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혜일 스님은 “하지만 본격적인 수익사업 전개시 영리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이 법인에서 종단에 수익금을 일부 희사하는 것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부는 14일 구례 화엄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장 정념) 회의에서 건축설계사업소 신설 및 이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양진수 사업부 사업팀장은 “비영리법인도 법인 설립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사업은 허용하고 있다”며 “불교발전과 종단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심도깊게 고민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포교 롤모델 찾기에 고심

이와 함께 조계종은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신도시포교에도 본격 나설 전망이다. 조계종은 5일 인사발령과 함께 조계종 문화부 내 독립조직으로 신도시 TF팀을 구성했다. 조계종은 2014년 3월 세종시 종교부지 5000평, 같은해 7월 위례신도시 3000평을 매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 4월 교계 출입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산중에 머물러서는 불교 미래가 없다”며 신

가톨릭 ‘평화드림’ 벤치마킹
신도시포교는 모델 찾기 나서
템플스테이 대중성 강화 초점

도시 거점도량 불사를 진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두 곳의 종교용지 매입금은 총 337억 4700여만원이다.

조현우 재무부 행정관은 “현재 2019년 사용일자까지 분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미납없이 절반 이상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과제는 대규모 불사인 만큼 적합한 신도시 포교 모델을 찾는 일이다. 조계종은 4월 종무회의에서 하반기 구체적인 불사계획을 세울 ‘세종시 전통문화복합센터 건립추진위’를 발족키로 한 바 있으며 현재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도시TF팀 팀장이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본불교계의 신도시포교 현장을 답사하는 등 본격적인 불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템플스테이도 대중적인 변신 모색

불교문화상품을 개발하고 템플스테이를 주관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대규모 인사 단행과 더불어 조직을 개편했다. 국내외 행사와 연계해 템플스테이를 알리는 한편, 패밀리 브랜드 ‘아생여당(我生如堂)’의 대중적 변신과 사찰음식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7일자로 인사를 단행하고, 기존 2부7팀이었던 조직을 2부8팀으로 일부 개편했다. 개편 이전과 바뀐 점은 기존 홍보/마케팅팀에서 마케팅팀 독립, 문화진흥팀 해체, 사찰음식체험관 운영팀 신설 등이다. 문화진흥팀 업무는 홍보팀과 마케팅팀이 나눠 흡수했다. 이 중에서 마케팅팀의 독립이 눈에 띈다.

마케팅 분야를 별도 조직으로 구분한 배경은 문화사업단이 현장중심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홍보와 마케팅이 한 팀에서 이뤄지다보니 이미지 홍보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직접적인 영업에 소홀했다는 성찰에 따른 것이다.

김한일 문화사업단 총무팀장은 “그동안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홍보 등은 원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홍보와 마케팅이 같이 묶여있어 실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좋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마케팅팀이 다양한 국내외 행사 주최 측과 연계해 저명인사들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템플스테이의 힐링콘텐츠를 부각시키기 위해 2014년 출시한 패밀리 브랜드 ‘아생여당’의 이미지 변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생여당은 ‘아아(我我)’ ‘생생(生生)’ ‘여여(如如)’ ‘당당(堂堂)’ 등 네 가지 템플스테이로 나뉘며 각각 위로 · 건강 · 비움 · 희망을 의미한다.

문화사업단장 성효 스님은 “상품개발과 콘텐츠 다양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써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재미요소가 있고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익숙한 표현을 찾아야 한다. 브랜드 이미지 변화를 위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사업단은 이외에도 사찰음식체험관 운영팀을 통해 전문적인 사찰음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해 불교문화 저변확대와 조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노덕현 · 윤호섭 기자

“4대강 되돌리는 일… 우리의 사명”

불교환경연대, 4대강 100일 수행길 회향

4월 3일 영산강서 출발해 금강, 낙동강, 한강까지 100일에 걸쳐 4대강을 두 발로 걸어온 불교환경연대가 순례길을 마쳤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7월 11일 서울 종로구 우정공원서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 회향식 및 한강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엔 순례단장 법일 스님과 부단장 중현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을 비롯해 100일 순례에 참가했던 불교환경연대 회원 20여명이 함께했다.

법일 스님은 “많은 생명들이 썩은 강물로 생명을 잃었고, 생태계는 흐트러졌다. 그 강을 다시 되돌려 놓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란 생각으로 앞으로도 4대강 되살리기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지현 스님은 “누구나 마음먹긴 쉬워도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100일 동안 꿋꿋이 4대강을 걸어온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불교환경연대는 7월 11일 서울 종로구 우정공원서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 회향식 및 한강 천도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광주전남환경연대 행법 스님이 헌화하는 장면.

행사는 자애경 합송에 이어 발원문 낭독, 천도재, 삼배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불교환경연대 회원들은 자정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버드나무 가지와 한강 발원지서 받아온 물을 제단에 올린 뒤 의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4대강 100일 수행길 보고회 및 임원 취임식’을 거행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화쟁위, 4기 위원단 구성… 지홍 스님 외

흥선 스님 · 조성택 교수 등 20명… 7월 19일 위촉

조계종 화쟁위원회(이하 화쟁위)는 오는 7월 8일 3기 화쟁위원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4기 화쟁위원회를 구성했다.

4기 위원단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3기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 원주 성불원장 현강 스님,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혜조 스님, 김용숙 아줌마는나라의기둥 대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황도근 상지대 한방의료공학과 교수 등 20명이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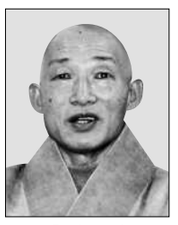
4기 위원단은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는 8월 후 하반기 활동으로 △2016년 화쟁도서 독후감 공모전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공개 토론회(8월 18일) △화쟁사상 세미나 △화쟁 실천 입문 과정(10월 중) △불교와 전태일 사상 세미나(10월 28일) △평화로운 집회문화 형성을 위한 국민 토론회(11월 중)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법 스님



지홍 스님



흥선 스님



조성택 교수

이밖에도 지리산댐 협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사회적 대화모임 등 계속사업도 진행한다.

한편 위촉식은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진행됐다. 4기 화쟁위원장은 이날 위촉식 후 진행된 28차 회의서 선출됐다. 〈차주 상보〉

박아름 기자

津寬寺 會主 無爲堂 眞觀스님의

永訣式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

귀의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회주이신 무위당 진관스님께서 지난 7월 3일 입적하시어 7월 5일 진관사에서 법기문중장(法起門中葬)으로 영결식과 다비식을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불연을 따라 지극한 인연을 맺으셨던 제방의 큰스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부대중께서 임우(霖雨)에 먼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깊은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한 분, 한 분께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우선 지면으로나마 먼저 인사 올림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스님 생전의 가르침을 더욱 받들어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불기 2560(2016)년 7월 7일

大韓佛教曹溪宗 元老 比丘尼 無爲堂 眞觀스님 法起門中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法喜 合掌
無爲堂 眞觀스님 門徒 合掌

四十九齋 日程

- 초재 | 7월 9일(음 6월 6일)
- 2 재 | 7월 16일(음 6월 13일)
- 3 재 | 7월 23일(음 6월 20일)
- 4 재 | 7월 30일(음 6월 27일)
- 5 재 | 8월 6일(음 7월 4일)
- 6 재 | 8월 13일(음 7월 11일)
- 49재 | 8월 20일(음 7월 1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진관사 향적당에서 올립니다.
매 재마다 큰스님 법문이 있습니다. (문의: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02-359-8410)

대한불교조계종 진 관 사

도난 옥천사 나한상, 행방 찾았다

원명 스님, 2013년 본태박물관서 2점 전시 확인


좌측 굵은 박스 목조상들은 본태박물관서 2013년 전시된 유물들. 6월 18일 공개한 옥천사 나한상(사진 오른쪽들)과 지물, 앉은 바위 등이 똑같다.

전시 나한상 "동일 유물 맞다"
현재 개인 소장… 대여 전시해
박물관 측 "경위 파악하고 있다"

진본사진 확인 25일만의 성과
'문화재 도난 백서' 개정 필요
조계종 "백서 리뉴얼 준비 중"

도난된 고성 옥천사 나한상 중 일부의 행방이 확인됐다. 현재 도난 중인 나한상 5점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이 공개된지 약 25일만의 성과다.

〈관련 기사 본지 1103호 보도〉

고성 옥천사 성보박물관장 원명 스님은 "지난 6월 18일 옥천사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학술대회에서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등이 최초로 공개한 도난 옥천사 나한상 진본사진을 유심히 보면서 인터넷을 찾던 중 신문에 게재된 전시 소개 기사서 나한상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도록을 확인하니 2013년 제주 본태박물관 기획전 '다정불심(多情佛心): 조선후기 목동자'에서 도난 옥천사 나한상 2점이 전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학술대회에서 사진을 공개한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록을 확인한 결과 도난됐던 옥천사 나한상과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 자세, 착의법(옷을 입은 방법), 들고 있는 지물(사자상), 앉아있는 암석의 형태 등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박물관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본태박물관 관계자는 "해당 전시는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과 김회경 교수가 참여해 이뤄졌다. 해당 유물은 개인 소장자에게 대여받아 전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경위는 현재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나한상 2점의 행방 확인이 가능해졌지만, 환수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옥천사 측에서 1988년 도난 당시 바로 신고하고 이 같은 내용이 조계종의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도 수록됐지만, 정작 중요한 도난 나한상 사진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현 개인 소장자는 '선의취득'을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명 스님은 "도난된 일부 나한상의 행방이 확인된 만큼 다시 사찰로 모셔오고 싶다"면서 "종단의 〈도난 백서〉에 사진이 잘못돼 소유주가 선의취득을 주장할 것이라고 하지만, 성보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기증 등의 절차를 통해 원만히 환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사실, 문화재 구입자가 선의취득을 주장하면 피해자가 이를 되찾아 오기는 매우 어렵다. 장물의 선의취득은 절도사건 발생 후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 대부분 구입자의 법적 권리가 인정돼 왔다.

이런 이유로 장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난문화재 DB화가 급선무다. 조계종도 〈불교문화재 도난백서〉가 있지만, 1999년에 발간된 것이어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유통되는 불교문화재는 대부분 도난된 장물로 봐야 한다"면서 "〈불교문화재 도난 백서〉는 현재 개정판 작업을 준비 중이다. 1990년대 제작 당시에는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고, 사찰들도 인식 부족으로 협조가 안됐다. 최근에는 사찰들의 인식이 바뀌어 제보와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고, 옥천사 나한상과 같은 연구 사례도 있다. 〈도난 백서〉 리뉴얼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 'NO! THAAD' 입장 잇달아 발표

정평불 · 천성산의친구들, '사드 배치 확정' 비판 제기

북 · 중 · 러 관계 강화 우려
환경영향평가 실시 촉구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국민 안전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으며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다. 또한 경제를 공황에 빠트릴 수도 있는 망국적 조치다."

정부가 7월 13일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확정한 가운데, 불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의평화불교연대(이하 정평불)는 7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사드배치는 그 자체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및 방사포에 대응할 수 없단 것이 정평불의 입장이다.

정평불은 "지난 2월 7일 발사된 북한 로켓의 1단 추진체는 폭발 뒤 수백 개 조각으로 나뉘어 흩어졌다. 이는 북한이 기만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음을 의미한다"며 "사드는 목표물이 고도 105km 이상에 위치할 경우 요격이 가능한데, 이 고도에선 탄두와 기만탄의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평불은 "사드 레이더 탐지 각도인 좌우 120도를 벗어나 북한의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는 잡아낼 수 없다"며 안보적 차원서 사드를 배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은 물론, 외교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 언급했다. 정평불은 "사드의 작전반경은 원래 2000km에 달해, 방향과 용량을 조절하면 언제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수 있다. 이를 인지한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며 경제적 제재와 함께 군사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 수출 · 관광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 불매 운동 또는 방문 거부 운동을 벌일 수 있단 우려도 함께 시사했다.

아울러 정평불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연합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평불은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는 남한과 우호관계를 깨고 북한의 편에 설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포기를 압박하는 전선서 이탈해 북한과 협력관계를 도모한다면, 사드 배치가 결과적으로 북한과 김정은 체제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율 스님의 '천성산의 친구들' 또한 7월 13일 성명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 방침을 비판했다. 천성산의친구들은 "미국은 자국서 사드를 배치할 때 주민설득, 환경영향평가, 피해와 대책 설명 등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쟁론 중에 있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의 순서가 잘못됐고, 방향이 빗나간 처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극한의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는 갈등을 종식하고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재앙을 막는 방비지악(防非止惡)의 관점서 사드배치 문제가 재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총무원장 직선법안 11월 종회 제출할 터"

직선제특위 12일 첫 회의…월 3회 회의 열기로

총무원장 직선제 법안이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직선선출제특별위원회(위원장 태관)는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첫 회의에서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직선제 법안을 입안키로 했다.

직선제특위는 위원장 태관 스님을 비롯해 정산 · 정범 · 덕조 · 제민 · 선광 · 현민 · 성조 · 법원 · 혜수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10명과 직선 실현 대중공사 준비위원회 목종 · 허정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혜일 스님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인 특위 위원들은 11월 정기회에 직선제 입안을 내기로 하고 시일이 촉박한 만큼 월 2~3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소위 구성을 통한 효율 제고 의견도 있었지만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전원이 참여하는 본회의 체제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뜻을 모았다. 또 2~3차례 공청회를 열어 직선제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자의로 참여한 것인가"는 문자를 특위위원들에게 보낸 허정 스님이 위원에서 해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공론의 장 '신대승 e-매거진' 창간

신대승네트워크 "기사 · 댓글로 누구나 참여 가능"



글쓰기 품앗이로 가꿔가는 불교계 인터넷 공론의 장이 열린다. 누구나 불교 · 사회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신대승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영철 · 김성규 · 박병기 · 전준호)는 '신대승 e-매거진'을 창간했다. 웹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작성한 기사 또는 논평 등을 편집진에게 전송할 수 있으며, 타인이 게재한 글에 대해 첨언할 수 있다.

신대승네트워크 측은 "점차 월간지 형식의 PDF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더불어 웹상 토론기능과 패널참여 기능, 기사오류 수정 · 신고 기능, 소셜 기능 등 탑재할 것"이라며 "참여와 협업의 글쓰기 품앗이를 통해 교계 공론장을 풍성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설명했다.

웹진 섹션은 △신대승의 목소리 △편집진 편지 △기획 △세계 · 아시아 △교단 · 종교 △학문 · 교육 △미디어 · 공론장 △생명 · 기후 · 에너지 △인문 · 기행 △한반도 · 사회 △출판 · 트렌드 △생활수행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카드뉴스 및 슬로우-뉴스클립 란도 별도로 마련된다.

편집위원은 류지호 e-매거진 대표와 더불어 김시열 · 이지중 · 백찬홍 · 김윤길 · 백승권 · 강민지 · 민정희 · 박재현 · 윤남진 등으로 구성된다.

'신대승 e-매거진'은 정보공유와 콘텐츠의 창조적 재생산 운동 취지에 맞춰, 게시된 기사에 대해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의 3정책을 적용한다. (http://webzine.newbuddha.org)

박아름 기자

선미모 · 비구니회 25일 선학원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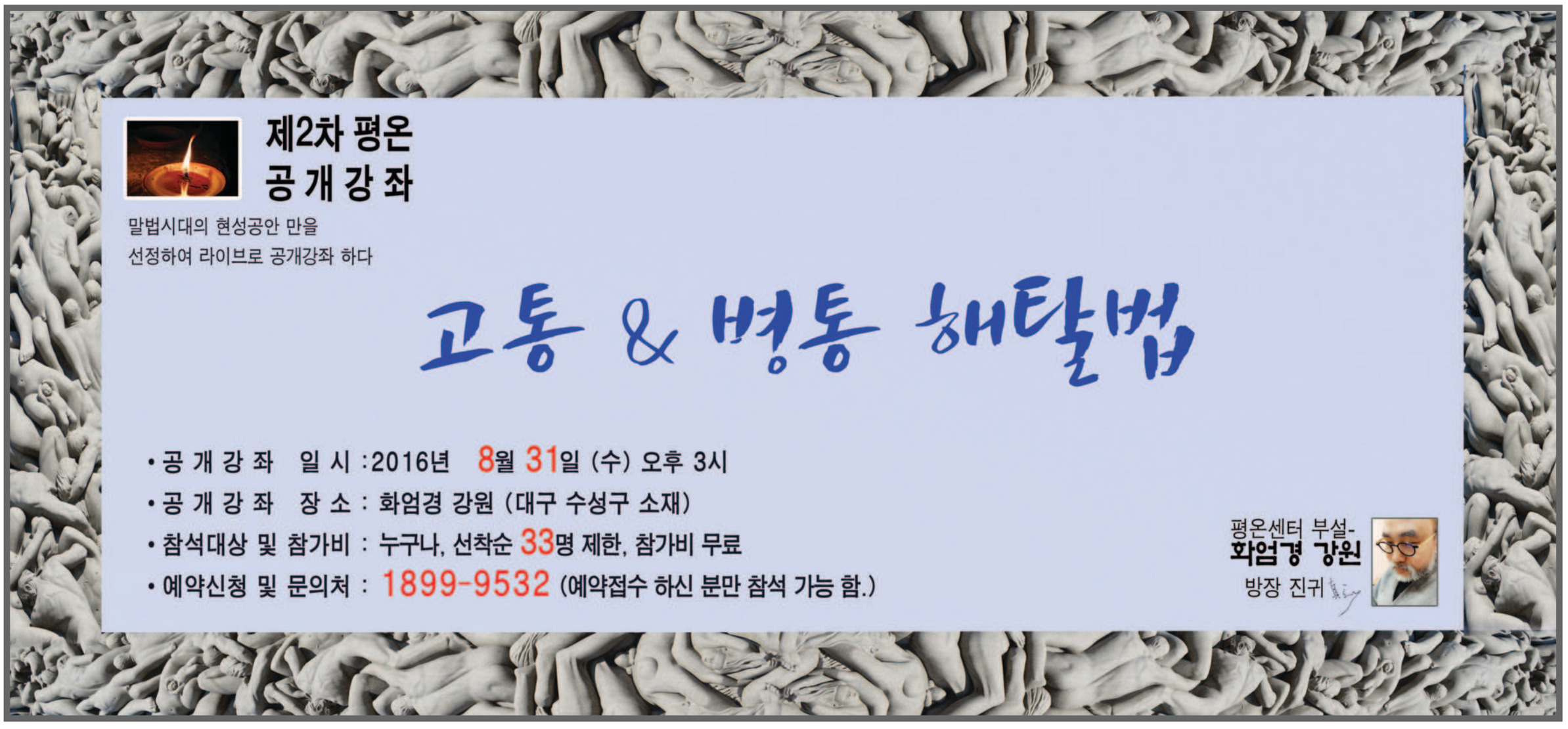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상임대표 법상)과 전국비구니회가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7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선학원의 역사, 그리고 미래' 발표와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이사의 '재단법인의 운영 원리와 방법, 그리고 관련법 분석' 등이 진행된다.

특히 '재단법인 관련법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재단법인과 종교 재단법인, 불교 재단법인의 비교와 함께 종단과 재단의 갈등 및 분쟁 상황에서 공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각 주제별 발표 후에는 불교신문 사장 주경스님, 전국비구니회 섭외부장 혜욱스님, 선미모 운영위원회 총무 심원스님,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가벼운 경전공부로 불교 저변 확대"

Interview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공직에 있는 일반인이나 불교입문자들이 불교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다가갈 수 있도록 불교공부모임을 조직할 계획입니다. 각 행정기관마다 불자회가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선은 가벼운 마음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제10대 회장인 김상규(56) 감사원 감사위원이 그리는 신행조직의 저변확대 방안이다. 김 회장은 7월 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취임법회서 공식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각 부·처·청의 불교공부모임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법회 이후 만난 김 회장은 "공불련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왕도는 없는 것 같다"면서 "다만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공부를 하려면 선생님이 필요하다. 즉 그만큼 법회가 자주 열려야 하고, 이는 불심이 깊어지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공무원불자들의 불교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역시 30여 년 전 경전을 쉽게 풀이한 책을 보며 감명 받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30년 전에 〈알기 쉬운 반야심경〉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참 좋았다. 불교교리의 핵심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돼 있었다. 불교경전은 A to Z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성경과는 달라 사람들이 부담을 갖기 십상"이라며 "그만큼 불교의 매력에 빠져드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불련 전체법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공무원불자들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부·처·청 불교공부모임으로
부담감 낮춰 회원 확대 유도
매월 공불련 전체법회 계획

김 회장은 "개인적으로 불심(佛心)이 시대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정치가 쑨원은 '행이지난(行易知難)'을 강조했다. 앎을 얻는 것은 어렵지만 앎에 이르면 그것을 행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뜻"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역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불심을 잘 닦으면 사회에 만연한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타종교에 비해 불교가 갖는 유연성이 세상을 맑히는 중요한 방편임을 강조하면서 불자로서 발심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은 종교를 믿지 않는 이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교는 물질주의가 팽배해 정신이 메말라가는 현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종교입니다. 모두 불성을 갖고 있지만 무교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훌륭한 밭에 잡초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고된 수행 이전에 모두가 발심할 수 있는 밑거름을 뿌리도록 쉬운 불교전파에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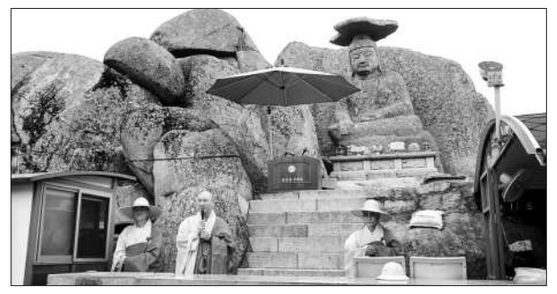
한편 김상규 신임회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공불련은 지난해 10월 열린 정기총회서 신임회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김상인 9대 회장이 그동안 회장직을 맡아왔다.

1961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김상규 회장은 마산고등학교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재정업무관리관을 거쳐 2014년 제32대 조달청 청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지난 2월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회장은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선본사, 약사재일 특별법회

7월 11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초청



팔공산 선본사(주지 법성)는 7월 11일 갓바위서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을 초청해 약사재일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엔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경선 스님은 "땀 흘려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며 "각자 기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기도의 성취는 간절함에 따른 것이니, 분별심과 망상이 일어나는 마음자리서 참나 주인공을 일심으로 찾아 스스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일체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로 어우러져 그곳이 바로 불국정토가 될 것"이라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성역화·기무사 불사금 1억 쾌척

남해 보리암, 7월 11일 아름다운동행에



남해 보리암(주지 능원)은 7월 11일 성역화 불사 및 기무사 법당불사 지원금 각 5,000만원씩 총 1억 원을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전달했다. 이날 자리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보리암 주지 능원 스님, 기무사 원상 법사 및 이보수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불교국제개발協, 상반기 워크숍

7월 8~9일, 경기 양평서… 하반기 계획 논의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이하 불국회)는 7월 8~9일 경기도 양평 한국문화의집서 상반기 워크숍 '힐링캠프'를 실시했다. 이 자리엔 젊은부처들·조계종사회복지재단·지구촌공생회 등 총 4개 단체 실무자 12명이 참석해 2016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박아름 기자**

총지종 원로 스승 법장화 지수 원적

12일, 법체 연구용 기증



불교총지종 원로 스승이자 前 중앙종회의장 법장화 지수〈사진〉가 7월 12일 원적에 들었다. 세수 90세, 법랍 45년. 유가족 대표는 아들 박병우 씨다.

불교총지종은 법장화 지수의 영단을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6호에 마련하고, 지난 14일 영결 추선불사를 거행했다.

원정대성사와 함께 총지종의 입교개종(立敎開宗)을 함께 한 법장화 지수는 평소 온화한 성품과 꼼꼼한 일처리로 종단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진언염송을 평생의 수행으로 삼고 교화에 매진한 법장화 지수는 수행의 도구로 삼았던 법체마저 중생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과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함으로 완전한 무소유와 공의 세계에 들었다. **신성민 기자**

"신도교육으로 마음가짐 다질 터"

이금석 제 4대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



"신도회의 기본은 신도로서 갖춰야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신도회 역시 신도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한 것처럼 직할교구신도회도 신행을 다질 수 있는 교육에 나서겠습니다."

제4대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에 이금석(61, 공덕심·사진) 노적사 신도회장이 선출됐다. 이 회장은 7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직할교구신도회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추대됐다. 임기는 8월 15일부터 2018년 8월 14일까지 2년이다.

이 회장은 "올해 성역화불사 및 승려복지기금 마련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지만 우선적으로 불자로서의 마음자세를 다지는 신도교육에 주력하겠다"며 "아직 미숙하지만 그동안 직할교구신도회에서 오랫동안 소임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신도회 출범 이후 부회장과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어 조직 내부적으로 차기회장에 적합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그는 6년간 직할교구신도회가 전개해온 사업을 평가하고, 성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신도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내부평가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임기 내에 사업별 성과를 정리해 미진한 사업은 자제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면서 "회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할교구신도회는 이날 최명자 도선사 신도회장과 이은임 봉국사 신도부회장을 제4대 감사로 선출했다. **윤호섭 기자**



제주불교 代母 이의열 보살 타계

7월 13일 서귀포서 영결식… 혜일 스님, 왕생극락 기원

1918년 서귀포 법정사서 항일운동을 펼친 방동화 스님을 시봉하고, 제주불교 중흥조인 안봉려관 스님에게 불교를 배우며 8남매를 불자로 길러낸 이의열(원만화) 보살이 7월 9일 숙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104세. 이의열 보살의 영결식은 13일 서귀포장례식장에서 거행됐다.

태고종 중앙선관위원장 혜일 스님(서울 법륜사·제주 정방사 주지)의 모친이기도 한 이의열 보살은 8세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법화사를 다니며 불연을 쌓았다. 절에 먹을 것이 없으면 직접 탁발에 나서 사찰운영을 도왔고, 다른 불자들과 시주금을 모아 광명사와 정방사를 창건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 보살 자녀와 손주들은 사찰 청년회장과 불교대학 동문회장 등 불교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혜일 스님과 정방사 신도 등은 12일 정방사서 이의열 보살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 자리서 혜일 스님은 "어머니 원만화 보살은 불심이 지극했다. 늘 부처님과 스님을 위해 공양했던 분"이라며 "특히 어머니는 일생을 서귀포불교를 위해 헌신했던 보살"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7월 30일 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미수습자 9명 돌아오길 바라며 절하옵니다…”

사회노동위, 세월호 인양 촉구 72시간 릴레이 기도 현장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 10여명은 7월 8일 오후 7시부터 세월호 선수들기 4차 시도가 예정된 11일 오후 7시까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72시간 릴레이 3만 배 기도를 실시했다.

7월 둘째 주말 광화문 광장은 분수대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부모님들로 활기찼다. 그러나 그 한편에선 815일째(7월 8일 기준) 바다 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누군가의 딸과, 누군가의 아들과, 또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달란 절규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고창석,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저 먼 팽목항에 들릴까 그 이름들을 목 놓아 불러보지만 메아리조차 없는 그 외침에 관세음보살님만 애타게 찾을 뿐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7월 8일 오후 7시부터 세월호 선수들기 4차 시도가 예정된 11일 오후 7시까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72시간 릴레이 3만 배 기도를 실시했다. 그동안 도철 · 법상 · 고금 스님 등 10여명의 사회노동위원 스님들이 번갈아 자리를 지켰고, 350여명 시민들이 다녀갔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도 스님들은 가사적삼이 땀으로 흥건히 젖도록 자리서 일어날 줄 몰랐다.

법상 스님은 “세월호가 왜 이리 무거운지 모르겠다”며 “우리들의 미비한 힘으로 미수습자 가족들의 아픔을 전부 달래줄 순 없지만, 세월호 인양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한 데 모여 9명의 미수습자가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기도회에 동참한 스님들 대부분은 지난 4월 14일 세월호 2주기 추모법회를 위해 팽목항에 직접 다녀왔다. 새벽 바다의 차가운 바람에도 아랑곳없이 미수습자 9명이 돌아오길 기도했건만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배가 됐다. 기도 원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자책하기도 했다.

고금 스님은 “아직도 마음은 팽목항서 미수습자 9명을 기다리고 있다”며 “바뀌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관심 갖는 시민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한다. 끝까지 함께하는 한 세월호는 반드시 인양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지 24시간 째. 더위와 잠을 이겨내느라 지친 스님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4.16연대가 주최한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원 덕분이었다. 스님들은 대학생들의 연극 · 노래 공연을 관람하며 잠시 땀을 식혔지만, 이내 목탁과 북채를 다시 움켜쥐고 시민들에게 기도 동참을 호소했다.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은 “일각에서 인양 포기와 불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정부는 포기할 것”이라며 “미수습자들의 뼈 한 조각,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각 직장에서, 각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해주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인양 예정일에 맞춰 팽목항에 내려가 있는 미수습자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의 말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이금희 씨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세월호 인양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스님들과 시민들의 정성으로 다음 소조기에는 인양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님 10명 · 시민 350명 참여
비불자 · 이웃종교인도 함께해
폭염주의보 발령 가운데도
3박 4일 3만 배 기도 회향
“신도 참여 저조해 아쉬워”

이날 모인 사람들은 스님들이 함께하니 든든하기 그지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웃종교인, 비불자, 어린아이, 대학생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스님들의 집전에 따라 18배를 하며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기도했다.

이원준(21 · 인천대) 씨는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에서 ‘절’은 번뇌를 씻어낸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며 “18배를 함께하며 세월호 인양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 세월호 문제에 대해 불교가 함께 나서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박성호(26 · 성공회대) 씨는 “스님들의 72시간 릴레이기도는 일반인들의 시위 및 집회와는 또 다른 울림이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서 매우 든든하다”며 “이런 계기가 많이 마련돼 세월호 인양이 온전하고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는 72시간 동안 3차례 108배에 동참하며 의미를 더했다. 문규현 신부는 “세월호 특조위를 정상화하고,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기 위해선 종교 구분 없이 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이웃종교 활동에 연대할 것”이라 말했다.

기도 48시간 경과, 11일 예정됐던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이 기상악화로 인해 또다시 지연됐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됐다. 남부지역 기상이 좋지 않단 예보에 마음 졸이던 스님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맥이 빠졌지만 스님들의 목탁 소리와 정근 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도철 스님은 “인양이 실패한다면 우리들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72시간 기도가 끝이 아니다. 9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비불자로서 72시간동안 기도에 동참한 신영철(55) 씨는 “3박 4일간 기도가 세월호 인양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더 큰 힘이 모여 세월호가 반드시 인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노동위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늘도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것일까. 72시간 릴레이 기도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거짓말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점차 굵어질수록 스님들의 땀방울도 송골송골 맺혔다.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좌절하지 않겠단 그 의지를 보여주는 듯 스님들은 마지막까지 사활을 다해 기도했다.

조계종 사회국장 지상 스님은 “이번 기도회에 많은 신도들이 함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불자들이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사회와 함께하는 ‘희망의 길벗’이 되길 바란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7월 8일 오후 7시 입재식을 거행하고 있다.



사회노동위원 스님들과 시민들이 세월호 분향소를 향해 기도 정진 중이다.


7월 9일 열린 4.16연대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스님들 집전에 맞춰 18배를 올렸다.


72시간 동안 350여명 시민들이 릴레이 기도회를 다녀갔다.



세계 청년불자들, '한마음'으로 뭉친다

한마음선원, 7월 30일부터 세계청년 연합수련회 개최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세계청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한다. 세계청년 연합수련회는 1972년 대행 스님이 생활 속 마음공부의 터전으로 한마음선원을 경기도 안양에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지원 청년들의 모임이다.

한마음선원은 국내 15개 지원, 국외 10개의 지원을 두고 있으며 이번 연합수련회에서는 각 지원에서 활동하는 청년 불자 중 35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한마음선원은 불교계에서 청년 불자들의 활동이 왕성한 대표적인 사찰이다. 청년 불자들은 이번 수련회에서 한마음 원리에 대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내면의 참나를 더욱 발현시키는 계기를 갖는다. 또 함께 공부하는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체험을 공유한다.

먼저 행사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를 주제로 국외지원 연합수련회가 열린다. 국외지원 연합수련회에는 한마음선원 미국 뉴욕 · LA · 시카고 지원, 캐나다, 태국, 독일,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 청년 불자들 51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음성에 위치한 광명선원에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한다. 이들은 템플스테이에서 발우공양, 단주만들기 외에 촛불재, 스님들과의 담선을 통해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불교의 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관조하게 된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는 국내 각 지역의 유서 깊은 불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견학 투어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8월 1일부터 부산 일대를 견학하고, 2일 문무대왕릉, 감은사지, 불국사, 석굴암 등 경주 지역을 돌아볼 예정이다. 이어 3일에는 문경새재길 산책과 래프팅 체험, 4일에는 통일전망대와 인사동과 경복궁 견학과 함께 안양 본원에서 세계연합 수련회 행사에 합류한다.



세계청년 연합수련회 포스터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세계 청년불자 350명 참여
불교문화유산 견학 · 담선 진행

8월 5일부터 7일까지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는 '나를 이끌어가는 진실한 나를 믿어라' 라는 주제로 한마음선원 청년회 세계연합 수련회의 본 행사가 진행된다.

청년 불자들은 법당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각 지원과 청년회 소개, 조별 담선, 촛불재 등의 프로그램과 노년의 대행 스님이 주석했던 서산정 참배, 최초로 중생구제를 위한 원력을 펼쳤던 치악산 견성암 참배 등을 통해 대행 스님의 마음공부 터전 마련에 대한 뜻을 되새기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가는 현재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마음선원 측은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세계 각국 청년불자들의 열정과 패기를 모아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31)470-310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생명나눔 새 홍보대사 이광은 · 이윤수

7월 14일 위촉장 전달 "생명나눔 희망 전파할 것"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7월 14일 2016 홍보대사로 이광은 LG트윈스 前 감독과 이윤수 의학박사를 위촉했다.

먼저 이광은 감독은 몇 년 전 생명나눔을 통해 장기기증을 서약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등 인연을 맺어왔다. 이 감독은 "오래 전 지인을 통해 이사장 일면 스님을 알게 됐다. 스님이 하시는 생명나눔 캠페인이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해 동참해왔다"며 "앞으로 야구계에도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이윤수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실천에는 선뜻 나서지 못한다"며 "우리 사회에 생명나눔 정신을 확산하는 일에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이사장 일면 스님은 "건강한 한 사람이 뇌사시 장기기증을 한다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 자체가 매우 의로운 일"이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분들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광은 감독은 前 LG트윈스 · 연세대 야구부 · 배제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을 역임한 바 있으며, 1984년 최다승리타점상 및 골든글러브(3루수), 1985~1987년 3년 연속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윤수 의학박사는 1981~1984년 이화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1998~2000년 열린의사회 회장, 1999 연세대 외래교수 등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성과학연구소장, 한국전립선관리협회 감사,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박아름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7월 14일 법인 회의실서 2016 새 홍보대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화성 신흥사, 명상템플스테이 마련

어린이 7월 29~31일, 성인 8월 20~21일

여느 해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번 여름, 명상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는 템플스테이가 화성 신흥사에서 열린다.

신흥사(주지 성일)는 7월 29~31일 경내서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명상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주제는 '라훌라처럼 우리도 밀행제일 부처님 아들이 되자'. 준비물은 세면도구 · 여벌옷 · 운동화 · 물놀이용 신발로 간편하다.

신흥사 어린이 템플스테이의 가장 큰 장점은 참가비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신흥사가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 부처님교화공원을 조성하면서 자리 잡은 문화다. 어린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공원 조성의 공덕을 회향하기 위한 것이다.

2박3일간의 템플스테이가 끝난 뒤에는 부처님교화공원 합장주와 손수건, 기념티, 수료증 등이 주어진다.

아울러 8월 20~21일에는 고등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50차 성인명상 템플스테이로 행복한 마음챙기기'가 열린다. 성인 템플스테이 참가비는 4만원. (031)357-2695 윤호섭 기자

제주불교신문, 1000호 맞아 가파도 대중공양

7월 22일, 지역불심 살리고자 재능 · 재보시 후원받아
마을회관서 이 · 미용, 음성공양 등 주민위한 축제 마련


가파도 내 유일한 사찰인 대원사 전경.

제주불교신문(대표이사 허운)이 지령 1000호(8월 5일자)를 앞두고 가파도서 '나눔 실천의 장'을 연다.

제주불교신문은 1000호 발간에 앞서 기념행사를 대신해 제주불교 정론지로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불법정론 불국정토'라는 기치를 내걸고, 소외된 이웃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주제는 '섬 속의 섬 부처님(가파도 주민)께 공양올립니다'.

제주불교신문 측은 "가파도 주민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민간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섬 안에서 독특한 공동체를 이뤄 생활해왔다. 하지만 2009년 가파도청보리축제가 열리면서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 지역공동체에 자본의 논리가 개입되면서 주민 간 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서 "이를 부처님의 가피로 감싸 안은 게 가파도서 유일한 사찰인 대원사(주지 혜융)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근래에 기독교계에서 선교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 · 미용, 의료봉사, 노래자랑 등 공격적인 물량공세를 펼쳐 불교적 정서가 옅어지고 있다"며 "대원사 요청과 함께 제주지역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 가파도 주민들에게 나눔 실천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불교신문은 7월 22일 가파도 마을회관서 해녀들의 작업시간을 배려해 행사를 개최, 지역민들에게 이 · 미용과 음성공양(민요), 점심공양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여법한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 제주도내 사부대중에게 행사 취지를 알리고, 재능 및 재보시를 후원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대원사 주지 혜융 스님은 "섬 지역주민들은 교통수단이 불편해 시내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이 · 미용 등을 하기 어렵다"면서 "불심에 눈 뜬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을 다해 공양을 올리며 도서지역 이웃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능 및 재보시를 희망하는 이들은 후원계좌(농협 302-0735-0318-01)로 성금을 보내거나 (064)-755-2203(제주불교신문)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불교신문은 1989년 8월 1일 〈제주법보〉로 출발해 월간 4면, 격주간 8면, 주간 12면 등으로 증면했다. 정법수호와 30만 제주불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포교지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파라미타 사경공모전 대상 광동고 '독차지'

입선 포함 66점 우수공모작 선정
7월 23~25일 여름캠프서 전시 계획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파라미타)가 주최한 제19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서 광동고 학생들이 대상인 문체부장관상과 봉축위원장상을 독차지했다.

파라미타는 "지난 5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한 사경공모전 작품 심사결과 입선 포함 총 66점을 우수공모작으로 선정했다"고 7월 12일 밝혔다.

공모전서 광동고 3학년 김성하(문체부장관상) · 이지영(봉축위원장상) 학생은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상(동국대 총장상)은 박소희(동대부여고1) · 이승헌(동대부중2) 학생이 수상했다. 이외에 우수상 6명, 장려상 10명, 특선 10명, 입선 36명 등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사경공모전에는 전국에서 1만5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45개 단체 작품 중 470여 점이 자체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추천작은 6월 28일 파라미타 자체심사와 7월 4 · 8일 전문가 심사를 거쳤다. 심사위원장은 전통사경 기능전승자인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 명예회장이 맡았으며,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포교부장 무각 스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김경호 심사위원장은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래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공덕의 싹을 틔운 셈"이라며 "수상 여부를 떠나 사경작품에 쏟아 부은 정성을 부모형제, 친구, 이웃, 나아가 사회에 아름답게 회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상자는 파라미타 홈페이지(www.parami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파라미타는 오는 23~25일 수원 일원서 열리는 제19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에서 사경공모전 우수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캠프에는 파라미타 청소년 회원 1000여 명이 참가하며, 문화재답사와 봉녕사 탐방, 전통문화체험활동, 청소년백일장, 음악놀이축제 등이 펼쳐진다. 윤호섭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8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채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전생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개인상담 및 공 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청강 후 등록 가능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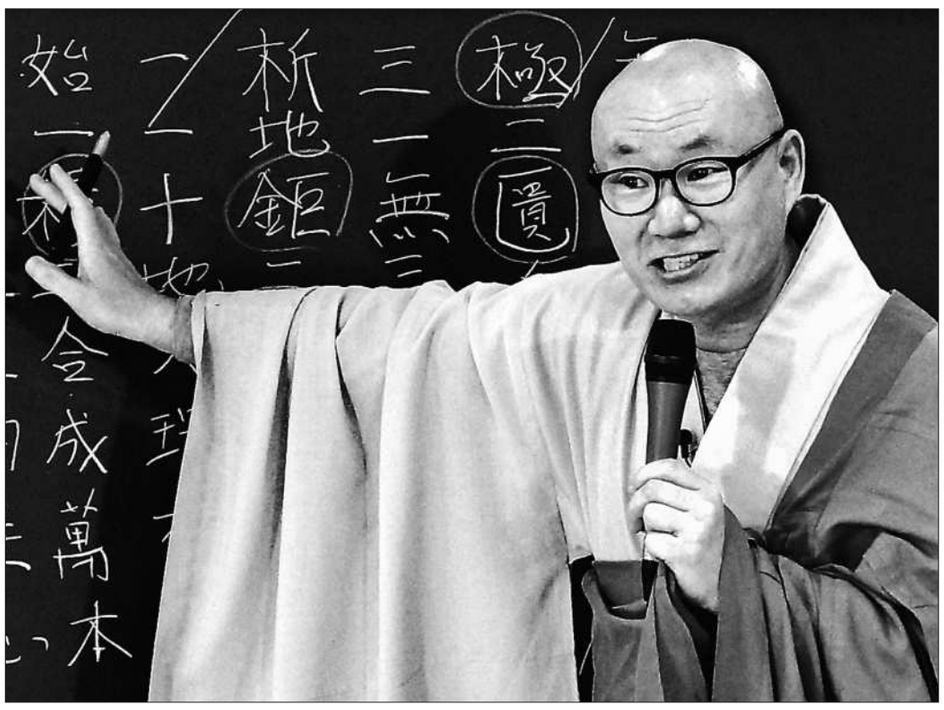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천부경 내용은 불교교리와 상통한다

참불선원 불교인문학 강좌… 불교와 민족경전 천부경

비로선원장 광명 스님

천부경은 흔히 대종교(大倧敎)의 기본 경전이지만 환국(桓國)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을 최치원이 번역했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위경 논란은 학계에서도 분분하다. 게다가 쉽지 않은 해석으로 학자마다 다른 의미로 뜻풀이를 하기도 한다. 천부경의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고 불교와는 어떤 접점이 있을까? 비로선원장 광명 스님은 7월 11일 서울 참불선원 인문학강좌서 "천부경 속 숫자를 읽을 때 '1'이 아닌 '하나'로 읽어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천부경은 불교의 해탈·연기 등 핵심교리와 의미가 통한다"고 설명했다. 정리=이승희 수습기자



광명 스님은…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강남 봉은사 교무국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성불의 길 법화경〉〈천부경〉 등이 있으며, 현재 비로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환국 때부터 전래된 81자

여러분 천부경을 아시나요? 얼핏 아는 사람들은 이 천부경을 기수련이나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주술적 비기(秘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막연했던 천부경의 정체를 확실히 하고, 불교가 전하는 가르침과 비슷한 뜻을 전하고 있는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천부경이 실린 역사서 〈환단고기〉는 매우 방대한 내용의 책입니다. 천부경은 내용 자체도 매우 심오하므로 오늘 강의에선 간단하게 의미를 해석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신 천부경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단 말을 먼저 드립니다.

〈환단고기〉는 운초 계연수 선생이 집필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역사서들을 모아 20세기 초에 저술했습니다. 그 속에 천부경이 포함돼 있습니다. 1970년대 이 책이 처음 대중에게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막연하게 신화로 인식하고 있던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가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인지 아직까지 위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역사서 〈환단고기〉에 '천부경은 천제 환국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글이다…최치원이 일찍이 비석에 새겨진 글귀를 보고 세상에 전한 것이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국내에 천부경을 해석한 책이 40권이 넘습니다. 각자 본문을 끊어 읽은 방식이 다르고, 따라서 해석도 서로 분분합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끊어 읽는 구절마다 앞에 번호를 붙였습니다.

1. 一始無始一(일시무시일)
2. 析三極 無盡本(석삼극 무진본)
3. 天一一 地一二 人一三(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4. 一積十鉅 無 匚匕三(일적십거 무궤화삼)
5. 天二三 地二三 人二三(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6. 大三合 六生七八九(대삼합육생칠팔구)
7. 運三四成環五七(운삼사성환오칠)
8. 一妙衍萬往萬來 用變不動本
(일묘연만왕만래 용변부동본)
9. 本心本太陽昂明(본심본태양앙명)
10. 人中天地一(인중천지일)
11. 一終無終一(일종무종일)

내용을 살펴보면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숫자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단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환단고기〉에 81자가 환국 때부터 입으로 전래됐다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환인 시대에는 한문이 없었습니다. 고대에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있었고, 천부경도 처음엔 순수한 옛 우리말로 전해졌을 겁니다. 이걸 고려 때 최치원 선생이 한문으로 바꿨고 그 한문 천부경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천부경 속 숫자를 읽을 때 '일'이 아닌 순수 우리말 '하나'로 읽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체·해탈·연기 등 담고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은 "일체만물은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본디 '하나'는 시작이 없다. 이 하나는 '삼극'으로 나뉘지만 본체는 무한하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다른 천부경 해설서에서 흔히 "하늘은 그 하나의 첫 번째요, 땅은 그 하나의 두 번째요, 사람은 그 하나의 세 번째다"로 해석하지만 이는 옳지 않습니다. 옛 우리말에서 하나는 본래 '환하다' '밝다'는 뜻입니다. 우주 진리의 '본체'를 일컫습니다. 원래 진리는 환하고 밝은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 환한 것을 하늘에 비유한 겁니다. 본체는 냄새도 형상도 없습니다. 이 '본체'의 성질을 3가지로 비유했는데, 첫 번째가 하늘, 두 번째가 땅,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람입니다. 본체는 마치 하늘처럼 잡을 수 없고, 무한하며 모양도 없습니다. 본체의 덕성은 지혜롭습니다. 지혜를 땅에 비유하는 이유는 불교 경전 〈대승기신론〉에서 우리 마음을 '체(體)·상(相)·용(用)' 셋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들은 각각 마음의 본체, 마음의 양상, 마음의 활용을 지칭합니다. 셋 중 상(相)이란 무한한 덕성을 지닌 성정으로, 흔히 땅에 비유합니다. 땅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광물과 영양분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힘을 지닌 주체가 사람입니다.

네 번째 구절은 "선업을 하나하나 쌓아서 거대한 십극(시방세계)을 덮을 만큼 되면 업을 벗고 대우주와 하나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의미와 뜻이 매우 닿아있습니다. 본체는 하나이므로 하늘에는 땅(지혜)과 사람(무한 활용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땅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구절은 어느 성질 하나 빠지지 않는 본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별개가 아닌 이 셋이 합해 영원함을 이룹니다. 여섯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숫자 '여섯'은 예로부터 무한함을 의미했습니다.

고대사 기록 속 '천부경'
우리말로 풀어 접근하면
연기적 세계관 알 수 있어
불자들에게도 도움 된다

"천·지·인을 운용하여 일체만물을 이루고, 이들 만물은 만 번 가고 만 번 와도 본질이 변하지 않고 밝다. 사람에게는 덕(하늘)과 지혜(땅)가 있으니 이 하나는 끝이 없다"는 일곱 번째 구절 이하 내용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緣起法)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고대 한국사를 노리는 중국

천부경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천부경이 환인 시대 때부터 전승됐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환인 시대는 3301년간 지속됩니다. 이후 환웅 시대는 1565년, 단군 시대는 2333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닌 '대통령' 같은 최고 직책 이름입니다. 이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역사는 여태까지 총 9천 년의 역사인 셈입니다. 천부경에는 환인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운 '소도'라는 곳을 기억하십니까? 소도는 성역으로, 범죄자가 이곳으로 도망치면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도가 환웅 시대 때부터 천부경과 삼일신도를 가르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공간이기에 이곳으로 도망친 범죄자를 잡아 교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웅 시대 때 과연 어떻게 천부경과 같은 위대한 사상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전의 유구한 역사를 안다면 가능하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20세기 초 중국역사학자 '호적'은 미국 실용주의 사상가 존 듀이 밑에서 수학하고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호적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베이징대학에서 중국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채용될만큼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841년 이전의 중국 역사는 못믿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한무제 때 역사서 〈사기〉에 황제, 전국, 제국, 요, 순, 오제, 하·상·주, 한나라를 모두 중국역사라고 기술했지만 정작 정확한 연도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사기〉에 12제후연표를 적어 각 제후들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주나라 제18대 마지막 려왕의 폭정에 민란이 일어나 왕이 축출되어 대신들이 다스리던 때를 '공화기(共和期)'라고 합니다. 기원전 841년을 공화원년이라고 칭했는데 이전의 기록이 없어 사실임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뒤이어 〈고사변〉의 저자 '고힐강'이라는 학자가 호적의 말을 듣고 중국 고대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 또한 기원전 841년 이전의 역사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들과 같은 생각을 한 고사변파 학자들은 1940년대까지 중국 학계의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뒤 중국에서 모택동이 국가발전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공산당에서 5년마다 국가 모든 분야의 계획을 세우는데 제9차 5년계획(1996~2000년) 때 '하·상·주 단대공정'을 실시했습니다. 청화대학 출신 '송건'이 주창한 이 계획의 저변에는 중국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송건이 이집트, 이스라엘, 중동을 순방하며 이들 문명권이 모두 기원전 3000년의 역사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중국 황하문명은 기원전 2000~1500년으로 확인돼 그는 무척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사변파 학자들의 말은 이마저도 반으로 뚝 잘라 중국역사를 축소하는 꼴이니 용납할 수 없었겠죠. 그는 최소한 하·상·주 시대만이라도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중국역사로 편입하고 싶어했습니다. 황하강 서쪽에서 일어난 이들 문명권을 조사해보니 하나라는 기원전 2070~1600년까지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2001년도에 중국 중앙신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단대공정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은 '중화문명 탐원공정'을 벌였습니다. 2003년 정식 개시한 이 공정은 삼황오제 신화 시대를 모두 중국 역사시대로 만들어 중국의 역사적 실체를 무려 1만 년 전으로 끌어 올리려는 의도를 지녔습니다. 요하지방에서 발견된 문명의 흔적들을 중국문명으로 둔갑시키려고 했는데, 과연 이들이 한족의 문명일까요?

중국은 예로부터 황하 문명권임을 스스로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주 요하지방에서 엄청난 유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을 7개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명은 소하서문명인데 기원전 7500년 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흥융화, 사해, 조보구, 홍산, 소화연 문명권들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견된 옥귀걸이의 재료인 옥이 압록강 근처 수암현이 출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역은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터를 잡고 살아온 곳입니다. 옥귀걸이 발견지와 재료 출처지는 450km의 넓은 거리인데 같은 문화권이 아니라면 유통되기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요동과 요서 지방이 한 문화권이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또 흥융화문명의 특징인 빗살무늬토기는 황하문명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요하지방에서만 발견되었죠. 요하문명과 황하문명의 지역적·시대적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쯤되면 홍산문명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족이 황제족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요하지방에서 일어난 문명 모두를 중국문명권으로 포함하려 합니다. 고조선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을 중국 황제의 후손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제족이 치우와 전쟁이후 '이겼다'는 〈사기〉 기록과는 달리 이들은 고비사막 서쪽에서 양소지역으로 남하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쪽이 물러날리 없습니다. 〈환단고기〉에는 치우가 이들을 굴복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족은 저 멀리 카스피해로부터 몽골 초원지대를 거쳐 요하에 왔다고 기록합니다. 스스로 '환'이라고 부르는 이들 민족은 밝은 성정을 지녔고 홍산문명의 기원입니다. 홍산문화에는 신석기 문화 특징이 모두 담겨 세계 학자들이 요하지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중국은 스스로 웅녀와 단군상을 만들어 이 지역 고대사를 본인의 역사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요?

차주 강의 소개

주제 : 불교와 정신문화세계
강사 : 前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
문의 : 1577-3696

대한불교전통조계종 공고

본 종은 종지종풍을 세우기 위하여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2005년도부터 2016년 7월까지 탈종자 및 체탈자를 제적 공고합니다.

▷ 총 208개 사찰과 승려 212명 ◁

제적 사찰

순번	사찰명	법명	성명
1	각원사	혜일	이규상
2	각황사포교원	정각	최현대
3	감로정사	도현	김철우
4	거림정사	돈오	이용득
5	견성암	설산	주민대
6	관음사	대행	이군자
7	관음사	도명	정묘봉
8	관음사	명광	배철환
9	관음사	비담	김영복
10	관음사	상열	최철환
11	관음사	수산	이종복
12	관음사	운산	이길락
13	관음사	원공	공유철
14	관음사	원당	최구봉
15	관음사	자비행	전예방
16	관음정사	지연	유지자
17	관음정사	진만	김번호
18	광덕선원	법진	윤덕기
19	광명사	무안	김광윤
20	광명선원	법성	김윤하
21	광불사	지광	강영주
22	국선사	석영	안정수
23	극락사	무심	김문택
24	극락사	본심화	정혜란
25	극락사	영산	김영준
26	금강사	도림	박용석
27	금강선원	도천	김성중
28	금강선원	성전	김기영
29	금강정사	지웅	권영호
30	금륜사	법공	정덕호
31	금오정사	진공	이종봉
32	금장사	백담	임용수
33	금화사	금화	
34	기원정사	덕산	장동익
35	다보사	도일	이태경
36	다솔사	법연	고경숙
37	달마선원	다윤	최인숙
38	달마정사	덕정	박정일
39	달마정사	명석	김대식
40	대각사	무변	조성순
41	대각사	지암	이승민
42	대광암	여래	차성숙
43	대국사	남호	이상철
44	대금암	수공	윤영식
45	대도사	무량	허철령
46	대성사	청산	
47	대성사	혜능	배재문
48	대성암	지호	정병철
49	대원사	규봉	김희안
50	대현정사	월산	최정훈
51	도경사	도관	이재순
52	도선사	정광	김억수
53	도세암	보각	이학규
54	도솔암	권해	서재희
55	도솔천영일암	도법	윤필훈
56	동암사	혜산	김종원
57	마하보리사	한바다	박광수
58	무량사	덕암	이중곤
59	무량사	자은	김봉한
60	무량사	정진	강태조
61	무량선원	해덕	김정숙
62	문수사	현덕	장철수
63	미륵암	청운	차복원
64	미타사	묘법	김재우
65	미타사	해인	곽기영
66	미타사	현각	최종규
67	미타정사		유봉순
68	백련암	성도	안진각
69	백림사	진묵	이인식
70	백운사	보행	정희순
71	백화사	만봉	문용이
72	법륜사	해천	강경배
73	법천사	법천	정동식
74	법화정사	덕원	배성필
75	보각정사	보각	정임상
76	보금정사	혜득	백인훈
77	보덕사	성법	윤주천
78	보덕사	지원	신임순
79	보성사	중천	이상규
80	보성사	해운	
81	보연사	진광	김동원
82	보현사	청호	최영훈
83	보현암	혜정	서영주
84	복두암	법승	이종석
85	봉경사	아산	이옥례
86	봉덕사	봉천	김병술
87	봉덕사	우성	정진화
88	봉두암	거산	우광섭
89	봉암사	정산	노성열
90	봉천사	보문	김산원
91	불각사	혜운	원찬호
92	불광사	연화심	서종애
93	불광사	지공	김채식
94	불광사	청봉	김정헌
95	불광사	혜천	김유진
96	불심원	무안	이수민
97	상원사	도철	조재균
98	서봉사	의연	나해옥
99	석연암	정묵	김종수
100	선각사	담연	강길희
101	선향사	주현	송선집
102	성덕사	홍신	조애란
103	성덕암	무상심	주영덕
104	성덕암	지오	김정규
105	성봉사	도천	강성호
106	성봉사	범일	장명술
107	성봉사	정도	최재학
108	성봉원	지도	차우영
109	성왕사	도문	박승효
110	성취암	강보현성	강경숙
111	소림사	혜륜	심중협
112	소원사	거봉	황의철
113	송정암	반월	박수근
114	수월사	혜명	권숙경
115	수진정사	수진	김미영
116	시조암	지공	장 한
117	신비암	지경	김희순
118	신인정사	도성	이병무
119	신흥사	관행	공영환
120	심길사	심길	이영현
121	쌍용사	금구	김용진
122	쌍용사	혜광	송철환
123	약사사	법련	심성희
124	약사여래사	혜성	이광희
125	약수암	석문	이종현
126	약수암	홍일	최철수
127	약왕정사		정인성
128	약천암	보명	박강수
129	연봉사	혜봉	김일석
130	연수암	보승	박영서
131	연지암	법향	정영조
132	연화사	연화	노명옥
133	연화사	진현	김은구
134	영광사	일운	유경자
135	옥련암	능현	강일선
136	용각사	혜산	하재수
137	용광사	덕광	신동원
138	용광사	우담	이영재
139	용덕정사	동은	한지광
140	용수사	해성	강진현
141	용연사	법천	이동수
142	용원사	무아	김상열
143	용원암	무원	박강직
144	용해사	지우	최윤경
145	우주정사	우주	손은수
146	운암사	운암	황영규
147	원불원	도율	전영지
148	원응정사	동법	정철수
149	원효사	원담	조중섭
150	원효암	운오	임복균
151	은진사	범송	라봉진
152	은천사	상경	박창욱
153	이루사	일원	이기령
154	인황지사	인황	김상준
155	일성사	일성	유은정
156	일월사	정인	문준호
157	일월사	해담	
158	자명사	경민	강경순
159	자비사	대안	정금호
160	자성암	연화행	안병옥
161	자은암	호당	임선순
162	장원사	장원	장경수
163	장흥사	도경	이홍길
164	정각사	해월	박병선
165	정림사	보문	최충환
166	정불사	정타	신익경
167	정음사원	정음	김귀종
168	정토사	인묵	김상범
169	정혜사	정호	한병우
170	제원사	정각	배연우
171	죽림정사	청송	박병진
172	지곡사	도문	김호근
173	지도사	지도	이영상
174	지장사	무성	김영선
175	지장사	지성	왕영배
176	지장사	현오	김태성
177	지장암	대원	고병훈
178	지장암	태극	이판선
179	지장정사	현우	정회란
180	천등사	혜성	정두섭
181	천룡사	법수	김현욱
182	천수사	정진	나정청
183	천수사	청화	이승민
184	천왕사	묘법	김영규
185	천지암	연화심	윤혜영
186	철마사	용담	전승용
187	청량사	원불화	김점례
188	청운사	혜각	이인성
189	청인사	청인	심영일
190	청정사	수현	곽노달
191	청해사	일봉	박성훈
192	취선선원	지용	제갈봉현
193	태고사	호산	신성호
194	태극사	법운	유대식
195	팔공사	혜명	하창신
196	해동탑사	초오	유인묵
197	해우정사	인우	이은열
198	해운정사	청명	박미숙
199	해원사	원일	오순석
200	현불사	성월	오석근
	용화선원		
201	현정사	원담	김시영
202	혜각선원	혜일	김성술
203	혜광사	혜오	김봉규
204	혜덕암	덕암	장정배
205	화응사	묘각	박준용
206	화타암	도원	김중문
207	황복사	미봉	전헌수
208	황용사	혜원	강영홍
209		증우	이종원
210		자명	김외숙

체 탈 자

혜광 송철환
혜성 정두섭

상기 사찰과 승려는 본 종 명의를 일체 행위 및 사용(기부금 영수증 발급등 중지)할 수 없으며 2016년 7월14일자로 제적을 공고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동담·사정원장 귀천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 총본산 각황사 종무실 / 053) 325-0400

서산 마애불 등 세계유산 등재 추진

충남도의회, 7일 충남 백제 불교유적 등재 토론회

서산 삼존마애불 등 충남도 백제 불교문화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7월 7일 서산문화원에서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 지역에 분포된 마애여래삼존상과 보원사 등 가야산 권역 백제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유산등재가 지자체의 실적처럼 오인되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한다"며 "통상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까지는 10년에서 30년까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국가와 지역의 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준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백제역사를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임 보원사 사무장은 "백제시대 가야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내포지역은 활발한 해상교역의 경제중심지"라며 "수준 높은 서민 문화가 발달한 만큼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등재하기에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 · 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충남도의회는 7월 7일 서산문화원에서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익살맞은 악귀상 만나봤나요

국립부여문화재硏, 익산 제석사 유적서 발견

툭 튀어나온 눈, 삐져나온 앞니, 마치 개구리 같이 생긴 익살스런 악귀상이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전북 익산시 제석사지(사적 제405호) 폐기유적 발굴조사 결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악귀상(惡鬼像) 등이 출토됐다"고 7월 12일 밝혔다.

현재 제석사지서 발굴 중인 폐기유적은 제석사(帝釋寺)에서 불에 탄 기와나 벽체 등 건축 부재와 사찰에 모셔진 소조 불상조각들을 버린 곳으로 남북 32.4m, 동서 28m 규모다.

이번 발굴에서는 악귀상(惡鬼像)을 비롯해 천부상(天部像), 나한상(羅漢像) 혹은 불제자(佛弟子)로 추정되는 2점 등이 출토됐다. 동그랗게 뜬 채 측면을 응시하고 있는 악귀상은 들창코와 치아 등이 섬세하게 표현돼 있으며, 눈동자에 유리질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머리 부분의 파편만 남아 있는 천부상에는 가는 눈매 · 길게 늘어진 도톰한 귓불 · 두툼한 턱이, 나머지 2점에는 감은 눈 · 두툼한 코 · 둥그스름한 정수리 등이 잘 표현돼 있다.



익산 제석사지 폐기 유적에서 발견된 악귀상. 익살스런 모습이다.

부여문화재연구소 측은 "형태나 문양, 제작기법 측면에서 중국 낙양 영령사(永寧寺), 부여 정림사지(定林寺址), 일본 가와하라데라(川原寺) 출토품과 비교해 살펴볼 때, 제석사지에서 발굴된 유물은 백제를 중심으로 중국 ·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교류 양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나말여초, 고승·사찰은 지역 소통 창구"

한준수 교수, 한국중세사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신라가 패망하고 고려가 건국될 당시에는 지방 세력이 매우 강했다. 이런 지방 세력을 규합하고 안정화하는 데 고승과 사찰이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한준수 가톨릭대 고려다원사회연구소 교수는 7월 1일 '관계와 소통: 고려왕조의 중앙과 지방의 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린 한국중세사학회 · 고려다원사회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서 나말여초에 금석문에 나타난 왕권과 승려와의 교류를 조명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신라 하대에 이르러 왕위 다툼이 격화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되면서 지방세력이 부상했다. 지방세력은 군사뿐만 아니라 사상 · 문화적인 면에서도 성장하고 있었고, 당시 불교의 주류인 선종 역시 지방세력에 기인했다.

신라가 패망하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는 혼란을 수습하고 지방세력과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지배질서를 만

고려 태조, 승려와 교류 많아
주요사찰 주석하도록 유도해
지방 안정 도모… 역동성 가져

들어갔다. 태조의 불교 정책은 통합의 성격을 넘어서 다원적 정책을 내재하고 있었다.

한 교수는 "개경과 지방에 창건한 26개의 사원을 살펴보면 교종과 선종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종파와 교단의 공존과 균형을 추구한 다원적 종교정책의 성격이 엿보인다"면서 "태조의 승려 교류와 사원 창건은 사상적 균형을 이루려던 목적이 있었다. 이는 획일적 통합보다는 균형적 공존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태조는 자신과 교류했던 승려들은 지방의 주요 사원에 주석토록 했다. 이는 당시 고승 비문에 잘 나타난다. 법경대사의 비문에는 "임금의 교화를 돕고 마음을 받들어 인재를 등용하려는 계획을 받들었다"고 쓰여 있고, 원종대사의 비문에는 왕명으로 인해 주석한 사찰이 교통의 요충지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다.

한 교수는 "보경대사가 임금의 교화를 도왔다는 것은 관념적 지지를 넘어 구체적 실해에 관여했음을 보여준다. 인재 등용은 새로운 국가체재의 원동력으로 지방세력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며 "원종대사의 비문에서도 불교의 사찰이 고려시대 교통로 정비 · 숙박 · 교역 등을 담당한 '원(院)'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찰 간의 교류도 이러한 틀 속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교수는 "사찰과 스님은 지리적 한계를 넘어 지방사회의 정서를 수렴하고 있었으며, 비록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소통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또한 고승이 주석했던 사찰은 사상부터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방사회를 수렴하는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지방사회의 역동성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라대종', 에밀레종 외관·소리 재현하다

성종사 · (사)범종학회
'복원적 재현' 대종 제작
6월 말 완성…2년 불사
치수 · 소리 1~2% 오차
10월 경주 이운될 예정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이 완벽에 가깝게 재현돼 화제다. 범종 전문 제작업체 성종사와 (사)범종학회는 "성덕대왕신종이 1,245년 만에 첨단 기술로 완벽하게 재현됐다"고 7월 12일 밝혔다.

'신라대종'으로 명명된 '성덕대왕신종'의 재현종은 지난 2003년 이후 타종을 중단한 성덕대왕신종의 소리를 다시 울리게 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경주시가 성종사와 (사)범종학회에 제작을 의뢰한 종이다.

성종사는 2년여의 불사를 거쳐 '신라대종'을 지난 6월말 완성했다. 지난 6월 24일에는 경주시 관계자들이 성종사 진천 제작소를 찾아 울림식을 갖기도 했다.

이번 성덕대왕신종 재현 작업에서는 문양 복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공양좌상에 많은 공을 들였다. 성덕대왕신종은 세월의 풍파로 많은 부분이 마모돼 공양좌상의 얼굴 부위에는 눈 · 코 · 입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신라대종에서는 비슷한 연대에



성덕대왕신종을 그대로 재현해 낸 신라대종의 모습. 외연부터 소리까지 첨단기술로 성종사가 완벽에 가깝게 되살려냈다.

제작된 석굴암의 불상을 참조해 눈 · 코 · 입을 살려냈으며, 이외에도 비천상의 손, 향로, 장신구, 보상화문의 표현, 잘려진 용뉴의 뿔까지 모두 여러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 살려냈다.

이를 위해 (사)범종학회에서는 문양, 주조, 음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철저한 고증과 감리를 실시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문양을 조각했다.

성종사 대표인 원광식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은 "이번에 제작된 신라대종은 성덕대왕신종의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원적 재현'이라는 원칙아래 만들어졌다"면서 "에밀레종 본체의 문양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되, 제작 당시 기술 부족으로 발생한 주조결함이나 마모된 부분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신라대종은 실측 결과 성덕대왕신종과 1%의 오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향에 있어서도 여음을 결정하는 1차 고유진동수가 성덕대왕신종의 주파수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등 모든 영역대의 주파수가 성덕대왕신종과 유사했다.

신라대종의 음향분석을 담당한 김석현 강원대 교수는 "신라대종은 성덕대왕신종과 거의 동일하게 600Hz 범위에서 20여 개의 고유주파수 성분이 어울리면서 웅장한 타격음을 낸다. 주파수 성분들의 화음도는 신종의 화음도에 거의 일치할 정도로 높다"면서 "다시 주조해도 이정도로 유사한 크기와 소리를 가진 종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완성된 신라대종은 종각이 완성되는 오는 10월 경주로 이동돼 타종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수원 광교산 사지서 12세기 불교 유물 출토

수원박물관, 탑지 등 발견

수원 광교산에서 12세기 중반 전후로 추정되는 종각터와 석탑지 등이 발견됐다.

수원시박물관사업소는 "지난 4월부터 광교산 사찰(현 수원 창성사, 구 법성사)부지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조성한 추정 종루(종각)터와 석탑지 등이 확인됐다"고 7월 7일 밝혔다.

조사대상지는 문화재 통합GIS 인트라넷시스템에 '수원 상광교동 사지(추정)'로 등록된 부지로 유적은 광교산남서쪽 능선사면부에 위치한 사찰 경내의 경작지와 주차장 부지 일부에서 발견됐다.

발굴조사결과 유구는 통일신라~고려시대 건물지 3동과 석탑지 1기 등이 확인됐다. 유물은 사천왕상의 팔부분이 부조된 석탑재를 비롯해 통일신라~고려시대 와전류(평기와 · 막새 · 전돌 · 나발 · 용두 · 치미 등), 소량의 고려시대 청자편 및 조선후기의 백자편이 출토됐다.

신성민 기자



수물 광교산 사찰에서 발견된 불교 관련 유구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3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7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8월 1일 (월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초심자 모여 청년회 창립
"신행문화 내실 기할 터"

부산 수도사, 7월 9일
불교 청년회 창립법회 봉행

자발적 참여로 청년회 조직
회원 대부분 초심자 '눈길'
8월 중 임원회 소집 계획도



부산 수도사는 7월 9일 경내 법당에서 불교 청년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수도사에 청년 40여명이 찾아왔다. 처음 그들은 불교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지만, 그저 불교를 배우고 싶단 순수한 마음으로 수도사를 찾았다. 그렇게 몇몇이 모이다 보니 '청년회' 창립까지 이어졌다.

부산 수도사(주지 일철)는 7월 9일 경내 법당서 '수도사 불교 청년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청년회는 앞으로 '아름다운 배려, 참여하는 청년회'를 모토로 불심을 다져나갈 것을 밝혔다. 수월 스님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헌화 및 헌향, 격려사, 발원문 등 순으로 이어졌다. 발원문서 청년회는 "정진수행을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 익힐 것"을 다짐했다.

수진 스님(조계종 부산연합회장)은 "청년 불교가 한국 불교의 중심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청년 포교를 활성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며 "수도사 주지 일철 스님은 그 일을 해내셨다. 수도사 청년회가 부산 청년 불교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한국불교 청년회의 비상을 꿈꾸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수도사 주지 일철 스님과 이헌승 국회의원, 김영춘 국회의원,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중앙회장, 이채원 대불청 대의원의장의 축사와 김태훈 대불청 부산지구 회장의 치사가 이어졌다.

주지 일철 스님은 "지금 수도사에서 출발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동량"이라며 "현대 불교는 청년 불자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다 넓고 깊어질 수 있도록 수행정진하고 노력봉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회장에는 부산 대불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재원 씨가 임명됐다. 서재원 신임회장은 △가족법회 활성화 △전통문화 및 불교 수양 △수행 정진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서 회장은 "가정이 함께할 수 있는 법회를 만듦으로써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특히 수행은 청년 불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친교뿐만 아니라 불교적 소양도 갖춰 내실 있는 불교 청년회로 성장할 것"이라 밝혔다. 이밖에도 8월 중 임원회를 소집하고, 정기모임 일정 및 연간계획 등 확정하겠단 계획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수진 스님, 일철 스님, 수월 스님을 비롯해 대불청 중앙회 및 대불청 부산지구 청년, 수도사 불교 청년회 회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차에 담긴 따뜻함으로 국민에 다가가길"

기장 차 문화대학 1기 수료식 개최

부산 '기장茶문화대학'(학장 정오)은 7월 12일 부산기장경찰서 대강당서 '기장 차 문화 대학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차 문화 대학 1기는 수료생 30명 중 대부분이 남성들이며, 경찰도 다수 포함돼 있단 것이 특징이다.

경찰들은 제복을 입고 독좌를 시연했다. 독좌는 '독좌대웅봉'의 줄임말로, 큰 산 봉우리에 앉은 기상을 담아 홀로 명상하는 공부인들의 자세란 뜻의 기본 다법이다. 이날 참석한 경찰들은 "나라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무관이지만, 힘보다 먼저 차로 마음을 다스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며 "도움을 준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수료식은 △내빈소개 △헌향 · 헌다 · 헌화 △동영상 시청 △독좌 차 시연 △차문화대학 소개 △표창 · 감사장 수여 △수료증 수여 △격려말씀 및 인사말씀 △축사 △기념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학장 정오 스님(기장불교연합회 회장)은 "차는 전 세계인이 종교와 인종을 넘어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라며 "민중을 위한 자세로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복이 되는 계기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부산 '기장 茶 문화대학'이 7월 12일 부산기장경찰서 대강당서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경찰들이 다법 독좌를 시연하는 모습.

정여 스님(前 범어사 주지)은 "삭막한 요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팍팍해지는데, 여러분의 차 한 잔에서는 쉼과 고요함, 그리고 따뜻함을 발견했다"며 "차 속에 담긴 그 마음을 기장 주민들에게 잘 전해 참다운 안위를 책임지는 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학장 보혜 스님(부산차인연합회 회장)은 "수업을 하는 동안 경찰들의 딱딱한 이미지와는 반대로 따뜻한 심성을 볼 수 있었다"며 "경찰들은 정말 차와 잘 어울리는 분들임을 알게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기장 차문화 대학은 2015년 12월 29일 기장경찰서서 경찰관 29명 기장군민 12명을 시작으로 개강했다. 올해 3월 27일 국제 차문화 교류 대회 참석, 4월 16일 차문화 기행, 5월 1일 연등 축제 차회 주관, 5월 7일 부산차문화 축제 무대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부학장 보혜 스님은 "앞으로 경찰 뿐 아니라 차를 접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으로 회향될 것이며, 향후 차대학관도 불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학장 정오 스님, 부학장 보혜 스님, 정여 스님, 정남권 경찰서장, 김대철 한국 여천차문화원 원장, 박도희 숙우회 다향차행법회 원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생명나눔, 제4회 생명존중강좌 개최

7월 25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본부장 원범)는 7월 25일 오전 10시~오후 4시 안국선원교육관 중강당서 제4회 생명존중강좌를 개최한다.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생명나눔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 기증 · 후원회원, 유관단체 등이다.

강의는 조원규 교수님(동아대학교평생교육원)의 '행복한 삶'에 대한 주제로 시작해 박동범 사무국장((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의 '생명존중사상' 강좌로 이어진다.

행복한 삶에 대한 강좌는 △행복의 정의 △행복을 위한 조건과 행복의 법칙 △면역과 암의 상관 관계, 효과적인 치료방법 △한국인의 특질 △행복과 건강 만들기로 진행된다.

생명존중사상은 △불교의 관점에서 보는 장기기증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신의학에서 주요 우울증 진단 기준 △우울의 원인과 치료방법 △자아 존중감, 자기 가치감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부산 생명나눔실천은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생명존중강좌를 마련했다"며 "이번 강좌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생명나눔 활동을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많은 동참을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문화로 인성교육해요!"

마케팅고, 부산 동림사서 불교문화 체험

부산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가 불교문화를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해 화제다.

동림사는 7월 14일 마케팅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불교문화 체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명상 · 선화 · 단주 만들기 · 다도 · 천연염색 등 다양한 활동에 임했다.

김지은(3년) 학생은 "천연염색은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예쁘게 만들어져 기쁘다. 부모님께 선물할 것"이라며 웃어보였다.

또한 최민영(3년) 학생은 "기존에는 불교를 떠올리면 갈색 · 회색 등이 연상됐다"며 "단주를 만들다 보니 불교에 어울리는 색들이 너무 다양하단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동림사 주지 성타 스님은 "요즘 아이들이 학업은 물론,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다 보니 일상에 '쉼'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명상과 여러 불교 체험들이 아이들에게 쉼을 주고 차분함을 얻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 동림사는 7월 14일 학생 및 교직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체험활동을 펼쳤다.

현재 동림사는 매년 학생 및 경찰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불교문화를 통해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대선불교조계종 동산 대종사 입적 100일재

7월 9일 대구 금봉사서 봉행

(사)대선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승)은 종정 범왕 동산 대종사 입적(4월 1일) 100일재를 7월 9일 대구 금봉사서 봉행했다. 현덕 스님 집전으로 진행된 100일재는 신중작법, 예불문, 천수경, 약찬게, 법성게, 축원 등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자리한 혜승 스님은 "종도들은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참회하고 범왕 동산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 정진에 매진할 것"이라며 "또한 종단의 전통성 회복을 위해 전 종도가 합심 단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법부장 도문 스님(성불사 주지)은 "유족 및 금봉사 신도회와 충분히 상의한 후 범왕 동산 대종사의 부도탑 제막과 유품전시관을 꼭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범왕 동산 대종사는 1930년 충남 공주서 출생, 27세 되던 해 대구 동화사 금당 김일웅화상을 은사로 불가에 귀의했다. 1969년 동산서도연구원 개설하고 1990년 경주 불국사 미술관장, 1998년 대한불교 대선조계종 초대(창종) 종정 등 역임한 바 있다. 1995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2007~8년 대한민국 서화예술비엔날레 창작미술대전 전시 수상 등 작품활동을 하기도 했다. 2016년 4월 1일 원적에 들었다. 세수 86세, 법납 58세.


(사)대선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승)은 종정 범왕 동산 대종사 입적(4월 1일) 100일재를 7월 9일 대구 금봉사서 봉행했다.

한편 대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덕 스님, 울산교구원장 공덕 스님 등 사부대중 50여명은 지난 5월 17일 범왕 대종사의 7재를 치른 바 있다. **손문철 지사장**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2016
제 1 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접수 2016. 8.29 ~ 31
전시 2016.11.16 ~ 21

대한불교천태종은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 마련하고자 2016년부터 '천태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미 2011년부터 천태불교사진공모전을, 2013년부터 원각서예대전을 시행해 온 천태종은 불교예술 전반의 신인작가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천태예술공모대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분야 및 분야별 공모 개요

분야	규격	출품료	출품제한
전통불화	200호 미만 (300cm 미만)	1점당 50,000원	1인 2점
현대불화	200호 미만 (300cm 미만)	1점당 50,000원	1인 2점
조 각	높이 250Cm 미만	1점당 50,000원	1인 2점
공 예	가로 세로 50Cm	1점당 50,000원	1인 3점
서예·문인화	전지 (가로70cm×세로130cm) 이하	1점당 30,000원	1인 3점
사 진	최소 3024×2016픽셀 JPG JPGE파일 (600만 화소 이상)	1점당 20,000원	1인 3점
민 화	100호 미만 (150cm 미만)	1점당 20,000원	1인 3점

시상내역

상 명	수상인원	시상내역
대 상	1명	1,000만원
최 우 수 상	2명	각 500만원
부문별우수상	7명 (부문별 1명)	각 100만원
가 작	7명 (부문별 1명)	각 50만원
장 려 상	14명 (부문별 2명)	각 30만원
특 선 입 선	부문별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심사 발표 : 천태종 홈페이지 금강신문 앱 및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전시 : 11월 16일~21일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출품자격 : 제한 없음

제출서류
출품 원서 (소정양식) 1부
출품자 경력서 (소정양식) 1부
작품 설명서 (소정양식) 2부

제출방법
원서배부 : 5월 1일부터 천태종 및 금강신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품 접수기간 : 8월 29일(월)~31일(수)
(우편발송의 경우 31일 도착분까지)
사진 E-mail접수 : ct-gongmo@daum.net
접수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
접수장소 : 관문사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호)
문 의 : 천태종총무원 서울사무소 / 02-723-1559

유의사항
접수된 출품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출품 서류 미비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예 · 문인화는 배접 표구 액자 등으로 제작된 작품은 접수 불가.
낙선작은 본인 회수를 원칙으로 하며, 사진의 경우 파일을 폐기함.
사진은 과도한 보정작업을 했을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발표작 표절작 및 타인명의 출품 등은 추후 입상이 무효처리됨.
출품자와 출품료 입금자 명의가 같아야 함.
기타 공모전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상규에 따름.

| 주최 | 대한불교천태종 | 주관 | 제1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 후원 | 금강신문사, 천태불교중앙박물관



지역인재 장학사업에 500만원 기탁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부안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이 부안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진성 스님은 7월 8일 부안군청을 찾아 김종규 부안군수(나누미근농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해 달라며 나누미근농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이 자리서 진성 스님은 "부안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뜻 깊은 일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부안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사업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장학금 기탁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향후 내소사가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며 "불자들과 함께 주변에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정기 후원회원 가입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역의 대표적인 종교지도자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려는 스님의 마음씀씀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하신 장학금은 연간 300여 명의 부안출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부안의 지역인재를 키우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축제 개최

7월 8~17일, '문학속에 핀 백련' 주제

새우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하소백련지라 불리는 전북 김제시 청하면 청운사(주지 도원)에서 제15회 하소백련축제가 열렸다.〈사진〉

7월 8~17일까지 10일간 열린 이번 하소백련축제는 '문학 속에 핀 백련' 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 등이 진행됐다.

8일 청운사 무량수전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익산시 재능시낭송회의 시낭송과 미륵불 점안식이 식전행사로 펼쳐졌다. 이어 사포무용단, 남사당패의 줄타기, 현대무용, 대중가요, 탱고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다. 9일과 10일에도 오카리나 연주, 부토, 설장고 판소리, 궁중무, 기타연주, 마당극 등 테마별 공연이 하소백련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청운사 일원의 백련지에서는 전북문인협회와 수필과비평사에서 시, 수필, 시조 등 80여개의 작품을 배너로 제작해 전시했다. 또 도자기와 불화 전시, 서예, 도자, 조각, 가훈 써주기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연잎밥, 연칼국수 등 연꽃을 재료로 조리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지역 佛心 하나로 결집하자"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 7월 13일 공식출범
젊은 인재양성 · 재가불자 신행개혁운동 다짐



7월 13일 열린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 출범식. 이 자리서 신도들은 재가불자 신행개혁운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광주지역 재가불자들의 불심을 증장시키고, 불법(佛法)을 수호하며 자비행을 실천할 신도회가 첫 발을 내디뎠다.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회장 이범식, 이하 신도회)는 7월 13일 광주 수자타(사찰전문음식점) 2층 연회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재가단체 규합에 나섰다.

출범식은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을 비롯한 지역사찰스님 50여 명과 각 사찰신도회 대표, 광주지역 불교신행단체 대표 등 광주지역 불교지도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범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불교의 발전과 지역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세상의 진리를 나와 이웃, 지역사회, 더 나아가 중생의 이익을 위해 전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출가 수행자를 호법하고 광주지역 불교단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사회에 만연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고,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김정연 포교사단광주전남지역단장, 송승종 광주광역시불자회장, 국승인 광주지방경찰청불자회장 등 광역불교단체 8명과 광주지역 각 사찰 신도대표들을 부회장으로, 나웅인 삼성한의원장 외 11인을 이사로 위촉했다.

신도회는 출범식과 함께 △사찰호법 및 신도회 바로세우기 △불교단체의 발

지역불교단체장 임원 선임
호법 · 연대활동 · 복지사업 계획
"지혜 모아 자비보살행 실천"

전을 위한 지원활동 △기업 후원자 발굴 및 연대활동 △교육 · 포교를 통한 불교계 인재양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어린이 · 청소년 · 대학생 법회 육성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불자들의 신행개혁운동으로 '불자답게 살기 위한 실천' 으로 20가지의 실천운동을 제시했다.

행사는 법요식에 이어 출범과정과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 출범선포식, 축하공연, 인사말, 격려사, 축사, 발원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격려사에서 "출범식을 통해 광주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지역주민과의 상생, 더불어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도회가 앞으로 많은 자비보살행을 통해 불교의 이념을 사회에 실천하는 좋은 도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특히 이날 출범을 알리는 선포식에는 재가불자를 상징하는 4인(어린이대표-백선재 길상사 어린이회원, 청년대표-전인선 원각사 청년회장, 여신도대표-정법심 만덕사 신도회장, 남신도대표 이범식 신도회장)이 나서 선포문을 낭독하며 신도회가 지역사회 불심을 결집하는 데 역량을 바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신도회는 2년간 신도회장이 공석이었다. 지난 1월 성도재일연합법회에서 이범식 신도회장을 추대하고, 본격적인 단체 구성에 나섰다. 이후 5~6월 약 두 달에 걸쳐 광주지역 불교신행단체들과 연석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광주불교연합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날 출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방황 극복하고 사회 동량 거듭나길"

여수 청암사, 광주소년원서
300명에게 대중공양



(사)청암봉사협의회가 7월 14일 광주소년원에서 마련한 '행복한 밥상'.

광주소년원생들을 위한 특별한 만찬이 열렸다.

여수 청암사(주지 지암)에서 설립한 (사)청암봉사협의회는 7월 14일 고령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를 찾아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행복한 밥상' 을 열고, 교직원과 소년원생 등 300여 명에게 고급 호텔식 점심을 제공했다.

광주라마다호텔이 후원한 이날 만찬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치킨, 육고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일과 채식까지 더해져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연합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지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무더운 여름, 아이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방황으로 이곳에 와 있지만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대중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동량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한 김애준 회원은 "늘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 오늘은 특히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곳에서 맛있는 것을 얼마나 먹고 싶은 나이일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암봉사협의회는 지난 2015년에 이어 2년째 점심만찬을 제공한 것 외에도 지난 6월 8일 경기여자청소년자립생활관 학생 중 모범생 14명을 초청해 해상케이블카, 레일바이크 등 여수지역 문화체험 2박3일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광주소년원과 결연을 통해 40여 명의 회원들이 소년원생 멘토로 참여해 정기적으로 상담과 여가활동지원, 점심 및 특식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제불교 문화재 유산 등재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7일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7월 7일 서산문화원서 '백제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방안 모색' 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내 불교유적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이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서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가 기조발제를 했으며, 김선임 보원사 사무장, 임경호 충남도 문화재과 학예연구사, 이병렬 서산타임즈 대표,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상근 대표는 "우리나라는 세계유산등재가 마치 지자체 실적처럼 오인돼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한다"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까지는 10년에서 30년까지 오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부적인 연구와 준비, 유기적인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정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백제역사를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온라인 불교미술전
예상희
호종현
김지원
정길재
박혜상
안길상
황규철
달분(조은경)
이김천
박선정
명상맨(김영수)
Minimalism
작은 것이 아름답다
기간 6.1.~8.31.
전시 붓다북 02-953-7181
주최 主人公 共空 Project Gallery 주인공
프로젝트 갤러리 〈주인공〉 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함께 힘을 모아,
세상에 펼치는 예술 모임입니다.
서울국제박람회 BAF(Buddha Art Festival) SETEC,
나무갤러리 BAF연장전,
불광사 Minimalism 에 이어 네 번째 온라인 불교미술전을
붓다북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Minimalism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붓다의 가르침인 소욕지족을 표현합니다.
이제 가상의 공간인 붓다북에서 주인공(작가)들이 전하는
붓다의 가르침이 펼쳐집니다.
불교전문쇼핑몰
붓다북 02.953.7181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 11 동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www.buddhabook.co.kr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NAVER 연꽃소전대 검색
귀사찰에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작품을 제안합니다.
작품성과 실용성 모두 완벽에 가까운 수제 작품입니다.
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를 모두 획득한
작품이며 장인의 땀과 혼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열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귀사찰의 기제사나
천도제의 마지막 의식인 소전 의식을 준비 하신다면
사찰의 품격과 신도님들의 품격 또한 높여
귀사찰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 연 락 처
010-5904-2406
031-429-1077
불교조각연구원

양보 없는 믿음이 종교비극 초래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㊼ 종교평화에 대한 소고 2



그림 · 최주현

모든 종교는 자신의 종교가 최고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불교는 다른 종교에 대하여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최고의 진리이며, 그것이 우리를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해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불교로 개종시켜야 옳은 것 아닌가요?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루 빨리 불교로 개종시키는 것이야말로 불교도가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인데, 왜 다른 종교도 용인하는 너그러움을 보이는 것일까요? 혹시 그 너그러움은 잘못된 것이며, 불교에 대한 신앙이 투철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런 물음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몇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불교의 근본적 입장인 '방편설'이라는 것이 종교적 관용성을 낳은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해를 건너게 하는 뗏목과 같다는 것이지요. 목적은 고해를 건너는 것이지, 고해를 건너고 나서도 뗏목을 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벗어남이 소중한 것이며, 그 가르침 자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방편이라 하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고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어떤 방편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즉 좀 효과는 떨어질지 몰라도 다른 방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악(惡)'이라고 보지 않는 다는 점이지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면 그것을 없애려 나서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종교 사이에 피 흘리는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최고로 두되,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진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 이것이 종교적 관용성을 낳게 하는 것이지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도 지혜롭게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해독을 낳을 수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더해지게 되면 더더욱 너그러운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는 것이 불교의 독특한 시각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부처님 말씀도 너무 그것에 집착하면 외도와 사도의 가르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기도 바쁘거든요. 그 가리킨 손가락 방향 따라 달 보기도 바쁜데, 혹 손가락 붙잡고 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기도 바쁜데, 무슨 남의 종교의 가르침에 시비를 걸 여유가 있겠어요.

이렇게 '방편설'의 입장이 종교적 관용성을 낳는 바탕이 된다면, 그 방편설의 기본 입장인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다시 종교적 관용성을 확장시킵니다. 좀 어렵게 말했나요? 그냥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신분에 있던 사람이 부처님의 교단에 귀의할 뜻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분은 타 종교의 독실한 신도였었지요. 그 종단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그 가르침의 뛰어남에 감복하여 불교도로 개종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 때 부처님은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하라"고 하시면서, 금방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부처님 말씀에 따라 정말 신중하게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부처님 교단에 귀의할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 사람이 믿고 있었던 종교의 교단에 하던 종교적 헌금 등을 여전이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를 교단에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악'으로 보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네가 이제야 악의 품을 벗어났구나!" 하시면서 얼른 받아들이셨겠지요. 일단 부처님은 그렇게 다른 종교가 악이라고 보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단시 신도 수를 불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정이 중요하다. 이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그런데 종교만을 내세워 사회적 안정을 해친다면 오히려 목적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종교를 전하는 것도 종교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한다."

부처님, 불교 개종하려는 이에게
"신중히 생각해보거라" 말씀
종교는 삶 위한 방편 인식
내 종교 외 다른 종교 존중해야

물론 이것이 부처님 생각 그대로일 리는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처님 생각의 한 자락을 해석해 보는 것일 따름이지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볍게 종교를 바꾸는 것은 사회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 그런 뜻이 조금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좀 더 확장하면, 종교는 수단이요 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행복이라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종교도 방편인 셈이지요. 그런데 그 방편을 위해 목적이 다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를 위해 사람을 해치고, 종교를 위해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종교를 위해 세계를 혼란과 투쟁으로 몰아넣고, 그런 종교라면 없는 것이 낫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런 생각을 압축해서 여러 종교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여기는 자세,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고 무시하거나 헐뜯지 말고, 그 사람들을 부처님 보듯 존중하는 불자의 자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들이 인연의 부족으로, 혹은 여러 원인으로 가장 뛰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 주려는 극진한 마음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그들과의 갈등으로 번지고, 나아가 사회적인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는 것이며 근본과 말단을 혼동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자세를 지니면서,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이러한 불교의 관용적인 입장에 동참함으로써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지요. 그것의 귀결로 모든 종교들이 동참하는 '종교평화선언' 같은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런 삼쾌선생의 바램,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요? 잠시 보류되고 있는 '종교평화선언', 곧 빛을 보게 되겠지요? 모든 종교가 거기에 동참하여, 우리 사회가 종교 문제에 아픔을 겪지 않는 보다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겠지요?

애고, 삼쾌선생이 늘 관심가지고 있는 일이다 보니 이야기가 좀 길었지요? 다시 서유기의 무대로 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지국 임금은 정말 종교에 대한 편향이 너무 심했지요? 최고 통치자가 그렇게 가볍게 종교적 편향성을 보이고, 그러한 줏대 없는 최고통치자에 영합한 올바르지 못한 종교인들이 극단적인 종교박해, 종교대립을 일으키네요. 세상사 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게 마련이지만, 오랜 가뭄에 기우제가 영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종교 경쟁을 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지요. 그런 신통과 이적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모든 종교가 사교(邪敎)로 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교들이 그러하지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종교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주문만 외우면 된다"는 식으로 사람을 현혹하지요. 문제는 그러한 현혹이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심으로 믿고 일심으로 외우면 효과가 있거든요. 문제는 그것으로 사람을 꼭 옭아매어서 종교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교의 모습입니다. 건전한 종교는 그런 방편을 쓰더라도 사람을 노예로 묶지 않고 보다 자유롭고 큰 세계로 이끌어 주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영험 이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국가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종교의 영험함을 경쟁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지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의 전형이라 할까요? 건강한 삶, 훌륭한 세상을 이루는 것에의 경쟁이 아닌 영험 경쟁! 종교가 절대 피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영험 경쟁에서 도교가 불교에 패하여, 모든 스님들이 도교 도사들의 노예처럼 부려지게 된 상황…. 여기 손오공이 계시된 영웅으로 등장하여 스님들을 해방시키고 불교를 복권시키네요. 그 과정이 참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삼쾌선생이 압축한 글로 때워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기우제 시합이 이루어지고, 결국 불교가 이기는데 도사들이 승복을 안 해요. 그래서 도술 시합으로 이어지는데, 그 도술시합도 손오공의 기막힌 술법에 의해 불교가 압승! 그런데 그 귀결이 매우 비참해요. 호력대선, 녹력대선, 양력대선이라는, 신선으로 불리던 도사들의 정체가 결국 호랑이, 사슴, 양이 술법으로 변신한 요괴라는 것으로 판명나지요. 물론 시합 도중에 죽으면서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름 가마에 들어가기 시합에서, 술법으로 뜨겁지 않게 하던 것을 손오공이 술법을 깨뜨리는 바람에 기름에 삶겨 죽는다는 식으로…. 애고고…. 올바른 종교인이 아닌, 조그만 힘을 얻어 그것으로 혹세무민하던 종교인의 말로를 그린 것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종교인인 척 자신을 뽐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요괴와 같은 본질을 가진 종교인은 없을까요? 얼마 전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었던 그 유명한 종교인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요괴와 같은 종교인에게 홀려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종종 터지는 사교로 말미암은 끔찍한 사건들도 많았구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 가지입니다. 옳은 믿음을 건강한 자세로 믿는 것을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그런 종교적 비극을 일으키는 중심에 줏대 없고 식견 없는 국왕이 있었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네요. 권력과 종교가 유착되면 절대 안 된다는! 지금 여기의 말로 하자면 공직자의 종교 편향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문화재기능인 등록 제 5772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검색 | 보리수불교예술원

불상, 닫집, 수미단, 인등,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연,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내 안에 무지개를 이끌어 내는 칼라,크리스탈 스토리

'꼭 필요한 공부'

운명을 바꾸는 공부	먼저 나의 운기부터 바꾸는 공부 이젠 하셔야 합니다. 남의 운명을 봐주기 전에, 업장의 색깔에 덮혀있는 자신의 빛깔을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색상	진정한 보라색(바이올렛)은 현실 생활도, 수행도 함께 잘한다. ▶정신적 : 블루, 로얄블루 ▶육체적 : 옐로우, 오렌지 ▶핑 크 : 오랜 분노를 삭히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화시켜 돈 문제 해결
내용	몸이 청소가 안되면 (의식공부 = 칼라 공부)를 못 받아 들인다.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식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는 → 지식으로 살았다. 현재에는 → 아님, 가르치는 자가 했던 일을 현재는 인터넷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바다는 너무 믿고 가면 안된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난무하는 시대, 지금은 창의력으로 자신도 가고 상담자에게도... 이젠 동토, 상문, 조상 탓 만이 아닌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한다.
적용	포교원, 사찰, 철학관, 운영에 꼭 필요한 이시대 공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일반인, 누구나, 상사, 동료, 부하직원, 친구와의관계, 부부 자식간의 관계 잘 다루어 가게 됩니다.

※ 특전 : 칼라스토리 공부 외 재미있고 정확한 숫자운세, 관상을 함께 가르쳐 드립니다.

문의 : 010-5658-2657

그 절집의 빛

⑯ 창녕 관룡사 약사전 53불 벽화

아! 53불, 법계우주 나툰 약사여래 서원



〈관약왕약상이보살경〉 53불 소의경전

송광사, 선암사에 53불 탱화 전해져

종이에 그려 원벽화 위에 붙이는 방식

석가모니불 좌우로 홀짝수번 교대배열



① 한 칸 크기의 약사전 내부포벽에 봉안한 53불 벽화. 남아있는 대부분의 진채벽화는 흙벽에 바로 그린 것이 아니라 종이에 그려 원벽화 위에 붙인 것이다.
② 동서 양측면 벽에 각각 4폭씩 그린 민화풍의 화조도를 이으면 영락없는 8폭 병풍이다. 민화가 불교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았다.

1000억의 1000억, 삼천대천세계

가장 최근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쯤이다. 엄청난 밀도의 한 점에서 폭발하여 138년 동안 팽창해온 우주의 크기는 대체로 400억 광년 크기로 추정한다. 광대한 그 우주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 해와 달이 있는 태양계와 같은 세계가 1000억 개 분포해 있는 곳이 우리은하다. 우주에는 우리은하와 같은 별들의 세계가 다시 1000억 개 존재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갠지스강의 모래알 개수만큼 많다. 불교에서는 그토록 광대무변한 세계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라 한다. 삼천대천세계에 가피의 충만함으로 상주하시는 부처님이 '삼천불(三千佛)'이시다. 삼천불은 광대한 공간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개념을 초월한 시방삼세(十方三世)에 편재하시는 분들이다.

그렇다면 삼천불은 어떻게 삼세에 걸쳐 성불하여 편재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천불의 소의경전인 〈관약왕약상이보살경〉에서는 53불을 지극히 예경한 인연공덕으로 삼세에 각각 천불씩 성불하셨다고 밝히고 있다. 즉 대승불교 다불사상(多佛思想)의 대표적인 형태인 천불신앙의 배경에 53불이 모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53불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무수한 부처님을 나투게 하신, 삼천불의 근원이자 불조(佛祖)인 셈이다.

소의경전인 〈관약왕약상이보살경〉에 그 분들의 명호가 나타난다. 1번 나무보광불부터 시작해서, 2번 나무보명불, 3번 나무보정불, ..., 53번 나무일체법상만왕불까지 존명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 경전에서는 53불을 일심으로 예경 올리면 살생, 도둑질 등과 승가에 해를 입히는 악행 등의 사중오역(四重五逆)의 죄도 정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뤄볼 때 53불은 저마다의 내부에 간직하고 있는 불성(佛性)을 밝히는 힘, 곧 자비력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여래출현(如來出現), 혹은 성기(性起)사상과 대단히 밀접하다. 성기(性起)의 '성(性)'은 본래 청정한 본성이자 불성을 이른다.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지만 번뇌망상과 집착에 빠져 마음 속의 본래 여래를 증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53불은 그 불성을 일깨운다.

안동 봉황사 대웅전에도 53불 벽화

53불은 다불신앙의 모태다. 삼천불과 자연스럽게 결합해서 조형으로, 탱화로 조성되어 큰 법당에 봉안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금강산 유점사 능인보전의 느릅나무 53불상 조형이 그러하고, 서울 봉원사, 경주 기림사 삼천불전 등에서 삼천불상을 봉안하고 있다. 53불 탱화로는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에서 전해지는데 두 곳 다 불조전(佛祖殿)에 모시고 있다. 그런데 벽화로 봉안한 53불도 현존하고 있어 감탄과 숭고함을 불러일으킨다. 그것도 두 곳에 현존한다. 한 곳은 안동 봉황사 대웅전 내부포벽이고, 나머지 한 곳은 창녕 관룡사 약사전 내부벽화다. 두 곳에 벽화가 남아 있어 매우 흥미진진하고 의미있는 비교를 할 수 있다.

봉황사 53불은 과거칠불과 함께 내부포벽에 그렸다. 이웃한 짝수 번호끼리, 혹은 홀수 번호끼리 세 분씩 짝을 지어 듬성듬성 배치했다. 공포 한 칸에 세 분씩 배치한 봉안방식이다. 그것은 건축의 형태에 맞춘 미술장엄의 후작업과정을 암시한다. 벽화의 존상도 상대적으로 충분히 큼직하다. 대웅전내의 53불은 법당이 불성으로 가득한 중중무진의 삼천대천세계임을 조형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관룡사 약사전은 1칸짜리 정방형 건물이다. 작은 크기에 맞게 조형장엄이라고는 연화대좌를 갖춘 약사석조여래 한 분 뿐이다. 53불 벽화는 창방 위 사방 흙벽에 그렸다. 불상 뒤인 북쪽벽에 15체, 동쪽 벽면에 10체, 서쪽 벽에 11체, 출입문 안쪽 위인 남쪽 벽에 13체해서, 총 49분을 모셨다. 더 정확하게는 48분이다. 북쪽벽면의 한가운데에 모신 부처님은 석가여래이신 까닭이다. 그렇다고 경전과 달리 48분만 모셨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지워진 흔적도 있으며, 중간에 부처님 명호(名號)만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전 속 22번에 해당하는 '보개조공자재력왕불'은 존상의 그림 없이 명호만 명기해두고 있다. 사방면의 불상 벽화 중에서 서북방향의 6체와 북쪽 벽면의 15체 불상은 진채(眞彩)로 온존해 있지만 나머지는 색채의 박리와 박락으로 벽화의 흔적만 남아있어 안타까움을 갖게 한다.

광배, 수인, 대좌 통일한 53불

53불의 장엄은 대량생산 과정이다 보니 불화제작이나 규격, 배열방식에서 일정한 규격화와 모듈을 갖추게 된다. 효율성과 통일성의 관점에서 행과 열의 규격화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사방 벽면의 배치 길이를 정하고 봉안할 존상의 수가 정해지면 한 부처님의 폭이 산술적으로 결정된다. 폭이 결정되면 원만한 인체비례감에 따라 세로 길이가 정해져 하나의 수치모듈이 결정된다. 기본단위 규격이 정해지면 일사천리다. 더구나 관룡사 약사전의 53불 벽화는 광배, 습의, 수인, 연화대좌 등을 하나로 통일한 까닭에 속도감 있는 대량생산 모듈을 갖추고 있다. 남은 과정은 패턴의 반복이다. 한 분의 존상으로 복제에 가까운 자기 유사성을 반복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닮은 존상의 부처님 어깨에 존명을 밝히는 명호를 써넣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리듬을 갖춘다. 안으로 감춘 내재화된 리듬이다. 홀짝 번호로 서로 좌우로 배대하는 시메트리(symmetry), 대칭기법이다. 대칭의 중심은 불상 바로 뒤 벽면에 그려 모신 석가모니불에 두었다. 왼쪽 어깨에서 시계방향으로 1번 나무보광불, 3번 나무정광불, 5번 마니당불,....의 순으로 봉안하였다. 오른쪽 어깨에서 반시계방향으로는 2번 나무보명불, 4번 다마라발전단향불, 6번 나무전단향불, ...의 순으로 모셨다. 이런 방식은 송광사 국사전에서 16국사 진영을 보조국사를 중심으로 홀짝수 순으로 교대로 배열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곰곰이 살펴보면 특별한 작업도 보인다. 남아있는 진채벽화는 마감한 흙벽에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종이 위에 그려 원벽화 위에 붙인 점 특이하다. 해남 미황사 대웅보전 천불벽화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난다.

그런데 왜 불조전이나 대웅전이 아니고 약사전에 53불을 모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53불의 소의경전인 〈관약왕약상이보살경〉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약왕보살(藥王菩薩), 약상보살(藥上菩薩) 두 분은 과거에 형제였다. 병의 처방과 치료에 능통하신 보살로 약사여래의 협시불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의미적으로 대체하면서 경전 속의 53불을 모셔 약사여래의 서원을 극대화하려한 발원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협시불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인지 임진왜란에도 화를 입지 않고 남은 유일한 건물이 약사전이라 전하고, 또 관룡사에선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소문이 널리 퍼진 것도 그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하니 조형예술과 종교가 상응한 감화라 하겠다. 자그마한 한 칸 짜리 법당 건물에 50여 부처님들의 만다라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농밀한 신심의 발현임엔 분명하다.

동서 양 측면에 민화 화조도 경영

약사전은 한 칸 건축이라 입체적 조형장엄방식은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 벽면을 이용한 평면적 벽화 장엄방식에 역량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창방 아래 내부벽 전면에 베푼 화조도는 특히 인상적이다. 조선후기 민화(民畵)의 흐름이 불교영역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은 형국이 여실히 드러나는 단면들이다. 출입 창호 면을 제외한 세 벽면마다 각각 4등분하여 각 면에 네 폭의 화조도를 경영했다. 북쪽면의 벽화는 단조로운 묵매의 거친 붓질이지만, 기운생동의 힘이 있어 야성과 고색의 매력을 남겨두고 있다. 동서로 펼친 여덟 폭의 화조도는 두텁고 깊은 색채운영, 필력이 밴 매끄러운 묘사력, 품위와 격식을 갖춘 중후함을 두루 소화해냈다. 절집 벽화로 만나는 화조도 치고는 돋보이는 작품이다. 매난국죽의 익숙한 사군자나 모란, 연꽃 등에 나비, 학, 물총새 등을 짝맞췄다. 무엇보다도 생명력이 충만한 화엄세계를 사실주의적으로 표현해서 눈맛이 시원하고 친밀해서 좋다. 대중의 요구에 눈높이를 맞추고 시대정신을 읽어가는 절집의 열린 마음을 본다. 포벽의 53불 부처님의 자비력과 무위의 자연이 두 개의 중층적 평행우주의 형국이다. 53불은 삼천불이니 삼천대천세계에 자비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한 칸의 작은 집에 불신보변시방중(佛身普遍十方中)의 법계우주를 태연히 들였다.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신 약사여래의 작은 집, 유마의 방이 삶의 가까이에 있었구나. 저 절집의 빛, 청산처럼 세세생생 푸르고 또 푸르라.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영가옷 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 B형-여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예수재함B (50개 1박스)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70원 / @27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30,000원(100벌)
할인가 @270원(1000벌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동남영가옷 정가 900원 동녀영가옷


종이신발(남/여)
정가 1,500원 할인가 1,300원 〈100개이상〉


종이짚신 1켤레
정 가 600원
할인가 500원
〈300켤레이상〉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자연·佛法·인간은 '如一'… 지혜의 언어로 말하다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① 중국 소동파 詩選

소동파(1036~1101)는 대표작 〈적벽부(赤壁賦)〉로 널리 알려진 중국의 시인이다. 당대의 시들이 서정시 일변도인데 비해 그의 시는 철학성이 깊어 새로운 시의 경지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그의 시 2700여 편 중 많은 시편들이 서정시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지만, 후기에 들어 시의 간명성으로 태공선객(太空禪客)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즉 참선수행의 소산인 선시(禪詩)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가능해진 것이다.

소동파는 28세에 왕팽거사를 만나 불법을 접하게 된다. 그 후 20년 쯤 지난 47세에 선리(禪理)에 눈을 뜨고 개오(開悟)하게 된다. 이 시기가 황주로 유배를 간 시기(45세~49세)이다. 소동파는 삶의 20년간을 유배살이를 했다. 이를 통해 그는 큰 깨달음을 지닌 선사들로부터 선(禪)의 이치를 배우게 된다. 황주 유배 생활이 끝나는 49세 때 여산 호계(廬山虎溪)의 폭포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오도송이 '동림계성(東林溪聲)'이다.

계성변시광장설(溪聲便是廣長說)
계곡물소리는 부처님의 긴 설법이며
산색기비정정신(山色豈非情淨身)
어찌 산색은 청정광명의 법신이 아니겠는가
야래팔만사천게(夜來八萬四千偈)
밤에 팔만사천 게송이 들어오니
타일여하거사인(他日如何擧似人)
다른 날, 어떻게 들어 보일 것인가

-소동파의 7언 절구 '동림계성(東林溪聲)' 전문

오도송이나 게송인 선시를 해석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풀이함으로써 오히려 그 '선미(禪味)'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어는 언어 이전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본질 그 자체의 언어이기 때문에 군말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선시를 불교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특별한 선시의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7언 절구 '동림계성(東林溪聲)'의 첫 구에서 소동파는 여산호계(廬山虎溪)의 폭포소리를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설법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산의 색깔, 빛으로 인식하며, 2구에서 자연의 청결한 모습으로 인식한다. 또한 3구에서는 낮이 아닌 밤에 게송의 언어로 큰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시인의 마음을 표출하며, 그리고 다른 날 즉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올 중생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들려줄 것인가를 고뇌한다. 이것이 이 시를 조야하게나마 살펴 본 내용이다.

이 선시에서 소동파는 깨달음의 언어를 계곡물소리로 표상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의 빛과 색깔로 인식한다. 그것은 이 시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친화적 상상력의 소산으로 자연과 불법과 인간이 여일(如一)하다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나아가서는 만물의 불성이 있음을 깨닫고 있는 지혜의 언어이다.

앞에서 말한 바대로 소동파는 중년에 들어 황주에 유배되어 삶의 본체를 천착하게 된다. 그 때의 그의 생각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가 〈지미(知迷)〉이다. 이 선시는 인간의 미혹함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시이다. 이 시는 5언 율시로 소동파가 유배 중인 47세에 쓴 시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지난 삶의 회한으로 고뇌하던 시대에 쓴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중년첨문도(中年 忝聞道)
중년에 들어 그때서야 불도를 듣게 되어
몽환강이상(夢幻講已祥)
이미 칠정몽환설을 자세하게 들었으나
저약여구산(儲藥如丘山)
(치료)약을 선더미처럼 쌓아 놓고
임병갱구방(臨病更求方)
병이 들면 다시 처방을 구한다
잉장은애인(仍將恩愛刃)
잉장은애인(仍將恩愛刃)
장차 은혜와 사랑의 칼로
할차쇠노장(割此衰老腸)
이 노쇠한 창자를 자르고 있구나
지미욕자반(知迷欲自反)
미혹 벗어나고자 한 마음 이런 줄 알겠으나
일통송여상(一慟送餘傷)
크게 한바탕 울고, 묵은 상처 보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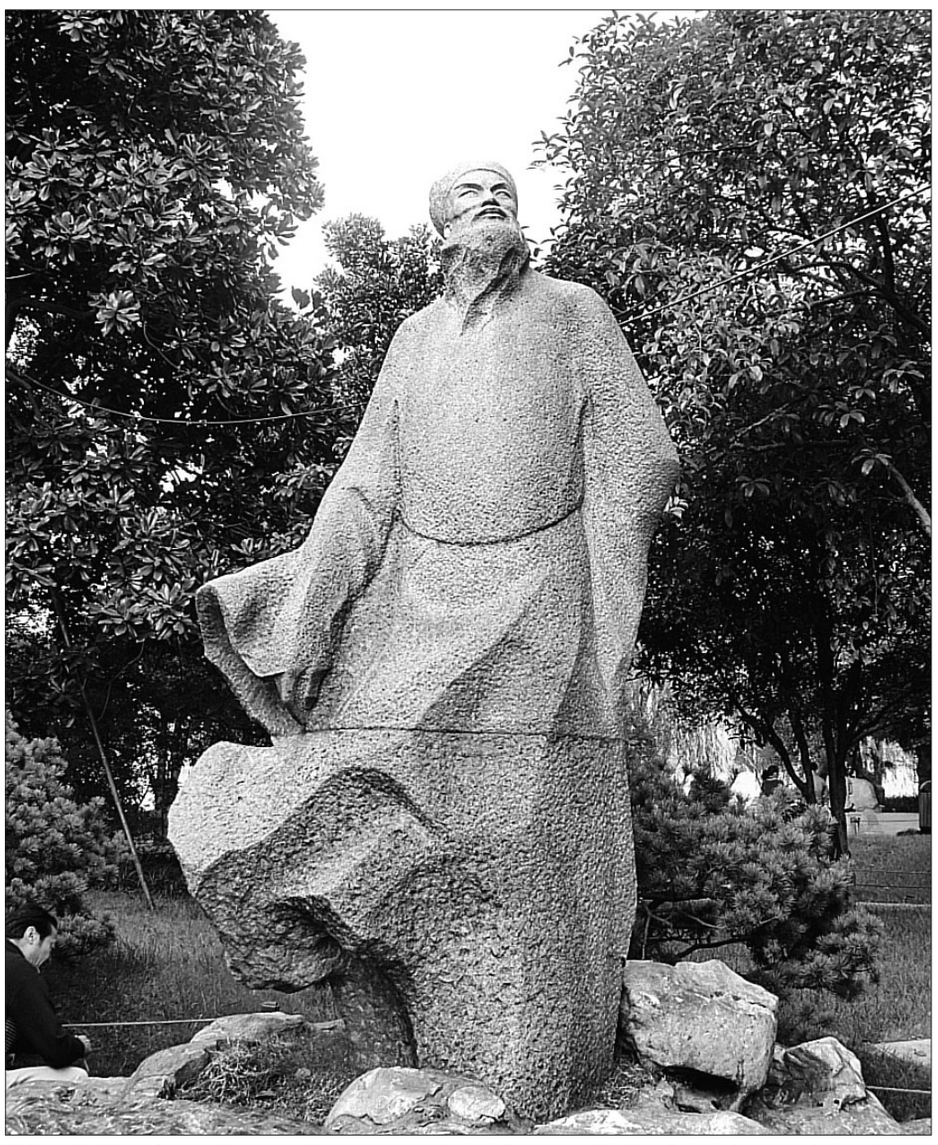
-소동파의 5언 율시 '지미(知迷)' 전문

소동파의 5언 율시인 위의 '지미(知迷)'에서는 우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몽환 같은 '칠정(七情)'을 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칠정은 희(喜), 노(怒), 우(憂), 사(思), 비(悲), 경(驚), 공(恐)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고유한 마음이다. 그러나 이 칠정은 인간의 마음에 병이 된다. 이를 인식하고 치료해야 하는데,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을 곁에 쌓아놓고도 병이 들면 처방을 찾게 된다. 이 시는 이러한 인간의 습(習)을 환기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진솔하게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칠정으로 인한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고 한바탕 통곡하고 그 칠정의 마음을 비워내야 한다는 지혜의 언어를 소동파는 이 시에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5,6구인 "잉장은애인(仍將恩愛刃, 장차 은혜와 사랑의 칼로), / 할차쇠노장(割此衰老腸, 이 노쇠한 창자를 자르고 있구나)"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독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은애인(恩愛刃)'과 '쇠노장(衰老腸)'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은혜와 사랑'은 인간의 칠정에서 비롯된 정서일 수도 있고, 그와는 다르게 불교의 자비(慈悲)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칼이라는 의미의 인(刃)을 붙임으로 해서 은혜와 사랑이라는 마음이, 칼이라는 방편이 될 수 있음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혜와 사랑'은 한낱 불교적 방편인 셈이다.

또한 그 칼로 자신이 '노쇠한 창자'를 자르고 있다는 것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쇠한 창자'는 병(病)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의 미혹(迷惑)을 표상한다. 그렇다고 할 때, 은혜와 사랑=자비는 미혹의 마음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이 '칼'처럼 남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될 때, 노쇠한 창자는 더욱 깊어지는 병이 될 것이다. 은혜와 사랑이라는 인간의 정서는 선적(禪的) 차원에서는 끊어내야 할 미망(迷妄)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동파의 선시 '지미(知迷)'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시는 그 시어들이 표상하고 있는 의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점을 어쩌면 소동파는 시인으로서 알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연구한 소동파는 시인이이기도 하지만 선객(禪客)이다. 선 수행을 통한 게송을 하는 선승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시가 '동파비장성(東坡枇杖聲)'과 '무하유(無何有)'다.



중국 항주 공원에 있는 소동파상. 소동파는 송시의 성격을 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장가였고 중국문학사상 처음으로 호방사(豪放詞)를 개척한 호방파의 대표 사인(詞人)이었다. 그는 또 북송사대가로 손꼽히는 유명 서예가이기도 했고 문호주죽파(文湖州竹派)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중국 문인화풍을 확립한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다.

생애 20년을 유배지서 보내며
불교 禪의 이치 배우고 깨달아
후기 시조 가면서 '禪味' 고취
5언율시 '지미'선 칠정 비워냄을
'동림계성'엔 만물 불성의 開悟가
새로운 시문학 지평 연 선각자

우세동파월색청(雨洗東坡月色淸)
비에 씻긴 동파, 달빛 맑고 맑으니
시인행진야인행(市人行盡野人行)
도시 사람 다 떠나고 야인만 다니는 게 보이네
막염락학파두로(莫厭犖 确破頭路)
언덕 싫어 않고 얼룩소 자갈길 개간하며
자애경연비장성(自愛鏡硏枇杖聲)
비파나무지팡이 끄는 소리 비추어 스스로 좋아하노라

-소동파의 7언 절구 '동파비장성(東坡枇杖聲)' 전문

위의 절구에서의 '동파'는 시적 자아인 시인 자신을 의미한다. 빗물에 씻은 시적 자아를 1구에서는 '월색청(月色淸)' 즉 맑은 달빛으로 은유한다. 자연과 하나가 된 시인. 그 시인과 자연과 함께 사는 자연인만이 남고, 도시 사람은 떠나간 마을. 그 마을은 적요하다. 그 마을은 맑은 달빛만 내려앉은 마을이다. 그 마을은 언덕길 까지도 얼룩소와 함께 개간한 적막하나 평화로운 마을이다. 그곳을 시인은 좋아한다. 비파나무로 만든 지팡이 끄는 소리까지도 시인은 사랑한다. 이것이 '동파비장성(東坡枇杖聲)'이다. 지팡이 소리를 소동파는 선승의 법문 시, 내지르는 할(喝)로, 선원에서 학인(學人)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그 소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파나무 지팡이 소리는 깨달음의 소리인 것이다.

문아하처래(問我河處來)
어느 곳에서 왔냐고 물으면
이래무하유(我來無何有)
나는 무하유에서 왔다고 말하리
훈풍자남래(薰風自南來)
훈풍이 남쪽에서 스스로 불어오니
초당생미량(艸堂生微凉)
처마 끝에 미미한 서늘함이 생겨나네

-소동파의 5언 절구 '무하유(無何有)' 전문

무하유(無何有)는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이라는 말로 "아무 것도 없는 곳", "어떤 것도 없는 곳"이란 의미이다. 이 말은 〈장자(莊子)〉에 나오는 말로 선악과 시비와 경계가 없는 곳으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며 진심(眞心, 참마음)이 있는 본래의 그 자리를 의미한다. 누군가가 시인 자신에게 "어느 곳에서 왔는가"를 물으면 "무하유(無何有)"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남쪽에 훈풍이 불어오면 처마 끝에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녹아, 견딜만한 서늘함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처럼, 그 계절의 모습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노래이다.

불교의 마음은 걸림이 없는 마음이다. 7언 절구 '산중고승(山中高僧)'의 초연한 노승처럼, 객이 돌아간 "차담(茶啖) 파한 자리"에 '검귤과 양매(楊梅)의 신맛'만이 남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노승의 책상 위에 〈능엄경〉을 보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이 불교의 마음이다.

소동파의 사상은 유가(儒家)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그는 도가사상과 불가사상에 심취하여 폭넓은 사상과 다양한 작품을 보여준 시인이다. 사상의 도구로써의 시가(詩歌)가 아닌 자연스럽게 사상을 수용한 시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말년에 불교시가로서의 선시풍(禪詩風)이 다분한 몇 편의 절구와 율시를 우리는 탐색해보았다. 이를 통해서 선비 시객(詩客)으로서 문학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불교적 모티프를 자신의 시속에 자연스럽게 스미게 해서, 선시의 새로운 문학지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소동파의 시를 다시 읽게 된다.



유한근
문학평론가 · 디지털서울문예대 교수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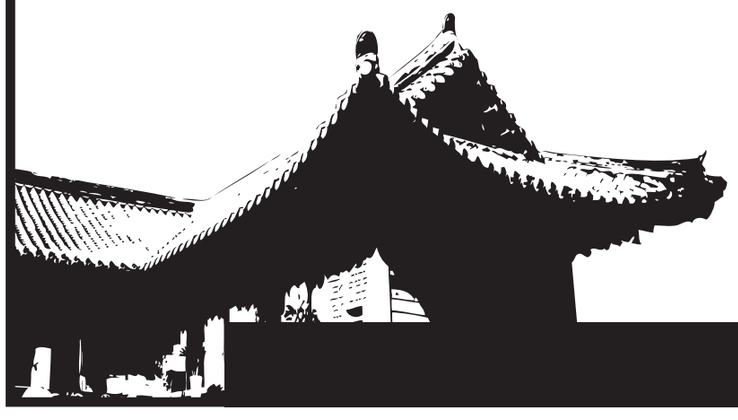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니까야서 길을 묻다 사띠(念) ③

사띠는 자동차 엔진이다

초기불교 명상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두 축은 '그침/몰입' 유형의 명상(사마타)과 '살펴봄/이해' 유형의 명상(위빠사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니까야〉와 〈아함경〉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명상들이 등장할 때면, 어느 한쪽에 속하는 명상 수행을 설명하거나 닦을 것을 안내하는 서술 형태가 많이 보인다. 한편으로는 한역에서 지관(止觀)으로 부르는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처음부터 짝을 이루어 '그침/몰입' 유형과 '살펴봄/이해' 유형의 명상을 동시에 강조하는 형태도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방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띠(sati)'가 이들 명상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설정은 사띠의 힘을 토대로 택해야겠지만, 진행 자체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엔진의 존재가 토대가 될 것이다. 또 차체, 바퀴, 거울, 전등 등 어느 하나라도 쓰임새가 없는 것은 아닐 테지만 엔진의 존재감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사띠 명상이 사마타/위빠사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타나게 될 때의 사띠의 의미와 역할은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띠가 갖가지 명상법과 연관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나타날 때의 의미에는 '그침/몰입/알아차림/살펴봄'이 그때그때 최적화의 상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힘'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다. 기존의 번역어 중에서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말은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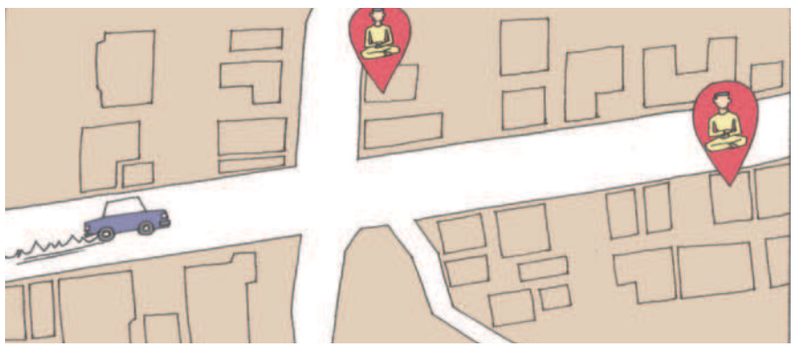


그림 · 나은영

'그침/몰입' 유형에 속하는 명상의 길을 택하거나 '살펴봄/이해' 유형에 속하는 명상의 길을 지향해가는 하나의 구조화 · 체계화로써 불교명상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사띠를 일으켜 그 힘을 '그침/몰입'의 명상을 전개하는 데 쓰거나, '살펴봄/이해'의 명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데 쓴다는 구도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띠의 힘이 '그침/몰입' 또는 '살펴봄/이해' 중의 어느 한쪽을 지향함으로써 특정한 하나의 명상법이 구체화되는 구조에서 바로 사띠의 세 번째 의미가 드러난다. 즉, 사마타/위빠사나의 토대로써의 기능과 역할이 바로 '사띠'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사띠가 하나의 발전기로써 '그침/몰입' 또는 '살펴봄/이해'의 명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승용차를 운전할 때를 비유로 들어보자. 목적지와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차는 이런 저런 경로를 따라 진행과 멈춤을 반복하며 목적지로 향할 것이다. 여기서 어떤 길로 가야 바람직한가는 목적지와 운전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길을 선

깊음'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즉, '주의 깊음'의 안정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여 사마타적인 명상인 '그침/몰입'을 지향하거나, 위빠사나적 명상인 '알아차림/살펴봄'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띠의 위상과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 당대에서부터 불교해석의 시대인 아비달마에 이르기까지 명상 실천가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갖가지 명상법을 불교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도 땅에는 이미 '요가'라는 대단히 체계화된 명상의 방법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 명상법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것이다.

사띠의 세 번째 의미를 '주의 깊음'으로 이해하는 독법에는 사마타/위빠사나를 최적화시키는 '힘 또는 발휘'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주의 깊음'의 운용은 '사마타/위빠사나' 명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정 수행법의 '지속적인 챙김'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도 보이기 때문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10년 넘은 한가족 공동체…



경남 거창 남하면에 위치한 '행복한마을'에는 사부대중이 공동체를 이뤄 함께 살아간다. 2006년 설립된 행복한절을 중심으로 현재 20명이 마을에서 함께 생활한다. 행복한마을 대중들은 수행 뿐 아니라 기업을 공동운영해 자급자족을 실천한다. 또한 승가복지와 삼보수호를 위해 불사를 진행중이며, 만클릭운동을 통한 나눔 활동도 진행한다.

道伴의 향기

경남 거창 남하면 '행복한마을' 사부대중공동체

최근 불교계 안팎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사부대중'이다. 사부대중은 사전적으론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불법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의미한다.

경남 거창 남하면에는 '행복한 절'(주지 은산)을 가운데 두고 사부대중이 모여사는 한 마을이 있다. 바로 '행복한 마을'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대중심(大衆心)'에서 찾는다. '대중심'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이다. 그들은 '대중심'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항상 풍족하다고 했다. 그들은 현재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불교의 이상향, 도솔천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이들의 행복은 무엇일까. 이들이 지닌 꿈과 행복을 7월 9일 '행복한 마을'에서 들어보았다.

다양한 인연에도 공동체 삶 추구

행복한마을 주민인 서현주(도앙 · 31)씨는 3년 전 휴가를 겸해 방문한 행복한마을에 그대로 정착하게 됐다. 베트남 지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서 씨는 한국본사로 복귀하게 됐고, 추석을 맞아 한 달간 휴가를 얻었다.

"명절을 맞아 '나랑명상센터' 은산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나랑명상센터'는 행복한 절 부산 포교원입니다. 본가가 부산이어서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방문했죠. 나랑명상센터에서 강의를 듣고 마음이 들뜨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해답을 찾았다는 느낌이였습니다."

서 씨는 당시 자신의 삶은 남들이 보았을 때 성공의 길이었지만 스스로에게는 공허하기만 했다고 했다. 사부대중의 삶을 듣고 서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결심을 했다. 주변 친구들의 만류와 가족들의 걱정에도 서 씨가 향한 곳은 '행복한 마을'이었다.

이곳에서 서 씨가 알게 된 것은 '책임'이었다. 사부대중의 삶은 개인을 위해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고 개개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다.

"사부대중은 서로를 온전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내어줍니다. 부처님의 법 안에서 참된 대중의 삶을 실천하는 이곳이 제 인생의 답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마을'은 무보수, 무소유를 전제로 한다. 또한 삶과 수행이 일치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복한마을 서미례(도여 · 49) 사무국장은 자신의 일화를 소개했다. 서 국장은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왔다.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간호사와 감염관리실 과장 등을 맡는 등 사회에서 직장여성으로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는 높아져만 갔다. 이로 인해 치솟는 분노를 절제하는 것이 그녀의 화두였다. 10년 전 그녀는 이 화두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행복한절을 찾았다.

"은산 스님께서는 법문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조사만 빼고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마음의 가시 같았던 분노도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예 직장도 관두고 오게 됐습니다."

서 국장은 10년 간 행복한마을 공동체 삶에 대해 '대중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녀는 행복한마을의 사부대중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은산 스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마음이 돼라'고 강조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마음을 갖자는 것이죠. 저와 상대방이 서로로 인해 안심을 할 수 있는 곳, 저는 제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놓일 곳을 찾았어요."

그녀는 사부대중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끊임없이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중을 이루기 위해선 전제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대중과 함께 해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지요."

22세에 행복한 마을에 온 김윤신(도근 · 30)씨,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녀를 홀로 키워온 정미자(도휴 · 56)씨 등 행복한마을에는 각기 다른 사연을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각자의 사연에도 이들이 한데 모인 이유는 하나였다. 공동체에서 삶의 참

경허선사의 사상과 선풍을 만나다!



경허선사의 출생년, 법제자, 법맥 등을 바로 정리!

선사가 남긴 글들을 총망라하여 원문과 우리말 번역은 물론, 740여 개의 상세한 각주를 달았다.

鏡虛禪師語錄

경허선사어록

기존 어록집들을 비교 정리하고, 현장답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경허선사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진 것들은 버리고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은 첨부하여 철저히 자료에 근거한 어록집으로 새롭게 엮었다.

무이 거부 역 / 신국판 양장 / 544쪽 / 값 27,000원 / 무이정사

광대한 불법의 바다를 안내하는 나침반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지? 스님은 뭐하는 분이고, 절은 어떤 곳일까?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불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한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처음 만나는 불교 1~3



박이오 저
국판변형 케이스
전3권 / 값 29,000원

1 청년 붓다, 대자유의 길을 찾아 떠나다



2 스님, 한 마음 밝혀 온 세상 비추네



3 절, 몸과 마음을 내려놓다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大衆心은 행복의 열쇠”



2008년 12월 진행된 제4기 행복한 불교대학 수료식. 자체 불교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행복한 마을은 자체 생산품을 다양한 복지시설에 전달한다. 사진은 2015년 3월 에스더의 집 후원 모습.



2013년 10월 진행된 행복한 마을 제로 콘서트 장면.


행복한 마을 오후 일과로는 참선과 경전공부 등이 진행된다. 참선법회 모습이다.

된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철저한 수행, 나눔 활동도 활발

행복한마을의 하루는 오전 4시 40분 수행 정진으로 시작된다. 오전 5시, 대중들은 어김없이 사경을 한다. 1시간가량의 사경 수행이 끝나면 법당 청소 등 울력과 공양이 진행되고, 오전 8시까지 경전 공부가 진행된다. 이후 각자 소임에 맞춰 일과를 보낸 후 저녁에는 참선, 경전 공부, 불교 강좌, 합창단 활동 등이 이어진다.

수행을 기반으로 행복한마을 대중들은 나눔 활동도 빠지지 않고 실천한다. 행복한마을에서는 한 달에 한번 ‘만클릭’ 후원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만클릭’ 프로젝트는 한 달에 만원 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쪽방촌, 고성 보리수동산, 대전교도소 등 국내 소외계층 돕기와 아프리카 기아, 북한 어린이 등 해외돕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11일에는 100회를 맞아 합천 해인사 흥류동 계곡에서 행복한마을 대중과 만클릭 기부 동참자들이 함께 모여 만클릭 100회를 축하하기도 했다.

채식음식점 등 사업체 운영해 자급자족

행복한마을의 또 다른 특징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해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가장 높은 공동체 결합은 무소유 공동체”라며 “다른 말로 공동소유 공동체이기에 공동노동, 공동주거, 무보수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행복한마을은 채식음식점 ‘베지나랑’을 거창과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천연염색업체 나랑, 나랑명상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마을은 문화활동도 벌여 해피코러스 합창단을 창립하고 제로 콘서트, 송년 음악회 등도 진행해왔다.

신여리 씨는 “처음 행복한 절을 찾았을 때 음악, 차, 향 까지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수행을 딱딱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까지 곁들이니 정말 행복하다”며 “은산 스님은 모든 사물과 제품에도 마음이 표현된다고 하신다. 도반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를 사회에 회향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승려복지 담보할 불사 발원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행복한절은 행복한 마을 조성을 위한 불사 계획도 발표한 상태다. 먼저 9월 승려 복지를 위한 ‘심검당(尋劍堂)’과 불자들을 위한 ‘휴심정(休心庭)’이 거창 행복한마을에 첫 삽을 뜬다. ‘심검당’은 스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노스님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회향된다. ‘휴심정’은 입주자 모연으로 건립되며 이미 입주신청이 완료됐다. 앞으로 부산, 대전, 미국 볼티모어에도 지어질 예정이다.

무소유 · 무보수 공동체 ‘눈길’
천연염색 · 채식당 운영, 자급자족
불교 수행 · 공부 생활화 이뤄
노스님 모시는 승려복지 불사 추진

서미례 국장은 불사의 내용을 설명하며 행복한 마을 설립 취지가 이곳에 담겨 있다고 했다.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함께 살며 스님들은 수행하고 법을 전합니다. 불자들은 삼보에 귀의하고 삼보를 옹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노스님은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포교사나 재가불자가 도우미로 시봉하지요. 함께 일하고 함께 수행하며 함께 공양하는 삶과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불사 후 가족과 함께 입주 할 강명옥(도승 · 46) 씨는 행복한 마을에서 불교를 공부하며 가족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털어놨다. 강 씨는 무엇보다 이곳에 들어 올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스승과 도반 그리고 절’이 있어서라고 했다.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서로를 지켜주며 죽음의 순간 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이곳에는 있습니다.”

행복한마을은 지난 7월 9일 10주년 기념으로 북콘서트 ‘마음의 소리’를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는 주지 은산 스님의 책 〈아침의 소리〉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기도 했다. 매일 아침마다 은산 스님이 인연 있는 불자들에게 보낸 불음(佛音)을 모은 책이다. 이 자리에서 은산 스님은 대중에게 행복의 비결을 설명했다.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행복한 절에 오시면 볼 수 있는 문구가 ‘내려놓으시오’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원인은 대상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괴로운 이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존재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서로를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마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가치를 내려놓았다. 집착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만난 것이 사부대중이다. 하나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나가 되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곳, 그곳이 바로 행복한 마을이다.

부처님은 승가 뿐 아니라 ‘선남자와 선여인들’이라며 사부대중에게 법을 전하셨다.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승가와 재가가 함께 살아가는 곳, 행복한 마을이 온 세상 곳곳에 세워지길 발원한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전법일기

한 예술가의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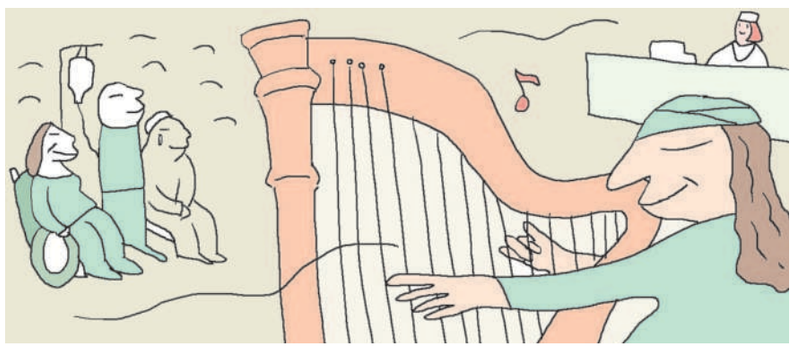
어느 날 조용히 병원법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자신을 한 환자의 언니라고 소개했다.

“스님, 제 여동생이 말기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기도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렇군요. 얼른 가십시다.”

병실에서 결코 멀지 않은 법당이지만 언니가 이곳을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나는 주저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언니와 함께 병실을 찾아갔다. 언니의 안내를 따라 병실에 들어가니 침상에 누워있던 여동생은 스님이 왔다는 소리에 몸을 일으켜 합장했다.

“스님, 안녕하세요.”


그림 · 박구원

“몸도 편치 않은데 누워 계세요. 마음만 받을게요.”

간단히 쾌유기도를 하고 그녀와 담소를 나눴다. 말기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50세였다. 미혼이었고 무척 동안이었다. 오랜 병원생활로 충분히 지칠 법도 한데 그녀는 한 번의 찡그림도 없이 맑은 미소로 대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 병실을 방문한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화를 마치고 언니에게 몇 가지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녀는 2000년 3월 직장암 선고를 받았다. 어려운 곳에 매월 후원금을 보내고, 이웃의 고통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등 평소 나눔을 몸소 실천해온 그녀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특히 크로마하프와 기타 연주의 달인이었고, 오카리나와 가야금, 장구에도 능한 예술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언변 또한 뛰어나 사회를 도맡아 보기도 했다. 회사에서도 뛰어난 능력으로 늘 모범을 보였던 그녀였기에 충격은 더했으리라.

한동안 방황하던 그녀는 어느 날, 병마와 싸우지 않고 화해하는 길을 택했다고 한다. 다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무너질 수는 없었단다. 그녀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찾아가 화해하고 마음을 다독여줬다. 그리고는 언니에게 “죽어서 돈 욕심 없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가 있던 바로 그날, 그녀는 운명의 기로에 섰다. 나는 병실을 방문해 기도를 했지만 저녁에 제사가 있어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다. 결국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언니의 문자를 받았다.

‘스님! 우리 미열이 지금 아미타부처님 곁으로 갔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마음 깊이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했다. 퇴직금으로 병원비와 장례비까지 다 마련해둔 그녀는 조의금을 받지 말 것과 영안실 · 무덤가에서 노래를 불러줄 것, (사)푸른우포사람들 사무실 증축을 위해 100만원을 전해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장례기간 그녀의 빈소에는 애도의 소리 대신 잔잔한 하프 연주가 이어졌다.

세월이 몇 해 지나고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면서 불현듯 고인이 떠올랐다.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생전에 임종기도를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점 때문이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환자가 상심할까 걱정돼 쾌도기유만 올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떠날 때가 언제인지 알았고, 모든 것은 아쉬움이 남을 때 떠나야 한다며 담담히 가족들 품에서 임종했다.

말기암 환자 중 3~40%는 자신의 상황을 모른 채 임종한다고 한다. 사실을 알리는 걸 가족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삶을 되돌아 볼 시간이 필요하다.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 가는 길, 우리 모두 도와야 하지 않을까.



무관 스님(서울 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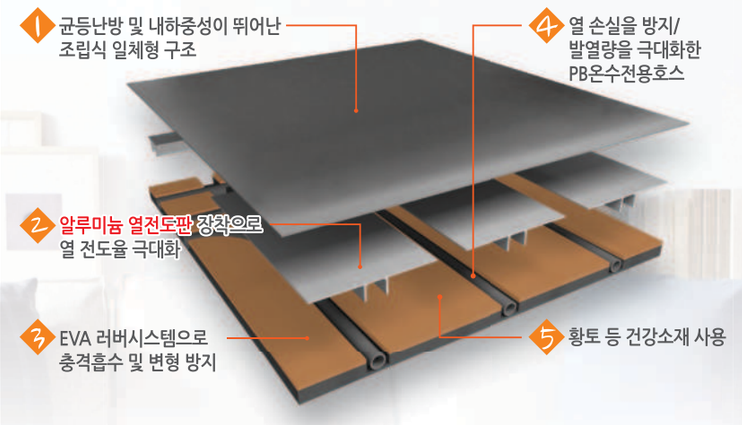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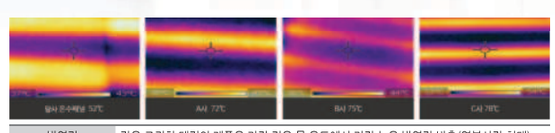
뜨시고 따시고
스님, 불자님
이제 연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조달청등록기업
MBC, KBS 방송광고제품
난방비 50% 이상 절감 / 반영구적 수명
내하중성 최고 / 전자파 ZERO


태경에너지 홍보이사 / 배우 이동준



01 황토발포단열 EVA 사용
02 업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56%,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03 알루미늄을 이용한 방열식 온수난방패널 (특허 10-1386923호)
04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05 난방비 50% 이상 절감 (45℃ 이하의 저온수 난방 제품)

열과 하중에 강한 태경에너지 온수난방패널 핵심기술
열을 넓게 퍼트리는 3면 알루미늄
발열량을 높이는 PB온수전용호스
원적외선 방출 및 항균효과가 있는 황토EVA



금새 따뜻해지는 놀라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 제품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태경에너지 TAEKYUNG 온수온돌판넬 전문기업
대리점 및 제품구입문의 1833-8404 www.태경에너지.kr
가스, 전기, 기름보일러 등 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

'止觀'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이 제시하는 수행문 오문(五門) 가운데 지관문의 설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지(止)와 관(觀)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지(止)는 일체 경계를 그쳐 쉬는 것이다. 사마타관(奢摩他觀)을 따르는 것이다. 관(觀)은 인연생멸상(因緣生滅相)을 분별하는 것이다. 비발사나관(毘鉢舍那觀)을 따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점점 닦아 익혀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면 둘 다 함께 나타나게 된다."

마음의 산란함을 막고 맑고 고요함에 안주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계를 쉬어야 한다. 경계를 쉰다는 것은 객관경계를 두고 그릇된 대상의 설정을 멈춘다는 의미이다. 범어 'samatha'를 번역하여 지(止)라 한다. 바람이 그치면 파도가 멈추는 것처럼 경계의 반연이 끊어지는 것이 사마타다.

관(觀)이란 인연으로 생멸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 했는데 일체 사물에 대한 고요한 관찰이다. 번뇌를 야기하는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은 결국 분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므로 지혜로써 그와 같은 바깥 경계의 다양한 번뇌의 모습들을 소멸해버리면 번뇌의 모습들이 없어지고 분별하는 대상이 없어지게 된다. 곧 무분별이 되므로 지(止)라 하는 것이며, 생멸문에 의해서 사물의

경계를 떠나 그릇됨을 끊고
번뇌 소멸해 분별심 없애야

모습들을 관찰하므로 분별생멸상이라 하여 이를 관(觀)이라고 한다 했다. 범어인 'vipasyana'를 비발사나(毘鉢舍那)로 음사해 표기했는데 이것은 생멸문 쪽에서 후득지(後得智)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 지관의 설명이 진여문과 생멸문의 두 문에서 지(止)는 진여문에서 이루어지고 관(觀)은 생멸문에서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다. 진여문에서 모든 경계의 상을 그쳐 분별하는 바가 없는 무분별지(無分別智)가 이루어진다. 흔히 말하는 진로(塵勞)의 경계는 분별을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다. 진로를 분쇄해버리기 위해서는 분별이 멈추어야 한다.

원효는 소(疏)에서 〈유가론〉의 말을 인용 지(止)와 관(觀)을 설명한다.

"외계의 사물은 모두 번뇌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분별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번뇌를 야기하는 외계의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분별의 없는 무분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분별이 없는 상태를 지(止)라 하는 것이다. 보살들은 제법에 있어서 분별하는 바가 없다. 이것이 지(止)인 줄 알아야 한다. 또 이 세상 모든 사물이 지니는 본질적인 의미, 무한히 깊은 이치에 대한 세속적인 뛰어난 지혜를 관(觀)이라 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

원효의 해동소에서는 기신론 본문의 지관(止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가한다.

"사마타를 번역해 지(止)라 하고 비파사나를 번역해 관(觀)이라 했으나 이는 기신론의 번역자가 지와 관을, 전자는 특수한 방편의 뜻을 나타내고 관은 정관(正觀)으로 본 까닭에 정관에 사마타 비파사나의 뜻을 같이 붙인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말이 같이 붙은 것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하나는 지관(止觀) 하나는 관관(觀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와 관이 본질적으로는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원효는 이어서 말하기를 "상황에 따라서, 곧 나타난 성격상으로 말하면 선정(禪定)을 지(止)라 하고 반야(般若)를 관(觀)이라 하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하면 정(定)이나 혜(慧)가 다 지관(止觀)에 통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지관의 수행법을 후대 선수행법이 발달되고는 정혜(定慧)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기신론에서 지관을 같이 닦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후대에 말한 정혜쌍수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

원효는 지관의 기술적인 면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서 〈유가론〉 '성문지(聲聞地)'에 나오는 아홉 가지 심주(心住)와 네 가지 비파사나를 들어 기신론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심주(心住)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산란하지 않은 마음을 말한다. 지(止), 곧 선정을 방해하는 것을 선수행에서 혼침(昏沈)과 산란(散亂)이라 말해 왔듯이 기신론에서 말하는 지관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란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 방편을 구주(九住) 사관(四觀)을 인용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승불교는 곧 '보살이 되는 삶'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㉙ 보시바라밀이 만족됐을 때는

檀波羅蜜滿足之時知功德滿足。 c 貪者見乞者時則背其面。修功德者見乞者時歡喜瞻視親近。乞者則得。菩薩施時見受施者展轉相施便生歡喜。一切眾生讚歎歡喜。菩薩聞其讚歎心大歡悅勝得解脫之樂。菩薩悲心施時。見一切眾生多得財寶充足快樂。諸眾生等得快樂已。而發願言。我當久處生死修諸功德不求解脫。菩薩ㅡ 見眾生能久處生死心大歡喜。我今便為得現果報。設當不得菩提亦為具足。(단바라밀만족지시지공덕만족。간탐자견걸자시즉배기면。수공덕자견걸자시환희첨시친근。걸자즉득。보살시시견수시자전전상시변생환희。일체중생찬탄환희。보살문기찬탄심대환열승득해탈지락。보살비심시시。견일체중생 다득재보충족쾌락。제중생등득쾌락이。이발원언° 아당구처생사수제공덕불구해탈。보살기견중생능구처생사심대환희。아금변위득현과보。설당부득보리역위구족。)

번역

보시바라밀이 만족하게 됐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공덕도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색하고 탐하는 이는 구걸하는 이를 봤을 때 곧 그 얼굴을 돌리지만, 공덕을 닦은 이는 구걸하는 이를 봤을 때 기뻐하며 친근하게 바라보나니, 구걸하는 이가 곧 얻게 됩니다. 보살이 보시할 때 보시를 받는 이를 보면 더더욱 상대에게 베풀고 문득 기쁨을 일으키나니, 일체 중생들이 찬탄하며 기뻐합니다. 보살이 그 찬탄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크게 기쁜데 해탈의 즐거움보다 뛰어납니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보시할 때, 일체 중생이 많은 재물을 얻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생들이 동등하게 즐거움을 얻도록 서원하기를, "내가 응당 오랫동안 생사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공덕을 닦되 해탈을 구하지 않으리라" 합니다. 보살은 기왕에 중생들과 능히 오랫동안 생사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에 큰 기쁨을 보이나니, "내가 지금 문득 현실에서 과보를 얻고, 설사 보리를 얻지 못할지라도 역시 공덕을 만족하게 갖추리라" 고 합니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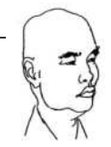
이 부분은 시주걸자증장품제4(施主乞者增長品第四)의 마지막 부분이다. 지금까지 보시하는 이와 구걸하는 이에게 증장되는 것에 대한 설명의 결론 부분이다. 제바라보살은 보시하는 이는 보시를 통해 복덕과 지혜가 증장되며, 구걸하는 이 역시 보시하는 이를 통해 기쁨을 얻고, 보살을 보면서 스스로 보살행을 서원하게 된다고 일러주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살은 진정한 보살행을 위해서 해탈마저 던져버린다. 해탈은 해탈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천명한 것이다. 여기서의 공덕은 단지 현실의 보답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즐거움을 얻게 되는 공덕이다.

석가모니불의 500가지 대원력과 아미타불의 48가지 원력이 바로 부처님을 부처님이게 했다. 관세음보살의 16서원과 33응신, 보현보살의 10종대원, 지장보살의 "지옥에 빠진 모든 중생이 구원될 때까지 열반하지 않겠다"는 서원이 있어 진정 보살일 수가 있었다.

따라서 "깨닫지 못해도 좋다", "오로지 보살행이면 족하다"라는 보살의 서원은 중생을 위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수행하는 대승의 삶이다.

대승불교는 성불(成佛)이 아니라 성보살(成菩薩)의 삶임을 강조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四法印과 常樂我淨

한국불교에서는 삼법인(三法印)을 우선시 한다. 삼법인의 설명 끝부분에 덤으로 얹어 사법인(四法印)도 있다는 정도로 끝마무리하는 경우가 흔하다.

삼법인의 순서에도 교과서처럼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일체개고(一切皆苦)로 굳어져 있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에서는 사법인(四法印)으로 가르친다. 설명 순서에 있어서도 제행무상, 일체개고, 제법무아, 열반적정(涅槃寂靜)이다. 이는 사성제(四聖諦)의 고(苦)·집(集)·멸(滅)·도(道)처럼 관찰과 인식, 원인과 분석, 소멸을 위한 정진수행,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팔정도의 실천으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 신앙의 생명력은 긍정을 위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상계의 괴로움의 원인을 직시하고 인식해 타력(他力)이든 자력(自力)이든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완성의 마침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의 생명력, '긍정 위한 부정'서 출발
韓불교, 삼법인 아닌 사법인으로 가르쳐야

그러나 한국불교처럼 삼법인(三法印)만을 가르친다면 허무의 그림자만 배워 인식할 뿐 긍정을 위한 부정의 논리를 비껴갈 수 도 있을 터이다. 순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은 덧없어(諸行無常) 일체는 괴롭다(一切皆苦). 실체가 없는 나(我)를 벗어나(諸法無我) 텅 빈 충만의 고요를 즐긴다(涅槃寂靜)로 설명함이 옳은 것이다.

다음으로 언급할 부분은 한국불교계에서 떠돌아다니는 윤회(輪廻)를 벗어나 해탈(解脫)하라는 덕담(德談)에 대해서다. 마구간에 뒹굴어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윤회를 벗어나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누리며 무슨 존재이길 바라는 것인지 설명이 모조리 생략돼 있다.

해탈의 내용과 해탈자의 세계에 대해서도 설명부족을 남긴 채 윤회를 벗어난 형이상학으로 자족(自足)하는 허물을 남기고 있다.

사바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의 복락을 누린다는 이분법적인 단출한 설명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낳고 죽는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존재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인지 의문부호는 날로 그 둘레를 넓혀가지 않을 수 없을 터이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열반경〉에서 찾을 수 있다. 깨달음을 성취한 진리와 한 몸을 이룬 자들은 열반의 사덕인 상(常)·락(樂)·아(我)·정(靜)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열반경〉에는 열반의 사덕(四德)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하여, 불교학자와 교수, 스님들의 상(常)·락(樂)·아(我)·정(靜)에 대한 설명에 있어 그 무게와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인(四法印)에서 법(法)은 진리라는 의미이다. 인(印)은 도장까지 찍어 4가지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극히 옳은 가르침이다.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닌 한 몸이지만 중생지견(衆生知見)과 해탈지견(解脫知見)은 천지개벽하듯 그 앎(知)과 봄(見)이 다른 것이다. 열반의 사덕(四德)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것이다.

불교의 중도(中道)를 설명할 때에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양변불락(兩 ≪不落)의 중심잡기 위한 '가운데 중(中)'이 아니라 이르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요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라는 양변무애(兩 ≪無碍)이자 무변중심(無 ≪中心)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중(中)'으로 설명함이 옳은 것이다. 임제의 수처작주(隨處作主)나 마조의 즉심시불(卽心是佛), 혜능의 당생정토(當生淨土)와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열반의 사덕(四德) 또한 사후 윤회를 거절하고 육조단경에서 혜능이 펼쳐 보이는 현생의 극락을 누리는 것이다. 중생일 때는 사법인(四法印)이었으나 깨달음을 이룬 뒤에는 상(常)·락(樂)·아(我)·정(靜)이 되는 것이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 제행유상(諸行有常)이요. 일체개고(一切皆苦)가 일체개락(一切皆樂)이 되는 것이다. 제법무아(諸法無我)가 제법유아(諸法有我)요. 열반적정(涅槃寂靜)이 그대로 정토청정(淨土淸靜)이 되는 것이다.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요,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이다. 살피고 또 살필진저.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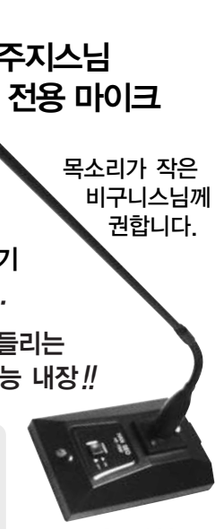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불화와 불상 모두 조성한 '팔방미인' 名匠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⑬ 설훈(雪訓) 스님

18세기 중·후반 불교미술사에서 주목받는 작가는 설훈(雪訓) 스님이다. 스님은 주로 명산대찰(名山大刹)에 불화를 조성하면서 불상의 조성과 중수에 참여하였다. 특히, 현재 도난문화재인 서산 개심사 관경변상도는 고려불화를 계승한 작품으로, 조선후기에 조성된 불화 가운데 최고의 작품성을 가지고 있다. 설훈 스님은 기존 조각승 계초 스님, 계심(戒心) 스님, 봉현 스님 등과 달리 불화승에 속하지만, 1790년 용주사 창건 시 관음보살을 제작한 것을 보면 불교조각에서도 상당한 명성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설훈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불상은 현등사 금동지장보살좌상 1점이 남아있을 뿐이다.

설훈 스님의 생애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불화의 화기(畵記)와 사찰의 연혁을 적어놓은 사적기 등을 통하여 스님의 활동 시기와 거주 사찰, 불화승 계보 등을 밝힐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설훈 스님과 관련된 문헌 기록은 18건으로, 불화 화기와 불상 발원문이 11건이고, 사적기 내용 등이 7건이다.

설훈 스님과 관련된 가장 빠른 기록은 1753년에 간행된 〈숙빈상시봉원도감의궤(淑嬪上諡封園都監儀軌)〉에 남한산성(南漢山城) 화승(畵僧)으로 언급되어 있어 경기도에 거주하던 스님임을 알 수 있다. 설훈 스님은 1758년 4월에 각총(覺聰) 스님과 경기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를 조성하면서 명부전 시왕상을 새로 채색하고, 수화승으로 경북 의성 고운사 사천왕도 가운데 지국천왕도(持國天王圖, 홍익대 박물관 소장) 등을 그렸다. 그 후 스님은 1765년에 수화승 긍유 스님과 서울 봉은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을 개금하고, 1767년에 수화승으로 충남 서산 개심사 관경변상도(현재 도난)를 조성하였다.

또한 스님은 수화승으로 1773년에 경남 합천 해인사 법보전 본존불을 개금하고, 1774년에 서산 문수사 청련암 지장시왕도을 그리는데, 지장시왕도 화기에 '쌍봉산인(雙峯山人) 설훈(雪訓)'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 경기도에 있는 쌍봉산을 찾아보면, 1875년에 작성된 '수원군 쌍봉산화운사기(水原郡雙峰山華雲寺記)'가 있어 설훈 스님이 화운사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수사 청련암 지장보살도의 뒷면 배접지 안쪽에서 발견된 편지 6점은 당시 불화 조성과 스님들의 활동에 관한 중요한 자료이다.

설훈 스님은 1776년에 수화승으로 정순(定淳), 영우(永宇) 등과 강원 홍천 수타사 지장보살도(地藏菩薩圖)를 조성하고, 1780년에 남양주 봉선사 대웅전 불상을 취허환열(鷲虛幻悅) 스님, 용봉경환(龍峯敬還) 스님, 상겸(尙謙) 스님 등과 개금하였으며, 1783년에 편수(片手) 법현(法賢) 스님과 보성(寶性) 스님이 남양주 불암사 범종을 칠 때 증명으로 참여할 정도로 명성과 지위가 높았다.

스님은 1784년에 수화승 유성과 경북 김천 직지사 천불전 불상을 제작하고, 1785년에 함남 이원군 동면 복흥사의 삼존불상과 불화(靈山會上圖, 甘露圖, 神衆圖)를 혜청(惠淸) 스님, 원유(圓宥) 스님과 조성하였다. 설훈 스님은 1790년에 수화승으로 5월에 가평 현등사 금동지장보살좌상과 신중도를 조성하고, 8월부터 9월까지 경기 화성 용주사 대웅전 관음보살상을 제작하였는데, 북한산성(北漢山城) 도총섭이었던 용주사 등운(等雲) 주지스님이 1825년에 작성한 〈용주사사적기(龍珠寺寺蹟記)〉 중 '본사제반서화조작등제인방함(本寺諸般書畵造作等諸人芳啣)'에 여러 승려장인 가운데 설훈 스님만 유일하게 당호가 적혀 있다. 또한 설훈 스님은 1792년에 남양주 흥국사 시왕상과 시왕도 조성에 증명(證明)으로 참여하고, 1794년에 경북 산청 대원사 신중도를 제자들과 그렸는데 이 기록이 스님의 마지막 기록이다.

불화승이면서 조각 솜씨 뛰어나
1790년 용주사 관음보살상 조성
현등사 금동지장보살좌상 대표작
41년간 불화 조성·불상 개금 불사

지금까지 알려진 발원문과 사적기를 중심으로 설훈의 생애를 살펴보면, 스님은 당호가 관허당(寬虛堂, 觀虛堂)으로 1720년대 후반에 태어나 각총 스님에게 불화를 배우고, 1750년대 후반부터 불화의 조성과 불상의 중수·개금을 주도하였다. 특히, 그는 1780년대 범종을 고쳐서 만들 때 증명(證明)으로 참여할 정도로 당시 불교계에서 명성과 지위를 가졌다. 또한 스님은 1790년에 현등사 금동지장보살좌상과 정조가 발원한 용주사 관음보살상을 만들 정도로 당대 최고의 불화승이자 조각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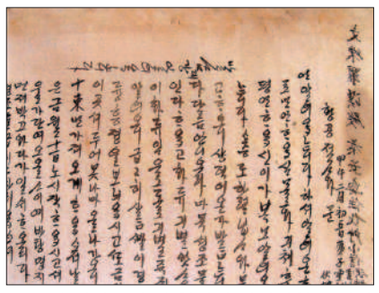
설훈 스님이 만든 대표작인 1790년 가평 현등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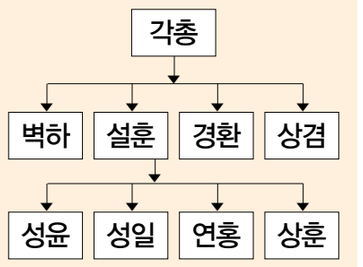
설훈 스님이 그린 1790년 가평 현등사 신중도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1774년 서산 문수사 청련암 지장시왕도 배접지로 쓰인 설훈 스님의 편지

설훈 스님의 불화승 계보



설훈 스님은 이 시기에 활동한 호남의 계초 스님과 계심 스님 등과 다른 불화승 계보를 따르고, 화성 쌍봉산에 거주하면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작가이다. 설훈 스님의 계보는 각총(-1735-1758-) → 벽하(-1755-1758-), 설훈(-1753-1794-), 경환(-1764-1803-), 상겸(-1780-1790-) → 성윤(-1770-1790-), 성일(-1771-1790-), 연홍(-1775-1791-), 상훈(-1777-1792-)으로 이어진다.

설훈 스님과 가장 밀접한 불화승은 경환(敬還, 敬煥, 景煥)스님이다. 경환 스님의 당호는 용봉당(龍峯堂)으로, 1764년에 건원릉(健元陵) 정자각(丁字閣) 중수와 1776년에 영조(英祖) 원릉(元陵) 조성소 화승(畵僧)으로 참여하였다.

경환 스님은 1780년에 수화승 설훈과 남양주 봉선사 대웅전 불상을 중수·개금하였는데, 시주질에 묘적암(妙寂庵) 화주(化主)로 적혀 있다. 묘적암은 여러 지역에 있었지만, 경환이 경기도에서 활동한 것을 보면 남양주 묘적암에 거주한 불화승임을 알 수 있다.

경환은 1788년에 상겸 등과 경북 상주 남장사 불사에 참여하여 '불사성공록(佛事成功錄)'에 경성양공(京城良工)으로 언급되었다. 그는 1790년에 수화승 설훈 스님과 가평 현등사 금동지장보살좌상과 신중도를 제작한 후,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이루어진 화성성역에 화공(畵工)으로 참가하고, 1803년에 안산 쌍계사에 봉안된 도성암 현왕도 조성에 증명(證明)을 맡았다.

설훈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대표적인 작품은 현등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이다. 이 보살상의 바닥에는 조성발원문이 빽빽하게 음각되어 있다. 발원문에 의하면 지장보살상은 1790년 5월에 운악산 현등사 지장암에 봉안하였다. 이 지장보살이 봉안된 지장암은 18세기 중반에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와 〈범우고(梵宇考)〉에 "현등사와 지장암은 운악산(雲岳山)에 있다"고 적혀 있고, '운악산현등사사적(雲岳山懸燈寺事蹟)'에 "절의 동쪽에 고개를 하나 넘으면 암자가 있는데 원통전(圓通殿)이다. 오랫동안 비워 놓았는데, 4월 보름날 저절로 불이 났다. 동으로 고개를 넘으면 지장전(地藏庵)이 있고, 이 암자는 아직 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1823년 4월까지 암자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71년에 작성된 〈가평군지(加平郡誌)〉에는 "현존 현등사(懸燈寺), 고지(古址) 지장암"으로 적혀있어 1823년에서 1871년 사이에 폐사(廢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동지장보살좌상은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백련명률(白蓮明律)이 화주(化主)가 되어 여러 시주자의 후원을 바탕으로 관허설훈(寬虛雪訓), 용봉경환(龍峯敬還), 혜청(慧淸), 성일(性一), 성윤(性允), 쾌신(快信)이 형태를 만들고, 전인강(全仁江)이 주물하였으며, 표덕연(表德蓮)이 표면을 처리하였다. 지금까지 조선후기에 제작된 금동불은 1623년 남양주 수종사 석탑에서 발견된 금동불과 1790년 가평 현등사 금동지장보살좌상 밖에 조사되지 않았다.

금동지장보살좌상은 높이가 45㎝로, 조선후기 제작된 보살상 가운데 중소형에 속한다. 보살상은 얼굴을 앞으로 약간 내밀고 상체를 바르게 세운 자세로 결가부좌하고 있다. 보살상은 머리에 두건(頭巾)을 쓰고, 살집 있는 얼굴에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살짝 뜬 눈, 삼각형의 코, 살짝 미소 짓는 입, 화형(花形) 귀걸이를 단 귀를 가지고 있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을 모아 둥근 보주(寶珠)를 쥐고, 왼손은 손가락을 곧게 편 상태로 무릎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바깥에 걸친 두터운 대의(大衣)의 끝자락이 오른쪽 어깨에 수직으로 커튼처럼 늘어지고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 자락이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수직으로 내려와 복부에서 편삼과 접힌 후에 결가부좌한 다리를 덮고 있다.

지장보살상의 등 뒤에 두건자락이 숄을 두른 듯이 양 어깨를 완전히 덮고, 왼쪽 어깨에 V자형의 옷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이와 같이 설훈 스님이 제작한 불상은 다른 조각승이 만든 불상과 달리 재료로 금속을 사용하고, 어깨가 당당하고, 무릎이 높이와 너비가 알맞아 안정감이 있다. 이는 설훈 스님이 불화를 그린 불화승이라 인체 표현에 사실성이 있고, 불상 표현에 얼굴을 강조하던 기존 조각승과 다른 조형 감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타원형의 얼굴에 눈 사이가 좁고, 이목구비가 사람과 비슷하여 자연스럽다. 착의법에서도 현등사 지장보살좌상은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수직으로 접힌 반면, 계심 스님이 1779년 제작한 온양민속박물관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이나 봉현 스님이 1790년에 조성한 화성 용주사 대웅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오른쪽 어깨에 U자형의 대의 자락이 길게 늘어져 도식적으로 표현되었다. 하반신에 걸친 대의자락도 지장보살좌상은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진열이 제작한 불상과 같이 안쪽의 옷자락이 넓게 펼쳐지고, 왼쪽 무릎에 접힌 소매 자락이 17-18세기에 제작된 기년명 목조불상이나 석조불상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이다.



부처님과 보살의 탄생 힐링 음악으로 찬탄

'자비송' 가수 이미 우이
'불교기념일 성가집' 발매
해석 담긴 해설집도 수록

부처님과 보살의 탄생과 기념일을 찬탄한 명상 음반이 나왔다.

명상음악 전문 제작사인 콘텐츠코리아(대표 신효철)는 '자비송' 가수로 유명한 불자 뮤지션 이미 우이(Imee Ooi)의 신보 '불교기념일 성가집'을 발매했다.

이미 우이는 말레이지아 태생의 화교계 불자 뮤지션으로 한국불자들에게는 '자비송'이라는 챈트로 익숙하다.

그는 불교전통의 경전, 만트라, 다라니 등을 가사로 작곡과 편곡을 하는 작곡가 겸 편곡자, 가수이자 뮤직 프로듀서로서 중화권과 세계 불교명상음악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뉴 스트레이츠 타임즈(New Straits Times)는 "이미 우이는 불교의 챈트를 현대화하여 만트라를 음악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미 우이는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북경어, 광동어, 영어 등의 7개 국어로 노래를 하는데, 지금까지 '자비송', '금강경', '대비주', '옴 마니 반메 훔', '범음 반야바라밀다심경', '보석경' 등 50장 이상의 음반을 발표했다. 베스트셀러인 '자비송' 한국 음반에는 정목 스님이 우리말로 낭송한 '자비송'이 특별히 수록돼 있다.

이미 우이의 신보 '불교기념일 성가집'에는 불교의 5대 명절 중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과 우란분절 이야기에서부터 미륵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위타보살의 탄생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번 음반에는 이미 우이가 작곡 및 편곡,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했으며 사륜이 가사를 붙였다. 한국 발매 음반에는 중국어 원문가사에 한글독음과 해석, 수록곡별 해설이 특별히 삽입돼 있다.

이미 우이는 "이번 앨범을 통해 불교기념일이 가지는 의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불교예술이 더욱 대중들에게 다가가 '생활 속의 불교'가 안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구입문의: 1661-3164, 010-5415-1798

신성민 기자




세계적인 불교뮤지션 이미 우이(사진 왼쪽)와 그녀의 신보 '불교기념일 성가집'(사진 오른쪽).

'靜中動' 미학 담긴 동양화 만나다

韓·中문화교류협, 김창배·이란 화백 초청 전시회

한국의 선묵화와 중국의 공필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한·중문화교류진흥협회(회장 하태규)는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제6회 한중문화교류전의 일환으로 한국 선묵화 대가 단원 김창배 화백과 중국 공필화 작가 이란 화백 초청 전시회를 연다.

김창배 화백은 근현대 인물 풍속화의 대가였던 故 금추 이남호 선생의 수제자로, 조선의 대표적인 화원인 단원 김홍도의 직계 후손이다. "차와 선(禪), 그림은 하나"라고 주장하는 김 화백은 한국 선묵화의 대표 작가로도 정평 나있다. 실제 그는 한국미술협회 선묵화 분과 위원장이며, 선묵화법과 기법에 대한 다수의 저서도 발간한 바 있다.

김 화백은 이번 초대전을 위해 3년을 준비했으며, 새로운 작품을 포함해 약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매우 정적이다. 차회를 갖는 스님과 재가자부터 참선을 하는 수행자, 다소곳이 앉아 수담(手談: 바둑)을 나누는 모습이 산수와 어울리며, 선적 풍취를 자아낸다.

김 화백은 "'다선일여(茶禪一如)'라고 하듯이 평소 차와 그림, 불교에 빠져 산다"면서 "작품활동도 이런 생활 안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중국 작가로 초대된 이란 화백은 혈연으로 전승되는 중국 청 황실의 공필화를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다. 북종화 계열의 공필화는 일종의 세밀화로 중국 화단에도 이를 그릴 수 있는 화가는 7명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공필화가 한국에 소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창배


이란

20~26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서
韓선묵화·中공필화 만나는 자리
청 황실 전승 공필화, 처음 소개
1백 작품 전시, "韓中 교류 기대"

특히, 이 화백은 궁정화파의 전승 제자로 처음부터 청나라 황실 궁정 말 그림을 깊이 연구하고 있다. 그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청 황실 말 그림 50여 점을 전시한다.

이 화백의 작품은 매우 동적이다. 놀라울 정도로 말이 세밀히 묘사돼 있으며, 동작들 역시 생동감이 넘친다. 또한 화폭 안에서 뛰노는 말과 어우러진 산수(山水)도 매우 조화롭다.


중국 공필화가 이란 작가의 작품 '금과철마'. 말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눈길을 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묵화가 중 한 명인 단원 김창배 화백의 '육바라밀 삼취정계'.

이 화백은 "궁정 회화는 중국 전통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독특한 예술적 품격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궁정화파의 전승 제자로 처음부터 청 황실 궁정 말 그림의 창작에 매료됐다. 한국인들이 궁정화파의 작품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를 주최한 하태규 한중문화교류진흥협회장은 지속적인 한중 작가 초대전을 통해 양국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할 뜻을 내비쳤다.

하 회장은 "교류 전시회는 민간 교류를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의 상호 이해도를 넓히고, 나아가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을 함께 느끼고 상호 우의를 다지며 서로를 더 이해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2)720-1161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년고도 경주, 고려시대 모습은 어땠을까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고려시대의 경주' 개최

왕경서 도시로 재편 모습
다양한 유물 전시로 고찰
경주, 고려 모습 첫 조명

신라의 왕경이었던 천년고도 경주의 고려시대 모습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오는 9월 4일까지 특별전 '고려시대의 경주'를 개최한다. 신라의 천년왕도로 주목받는 경주의 고려시대를 조망하는 전시가 단독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경주'라는 이름은 고려시대에 시작돼 오늘에 이른다. 이번 전시는 신라가 멸망한 935년부터 1392년까지 고려시대 경주 지역 사회의 변화와 지역민들의 삶을 '도시경관'과 '지역사회'라는 키워드로 풀어냈다.



동경 굴석사가 새겨진 쇠북(사진 왼쪽)과 고려시대 사용된 구결이 있는 기림사의 자비도량참법(사진 오른쪽). 고려시대의 경주 모습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다.

불국사 석가탑 중수기(국보 126호) 등 국보 3점, 보물 15점을 비롯해 모두 500여점의 문화재를 △프롤로그:경주의 탄생 △1부 읍성과 지역사회 운영 △2부 호국의 상징 황룡사 △3부 지역사회와 불교사원 △4부 동족사회와 무덤 △5부 경주 사람들 △에필로그:고려의 동경 경주 등의 주제로 나눠 구성했다.

프롤로그에서는 경순왕의 고려 귀순으로 경주가 신라 왕경에서 고려의 지역도시로 재편되는 과정을 다루며, 1부 '읍성과 지역사회 운영'에서는 고려시대 경주의 행정 중심이 된 읍성과 지역사회 운영의 모습을 전시한다. 성벽 축조에 사용된 신라 건축물의 석재들과 고려 기와들, '동경굴석사(東京屈石寺)'가 새겨진 굴불사 출토 쇠북은 1183년 경주의 전 호장 이백유(李伯兪)와 승려 도인(道人)이 제작에 참여했고 경주를 동경으로 칭했음을 보여준다.

2부 '호국의 상징 황룡사'에서는 신라의 중심 사찰이었던 황룡사가 고려시대도 경주민의 정신적 중심으로서 여전히 호국의 상징이었음을 새롭게 조명한다. 각종 대형 기와들과 청자 등 고려시대 황룡사 출토품들은 웅장했던 당시의 모습을 짐작케 해 준다.

3부 '지역사회와 불교사원'은 경주의 불교사원이 종교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였음을 보여준다.

4부 '동족사회와 무덤'에서는 경주의 고려시대 무덤군을 통해 동족집단의 무덤을 살피며, 5부 '경주사람들'에서는 이제현·김부식·이의민 등 경주와 관련된 인물들을 소개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기림사 소장 〈자비도량참법〉에서 발견된 13세기 고려시대 구결과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경주 읍성 및 구정동 고려무덤 출토품을 이번 전시에서 공개한다.

이밖에도 효자의 마을로 선양한 황남동 소재 손시양 효행정려비 일명 효자리비(孝子里碑, 보물 68호)의 입체탁본, 고려시대 경주 역사를 집성한 역사 연표와 지도, 영상과 삽화가 전시 이해를 돕는다. 관람은 무료. (054)740-7530

신성민 기자

청동주조 50년 외길 인생 大韓民國 청동明匠


홍법사 삼존불

天鐘社

청동불상, 범종,
청동탱화, 단청,
순금불사,
조형물조각


수종사 범종



천종사 대표 송창일 명장

불교미술대전 조각부 특선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제전 조각부 특선
서울올림픽기원 불교미술대제전 입선
대한민국청소년 민족문화예술대전
불교조형미술 대상 수상
신지식인 협회장상 수상
한민족 대상 수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103-79
대표전화 031)763-7435

건강 약선 음식 전문점
곽가네 음식 통인동 통인시장 내
건강이 불편하신 불자님들을 위한 건강음식입니다.
불연으로 만난 건강음식을 함께 나누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7년 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종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단양 구인사에서 4박 5일 동안 지극정성 기도를 하게 되었고 아련한 꿈속에서 천태종 종조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그 당시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는 열반하신지 10여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전에 한번도 뵌 적이 없던 조사님께서 제 기도에 감응하셨는지 나타나시어 저에게 건강을 치유하라며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음식법을 알려주셨고 그 음식 조리법으로 식생활을 바꾸니 점차 건강이 회복되고 일상 생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 조리법을 널리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7년전 부터 곽가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건강상태는 젊은 사람 못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불자여러분이 편하게 언제든지 접하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건강이 불편하신 불자님들께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하옵니다. 인사드립니다.



사찰음식 70% 일반음식 30%

◆불가음식 : 인삼견과류탕, 더덕견과류탕, 연근견과류탕, 우엉견과류탕, 버섯견과류탕
◆건강약선음식 : 정식A, 정식B, 정식C / 선식떡국, 선식냉모밀, 선식온국수, 선식냉국수, 견과류 누룽지탕 ◆일반음식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6길 8 (통인시장 내) 곽가네음식
02)737-7949 / 곽정순 011-9762-7949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7.7~2015.7.1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2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조계종출판사
3	알기쉬운 쏙쏙 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4	초발심자경문강설(무비스님의)	무비스님	조계종출판사
5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6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지원스님	민족사
7	미산스님초기경전강의(개정판_양장본)	미산	불광출판사
8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9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원시불교	나카무라하지메/원영	문예출판사
10	흘반난,밥먹기어렵다	김진태	불광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붓다 생애 및 불교사가 한눈에 '쏙쏙'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이자랑 · 이필원 글
배종훈 그림
민족사 펴냄
1만 3800원

우리들 삶 속에 깊이 자리한 불교는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다. 사실 팔만대장경이 상징하듯 방대한 불교경전과 2600년의 기나긴 불교사 속에서 넓고도 깊게 발전한 불교를 어렵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불교를 아주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젊은 불교학자로 주목받는 동국대 이자랑 교수와 이필원 교수가 함께 글을 쓰고, 카툰으로 불교를 전하는 배종훈 작가가 도표를 그리며 의기투합해 만든〈도표로 읽는 불교입문〉이다. 저자는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인도서 발생한 불교는 '어떻게 시작해 어떤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 갔을까?' 이 책은 이 질문에 가능한 한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답해서 불교에 처음 입문한 이들이나 초심자는 아니어도 본격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집필했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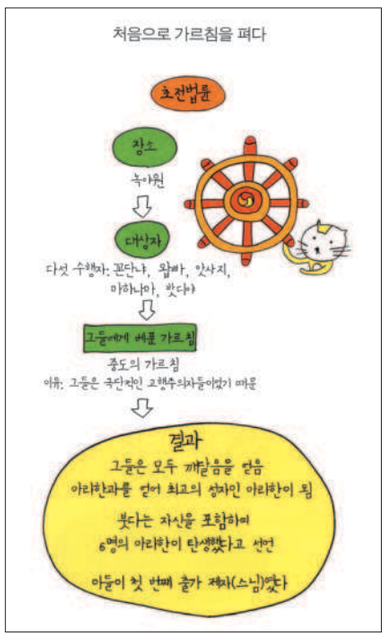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 책의 큰 특징이 무엇일까. 우선 서술이 매우 간결하고 체계적이다. 또한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이란 제목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한 편 한 편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도표만 봐도 불교의 윤곽이 그려지고, 어렵게 느껴진 불교가 친숙히 한발짝 다가서게 만든다. 아울러 도표 옆에 상세한 주(註)를 달아서 불교사전이 없어도 불교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편집해 입문서다운 입문서, 최상의 입문서라는 입소문이 무색치 않다.

저자는 "붓다의 생애를 시작으로 인도서 불교가 거의 사라질 때까지 인도불교의 긴 역사를 도표와 함께 100여 개 이상의 소제목 아래 체계적으로 담았다. 두 명이 공동 작업을 한 덕분에 교리와 교단사 양쪽을 모두 적절히 고려해 서술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이 책이 지니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나눠 편집, 불교서 꼭 알아야 할 100여 개의 소제목 아래 핵심 내용을 간결히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1장 '붓다의 생애'에서는 탄생서부터 열반까지 80여 년에 걸친 붓다의 삶을 보여주는 한편 초기에 불교교단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서 주목할 만한 몇몇 사건도 포함해 서술한다. 2장 '붓다의 가르침'에서는 중도, 8정도, 4성제 등 불교의 핵심교리를 비롯해 불교수행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가르침을 두루 망라해 설명한다. 3장 '불교교단의 성립과 발전'에서는 붓다의 열반 후 분열을 거듭해가며 부파로 발전해 가는 불교 교단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서술한다. 4장 '대승불교의 탄생과 발전'서는 불교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대승불교의 탄생과 의미,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5장 '불교교단의 생활'서는 교단을 구성하는 출가자와 재가자가 일상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한 내용 및 출가자의 의식주 생활과 의사 결정 방법에 대해 다뤘다. 당시 인도의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불교공동체가 지닌 주요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특히 이 책은 불교학계서 소장학자로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는 이자랑 교수님과 이필원 교수가 공동 작업을 한 덕분에 불교 전반에 대해 적절히 고려해서 서술했다. 뿐만 아니라 짧지만 알찬 내용으로 구성돼 교재로 활용하기 안성마춤이다.



배종훈 작가가 그린 도표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정리한 입문서
도표 옆에 상세한 주 달아 공부 편리
가장 큰 장점은 서술 간결하고 체계적
교리와 교단사 양쪽 적절히 고려해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유쾌하고 풍성한 정토 세상으로 초대



무량수경

도암 스님 역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1만 7천원

통도사 율원 교수사 도암 스님〈사진〉이 〈유쾌하고 풍성한 정토세상 무량수경 회집본〉(이하 회집본 무량수경)을 번역했다. 도암 스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아는이는 많지만 정토법문의 이론과 수행방법 그리고 그 결과로 얻는 유익에 대해선 아는 이가 적다고 말했다. 도암 스님은 책 〈회집본 무량수경〉으로 불자들이 바른 수행 이정표를 얻는 것이 집필 동기라고 했다.

스님은 먼저 책에서 제시한 수행법을 따르면 마음의 청정함을 얻는다며 수행 할 것을 강조했다. "마음으로 염하고 입으로 부르는 것이 일치 할 때 번뇌가 사라진다"며 "번뇌 없는 상태로 아미타 부처님을 지속적으로 부르면 삼매에 이르며 번뇌의 뿌리가 뽑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은 극락 왕생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얻는 유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염불을 하는 동안 극락을 바라보기에 이 세상을 잠시 머무는 삶으로 인식하고 집착을 여의고 지혜를 얻는 다는 것이다.

도암 스님은 특히 아미타불 염불의 장점으로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접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은 모두 중생의 근기와 관련이 있다. 각각의 법문은 모두 훌륭하고 평등해 중생의 입장에서 우열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책 〈회집본 무량수경〉의 염불 수행법은 교육 수준이 높거나 낮아도 또한 어느 시대에 살아도 충분히 적용가능하며 방법이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효과는 크고 빨라서 혜택을 얻고 정토 세계에 태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교 사상이 철저한 '자력 구원(自力救援)'을 근본으로 하지만 무량수경 정토사상은 부처와 보살의 원력에 의지해 중생을 구제하고 불국토에 이르도록 하는 '타력구원(他力救援)'이 근본 정신이다.

도암 스님은 "아미타 부처님은 성불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중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제도 할 수 없다면 성불 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셨다"며 "중생들이 아미타불을 끊임 없이 염하면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처가 성취한 것과 같이 무상정각을 쉽게 이룰 수 있다"고 당부한다.

정토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이 있는데 이를 들어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이라고 한다. 〈무량수경〉은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경전이다. 도암 스님이 번역한 〈무량수경〉은 1932년 중국 하련거 거사에 의해 수집된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佛說大乘無量壽莊嚴淸淨平等覺經)〉이다. 중국에서는 무량수경이 12차례 번역 되었고 5종의 판본이 남아 있지만, 5종의 판본 가운데 대표 판본을 정할 수가 없어서 대중화가 어려웠다. 이는 중요한 내용이 여러 판본의 무량수경에 나눠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이 번역한 하련거 거사의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은 5종 판본 내용이 빠짐 없이 수록됐다. 〈회집본 무량수경〉의 첫 장은 먼저 수 십년간 무량수경 정토법문을 설한 대만 정공법사의 강의서 발췌했다. 이는 일반 독자들이 경전 내용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공법사의 강의 후 본격적인 무량수경 회집본 독송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역자인 도암 스님은 1991년 통도사 월파 선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철학과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통도사 승가대학, 봉선사 능엄학림서 수학했다. 봉선사 월운 해룡 강백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율사 파계사 여산 철우 스님, 통도사 중산 혜남 스님으로부터 전계 받았다. 이후 백양사와 송광사 승가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했으며, 행자 교육원과 비구계산림 교수사, 갈마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통도사 율원 교수사로 있다.



아미타불 염불의 장점 상세히 소개
"중생 근기에 차별없이 접근 가능"
'타력구원' 이 근본정신… 원력에 의지
첫장, 대만 정공법사의 강의서 발췌

하성미 기자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

깨달은 공동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전화 010-3487-0035 ● www.법왕정사.net ● 판매총판 : 운주사 02-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

캐나다 레스토랑 습격… 방생 때문?

"방생은 연민행위" VS "생태 균형 무너져"

한 스님이 바닷가재(랍스터) 270kg을 방생한 뒤, 불자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대한 애꿎은 습격 사건이 발생했다.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샬롯타운 경찰은 7월 11일(현지시간) "누군가 '샬롯 스플렌디드 에센스 레스토랑'의 울타리와 지붕 위 화단과 우편함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당국은 전날 스님들의 방생법회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스님이 바닷가재(랍스터) 270kg를 방생한 뒤 불자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출처=CBCNews

전날 대각불교연구회(The Great Enlightenment Buddhist Institute Society, GEBIS) 스님들은 CBC취재진과 함께 방생을 위해 대서양으로 향했다. GEBIS스님들은 캐나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우리 돈으로 320만 원 정도(한 마리 1만2000원 기준)의 바닷가재 270kg을 사들여 대서양에 방생했다.

방생에 앞서 스님들은 바닷가재들을 깨끗한 물에 씻긴 뒤 20분 동안 자비심을 담는 불교의식을 치렀다. 스님들의 이러한 방생은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당시 단 스님은 "가재뿐 아니라 벌레, 파리 등 어떤 동물도 방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고 말했다.

이번 레스토랑 습격 사건에 대해 제프리 GEBIS 대변인은 "범인이 레스토랑을 습격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주인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유감"이라며 "레스토랑 주인 케조우 루 씨가 불자인 것은 맞지만 GEBIS 소속 신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습격당한 레스토랑이 위치한 빌딩은 GEBIS와 공동사업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단체 월광재단(Moonlight Foundation) 사무실도 위치해 있다.

한편 방생은 2000년 전부터 전해진 불교의 오랜 관습이지만, 최근 야생동물 서식지의 생태균형을 어지럽힐 수 있단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캐나다 뿐 아니라 지난해 영국해양관리기구는 "영국 남부 브라이튼 지역 승려들이 외래종인 캐나다 바닷가재와 다때은행게(Dungeness crab) 등을 방생해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영국 당국은 "외래종을 유입시켜 지역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작 용의자에 대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이후 지역 어류상인이 "승려들이 나를 찾아와 방생의식에 사용될 토종 게와 바닷가재 200여 마리를 약 2000파운드(약 350만원)에 구매했다. 이들이 외래종 갑각류들 또한 구입한 뒤 바다에 풀어 준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에 따라 승려들이 사건에 연루됐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2012년에는 국제 인권단체와 미국불교연합까지 나서 방생이 야생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흑백갈등' 휩싸인 美… "분열 멈추라"

미국 불교계, 미국 달라스 총격사고 애도

경찰 5명이 사망한 미국 텍사스 주(州) 달라스 총격사고에 대해 미국 불교계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또한 불교계는 미국 시민사회계에 "모든 인종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평등 정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불교전문지 'Lion's roar'은 7월 12일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앨턴 스털링(Alton Sterling)과 필랜도 캐스틸(Philando Castile)이 백인 경찰이 쏜 총에 의해 사망한 후, 이에 보복한 흑인계가 경찰 5명을 총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불교계 인사들은 개인 SNS 계정 또는 공식석상서 이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불교교회(Buddhist Churches of America)장인 코도 우메즈(Kodo Umezu) 스님은 7월 11일 "최근 불거진 폭력과 보복폭력 사건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며 "부처님께선 '만인은 평등하다'는 사상으로 일체중생을 차별치 않으셨다. 이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남녀 · 인종 등 차별에 경종을 울릴만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도 스님은 "차별은 인간의 더러운 마음서 비롯된다"며 "인종차별 없이 서로를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정토세상을 얻을 것"이라 말했다.

워싱턴 D.C 내면명상커뮤니티(Insight Meditation Community of Washington)장 루스 킹(Ruth King)은 흑인 희생자들에 대해 '가족'이라 칭하며, 미국 사회서 흑인들의 고충을 성토했다. 루스 킹은 "(흑인인) 나 역시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압박을 받아왔다"며 "나는 내 자식들이 '까만 몸'으로 살아가는 데 얼마나 위협을 받는지, 또 내가 그들을 언제까지 보호할 수 없단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 부디 인종과 관계없이 모두가 고통을 느낀단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찰이 쏜 총에 의해
흑인 남성 2명 잇단 사망
보복성 사건에 갈등 확산
"겸손하고 서로 배려하라"

또한 캘리포니아 주(州) 우드에이커 시에 위치한 '영혼의 바위 명상센터' 신도 일동은 7월 11일 "흑인 및 경찰 희생자를 모두 추모하며, 유가족들에겐 가족 잃은 슬픔에 위로를 전한다"면서 "미국 사회는 더 이상의 분열과 분노를 멈추고, 슬퍼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촉구했다.



미국 달라스 경찰 5명이 저격범의 총에 의해 사망한 가운데 경찰들이 용의자를 체포, 사살했다. 사진출처=PBS Newshour

현재 미국은 흑인과 백인 간 보복성 총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심각한 분란이 초래되고 있다.

7월 5일(현지시간) 미네소타 주의 한 편의점서 CD를 팔던 흑인 남성이 경관 2명에게 제압되는 과정서 총에 맞아 숨졌으며, 이튿날엔 루이지애나 주에서 차량 검문을 받던 흑인 남성이 면허증을 찾던 도중 사살됐다.

이에 반발한 흑인계는 7월 7일 달라스 시청 800m 떨어진 지점서 거리행진을 하는 등 항의 시위를 열었다. 이 과정서 매복 총격범 4명이 백인 경찰들을 조준 사격, 6명이 부상당하고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당국은 7월 8일 "미국 달라스 경찰이 폭발물을 탑재한 폭탄 로봇을 이용해 총격 사건 용의자 마이카 제이비어 존슨(25)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3명은 현장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레드불, 보로부드르서 광고 촬영… 국민들 '공분'

익스트림 스포츠 '파쿠르' 영상 경내서 찍어 공식 사과

에너지드링크 제조업체 '레드불(Red Bull)'이 세계 최대 불교유적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사원서 위험천만한 곡예 영상을 찍어 논란에 휩싸이자 공식 사과를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7월 1일(현지시간) 레드불은 "당국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보로부드르 사원에서 영상을 찍은 것에 사과드린다"라며 일간지 광고를 통해 사과를 표명했다.

영상에는 익스트림 스포츠인 '파쿠르(프리러닝)' 전문가들이 1,300년 전 세워진 불탑 옆면을 박차고 몸을 띄우는가 하면, 불탑 꼭대기에 올라가 동료와 음료수 캔을 주고받는 등 상식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파쿠르 전문가는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No Climbing(올라가지 마시오)'이라고 쓰인 표지판 앞을 지나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에너지드링크 업체 레드불(Red Bull)이 세계 최대 불교유적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사원에서 위험천만한 곡예 영상을 찍어 논란에 휩싸이자 공식 사과를 했다. 사진출처=tribunnews

보로부드르 보전 당국의 마시스 수토포는 "레드불 측이 경비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원에 몰래 들어와 영상을 촬영했다"며 "그들은 경비원들의 감시를 틈타 촬영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레드불은 그 영상을 지난 3월 18일 온라인으로 송출,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공분케 했다. 불교신자들은 "성지 모독과 다름없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여론에 따라 인도네시아 당국은 레드불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이에 레드불은 즉각 해당 영상을 삭제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로부드르 사원에 물리적 훼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소송을 중단했다.

대신 레드불은 현지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내고, 종교적 유적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힐마르 파리드는 "우리는 이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레드불 측에 성지를 보호하는 내용의 동영상 촬영을 요청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명상 중인 승려 뇌파 연구 '화제'

캐나다언론 'KelownaNow'는 7월 9일(현지시간) "빅토리아대학서 신체운동학을 공부 중인 브리지 보드리(23)가 최근 네팔서 명상 중인 티베트 스님들의 뇌파 연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브리지 씨는 "뇌전도측정기구를 활용한 이번 연구를 통해 명상 초보자인 스님과 숙련자인 스님들 사이의 뇌파를 비교, 집중력 차이를 밝혀낼 것"이라 밝혔다. 연구결과는 이번 달 내 발표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 사진출처=myuviclife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10㎜) 30,800원 (무료배송)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문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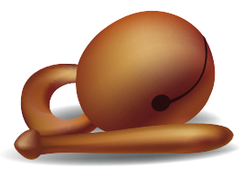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내 어리석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현명하다고 일컫는 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다.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암, 질병, 재판, 묘터, 교통사고 운을 얼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성명학+사주+백초귀장술
– 수강후 자격증 수여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강의)
010-4014-8822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구궁성명학
23기모집을위한
무료 공개강의
7월9일(토)11시
본 수업 당일 14시부터
좋은이름연구원
02-383-8860
010-770-2248

파동명상요법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는 분. 빙의, 영가장애로 고통받는 분, 우울증 등 심인성 질환자
041-555-0374
주지스님 찾으세요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범패작법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6개월과정 / 수시접수)
교육내용 : 조석예불,새벽종송,사시불공,천도재, 사십구재,점안의식,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관욕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나비무 : 도량게,다게,운심게,오공양, 삼귀의,육법공양,향화게,법고무
* 범패작법 전문스님들이 사찰 각종행사 대행하여 드립니다 *
* 전생체험 및 빙의환자 퇴마치유 전문*
010-5269-4168
(연화사 범패작법교육원)

법당 철거전문 (재활용 센터)
퇴불,철거,견적,불교용품, 매입,판매 정성을 다해
퇴불,철거 깨끗하게 해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기업
(주) 다사팜
010-2395-3333

총무원장 및 각원 원장 모집공고
본 종단은 문공부 등록 및 등기필한 종단입니다. 유능한 인재 확보와 종세를 넓히기 위해 각원 원장 및 부원장님을 모십니다. 총무원장,교육원장,호법원장,문화원장, 포교원장, 고시원장,비구니원장, 전법사대전교
총무원 010-8729-8494

상담안내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천도재,구병시식,49재)
010-2125-4684
대구은행 087-13-035968

작 명 실력자 초빙
서울 화곡동 살림가능
건물주가 협조
최고의 조건임
내용은 상담하세요
건물주 010-5381-1419

비구니 스님
초빙합니다
암자 운영하실 분
02-3436-0796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3499-3721

수행처 마땅하지 않은
비구니스님 전화주세요
개인방사 드림. 큰방사 서재
및 다실, 욕실, 거실, 주방 (20평)
(양산 통도사 부근 산사도량)
010-4640-4747

모든 신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특수한 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절에서 일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경북 안동)
010-8576-4450

기도노장 스님 구함.
공양주 보살,
행자 구함.
절에서 청소할 처사구함
절에서 공부할 행자구함
010-3840-435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불심깊고 독신자 60대이상 보살님
찾습니다
(경북 울진)
010-8571-6559

급구
좋은 이벤트로 포교원
동업하실 **비구니스님**,
보살님을 모십니다.
(부산서면,롯데백화정부근, 시설완벽)
051-803-9588
011-488-0316 스님직통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숙식가능
(부산)
010-3525-9919

사찰 처사 (운전가능)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 50세 이상, 경기도)
010-5264-8312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인연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松根油 송근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부적 기름으로 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탐욕에 비유될 만큼 격렬한 불길은 없으며 분노에 비견할 만큼 강한 악력(握力)은 없으며 어리석음에 견줄 만큼 촘촘한 그물은 없으며 애욕보다 더 빠른 물결은 없다.

- 법구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도심 속의 땅넓은 사찰◀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4,000여평 ※일부 주거지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전망
- 가액 : 6억 8천만원

▶ 탁트인 바다전망과 전통목조사찰◀
- 위치 : 부산 신항만 부근, 거가대교 입구
- 총부지: 240여평, 1만여세대 대단지아파트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목조산신각(7여평)
- 가액 : 6억 5천만원(전, 월세 가능)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이박사 추천 충주시 부근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45㎡, 요사채 75㎡, 지장전, 산신각
- 토지 2600㎡, 면소재지 부근
- 50년 사찰, 전망좋으며 위치좋음
- 시설깨끗하며 정원 휴식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 부지 : 1400평 ◎ 대지 : 60평
◎ 법당 : 50평,목조 외 ◎ 법당 : 30평
◎ 요사 : 50 외 ◎ 요사 : 60평
◎ 양도 : 38억8천 ◎ 양도 : 9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별장같은 사찰
- 위치: 동도사 IC - 보라CC 입구
- 총부지 : 402여평(주차장 완비)
- 건물 : 법당 25여평, 전원주택 5동
- 가액 : 5억 2천만원 (대출 2억 7천만)

직통 010-9906-3631 혜관
제 26320-2015-00027호
연산중개사(김의순)
부산 북구 만덕 2로 17번길 1, (다산타워)504호

면목동(급)포교원
- 3천만원에 월 170만원 시설비 방문 상담 요함
- 5층 법당 약 200㎡ 역세권, 대로변 건물
- 완벽한 시설완비, 즉시법회 가능함 전철역에서 5분이내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200평,건평1층,요사채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황토방2개,화장실,주방,욕실
- 삼존불, 탱화, 인등, 영가단, 법륜대, 집기 일절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3억8천(융자1억3천만원)
- 급 양도, 방문요, 즉시법회 가능

010-3186-036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포교원]
● 대지 : 120평	● 대지 : 400평	● 위치 : 안양
● 법당 : 25평	● 법당 : 30평	● 총평 : 65평
● 요사 : 30평	● 요사 : 25평	● 법당 : 25평
● 양도액 : 12억	● 가액 : 6억5천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시설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1,500만, 월 80만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010-3112-0480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마을버스 018번 정류장 옆
- 평수60평, 법당25평, 방3개, 공양간
- 삼전불, 삼성각, 용왕전, 후불탱화
- 에어컨5, 화장실 2칸, 도시가스 영가단4층 중 3층 법화 가능, 소임 관계
- 가액 : 2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795-1566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관음전,종각
- 요사채,공양간 외 건물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4천(절충) (스님건강문제로)

010-4628-5699

도심속의아담한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대출 ~7500만원~ + ~1억 3천5백만원 합 가액 : 2억 1천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송천동 311-30호 2층
- 미아역 5분거리 약 30평
- 가액: 2,000만원 월 40만원

010-8887-9894
02-986-5134

암자 안내
- 위치 :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內
- 장군봉, 임금봉, 신선봉, 천왕봉, 문필봉 동학사를 바라보며 앞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신도안의 기운이 뻗치는 위치에 자리한 백만불의 조용한 암자
- 인연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
- 가액 : 13억

010-9228-6747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500만원
- 법회 즉시 가능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010-7589-960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동 8호선 암사역 5분거리 대로변
- 시설 : 삼존불, 약사여래, 신중, 후불, 탱화 등
- 2층 전체 48평,법당,방2칸, 주방, 화장실, 욕실, 베란다 (몸만 와도 언제든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80만원
- 꼭 하실분 시설비 1000만원

010-2282-8885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부지 157평, 법당 25평(목조)
- 요사채 1, 공양간 1
- 가액 : 3억

010-3508-7710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근교(지하철 1Km 부근)
- 총부지 320평
- 법당 : 목조건물(외 7포 내 11포) 32평
- 삼존불(목불), 원불(목불), 삼성각, 저온창고, 실내 외 주차장
- 요사채 : 목조건물 1,2층 100평
- 평생 사용가능한 땅 1,000평
- 가액 : 22억 5천만원

010-3561-433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산사 새벽시장 뒤 (서감초등 부근)
- 4층 건물에 2층
- 건 60평 포교원
- 법당 완전 구비, 즉시 입주
- 가액 : 1,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7570-205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 (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현재 법회 중,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
- 불단, 신중단, 영가단 원목 제작 (90평)
- 요사채2, 서재1, 공양간1, 종무소1
- 가액 : 3천만원 월 100만원

010-5292-1090

임법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성당시장 약 5분거리
- 평수 : 대지 약 47평, 건물 약 27평
- 가액 :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5387-6767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 법당: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목조 기와 7평(단청, 30년됨)
- 요사채: 철재스레트 30평,방5개, 주방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임야 : 50평
- 가액 : 1억 8천

010-3875-6305
041-759-0592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익산시 석기길
- 대지 536㎡, 텃밭 661㎡(별도)
- 인법당, 주방 및 종무소1, 요사2동
- 삼존불(동불), 인등 300등
- 현 법회중(걸망만 메고 오세요) 해우소4, 원거리 소임관계
- 가액 : 9천 8백만, 전세 7천 가능

1899-1042
010-3679-1080

대형포교원(도심사찰) 안내
새로운 신도 포교하기 제일 쉬운 곳
- 위치 : 울산 중구 학성동 432-206
- 규모 : 3층 건물 2,3층(약 130평) 옥상활용 가능
- 2층 : 공양실, 종무소, 대중방 3, 스님 친견실, 스님 처소, 화장실 2
- 3층 : 대법당, 지장특별기도실,산신각, 화장실
- 가액 : 5천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3,000만원(일부 조정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6429-5076

(급)암자 같은 포교원 안내
- 경북 고령군 시설특 A급 몸만 오시면됨
- 법당1,삼존불 완비, 스님방1,거실1, 주방1,옥실1,창고1,원두막1, 보일러실 별도, 마당 넓고 조용한 한옥단독주택 약 25평이며 주변 주차공간 많음
- 비구니스님 오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 가액 : 200만, 월25만원 시설비 1,350만원. 조정가능
- 외국유학 관계로 급 양도

010-5807-245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전철에서 5분
- 몽땅 2억(조정가능)

010-8861-1785

포교원(급) 안내
- 위치: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 1호선, 동묘역 2번, 3번 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 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 2억7천안고 양도 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미천면 미곡리
- 평수 : 7,465㎡(2,258평)
- 가액 : 평당 28,000원

010-3191-668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시지동
- 3층건물 3층
- 법당 40평(순금도금 삼존불, 신중탱화)집무실,공양간,화장실
- 지하철2호선 고산역 1번출구앞 대중교통원만(버스노선 다량) 도심아파트 밀집지역(포교원활)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천5백만원, 월70만원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010-3502-26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 부지 종교용지 1,700평, 산 4,130평 합계 5,830평
- 대웅전 35평, 요사채 2층 100평, 지장전 45평
- 양평시내(남한강이 보이는 전망 양호) (매수, 전세, 월세)
- 매수 시 계약 후 분할 납부가능

010-4225-0012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북 일월산
- 자락이 아담한 곳, 1급수 청정지역 앞마당 계곡물 흐르고 산기운이 솟는자리
- 땅 500평 법당자리 토목공사 완료, 20평 허가
- 요사채30평, 현대식 목조건물 완공 2년반
- 밭 2필 500평, 개인사정 급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뒤편 산이감싸고 있는곳)
- 대지 140평, 건평150평, 3층건물, 법당30평, 삼존불, 신중, 지장단, 영단, 법단, 단청 방6개
- 공양간, 창고, 차고, 다용도실, 화장실 3개
- 시설완벽 몸만오시면 됨 8m 도로접 초등학교 100m전철, 버스 300m
- 가액 : 15억(절충가능) 소임관계로 급 양도

051)754-3375

사찰, 포교원 정보를 내 스마트폰에서...

Temple Kok



템플콕 출시기념! 무료이용 이벤트 ~ 9월 30일 까지

전국의 사찰, 포교원, 암자, 기도터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 매물도 올리고..
(매물의 상태를 직접 사진으로 확인하고 지도검색을 통해 정확한 위치도 확인)

필요한 매물을 스마트폰에서 한 눈에 검색하고 바로 확인하고,
내 매물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올려서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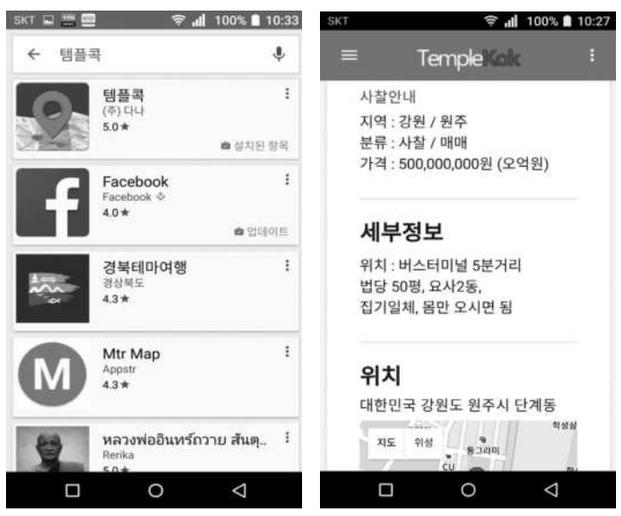
▶ 지역별, 항목별(사찰, 포교원, 암자, 토지임야, 납골당 등), 가격별로 검색 가능 합니다.
▶ 매물 담당자와 직접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용안내

1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템플콕'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2 간단한 회원가입 후 본인의 매물 등록
3 게시 기간에 맞는 요금 결제
4 입력한 매물 게시(시작)일 - 오후 7시 등록(관리자)

※매물등록은 매물보기에서 다른 매물 입력내용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문의 02)2004-8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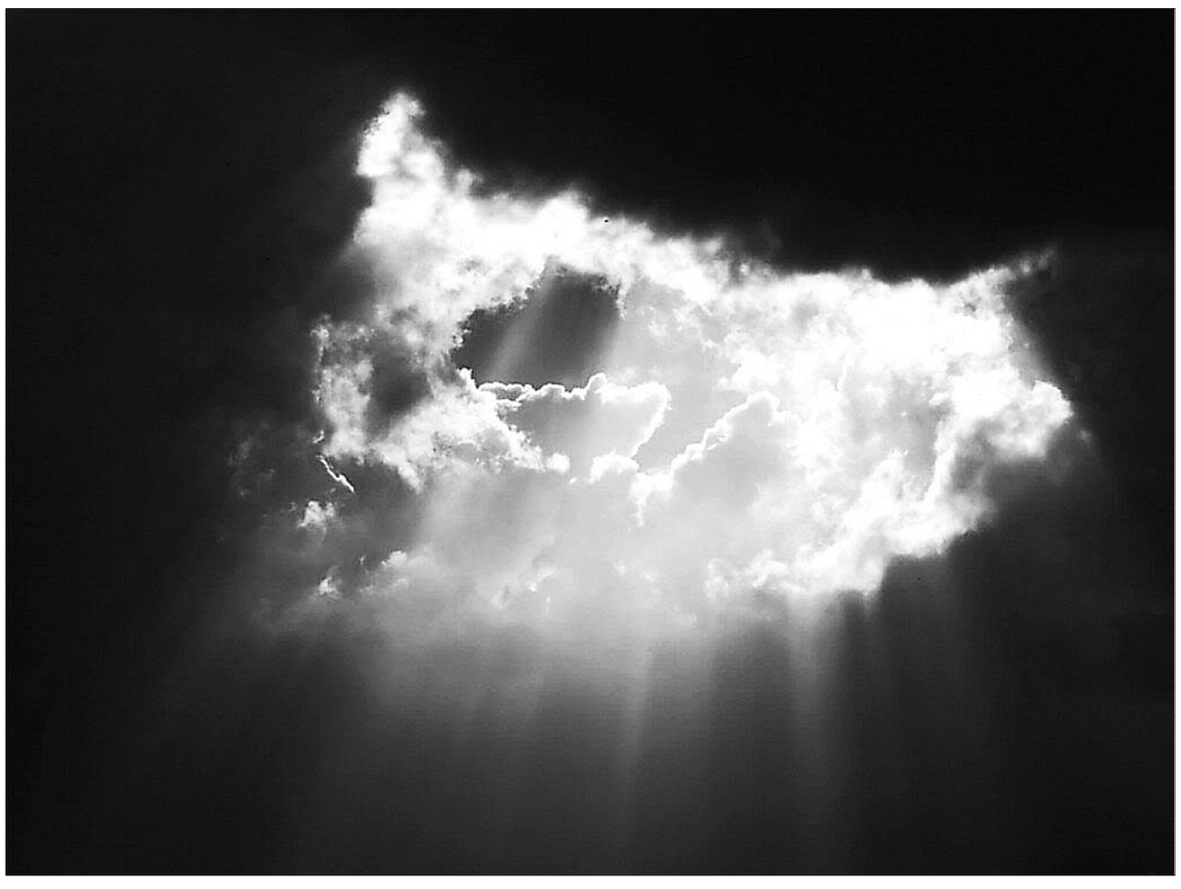
주의 : 템플콕은 사찰 및 포교원 등 수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호 직거래하는 방식이므로 거래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쵸 C트룽파 린포체

〈3〉 바람의 말을 타다 ㊦

어둠 속에도 빛은 있다



매순간 함께하는 신성함

우리가 함께한 여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우리의 샴발라국을 실제로 어떻게 항상 유지해나갈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항상 통찰을 적용하면서 끊임없이 수행해나갈 수 있을까요? 바람의 말을 깨우고 샴발라 전사의 신념을 깨어 있게 하는 것이 수행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러야 할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경험 또는 신성함을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신성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나 넘어야 할 고비는 예고 없이 불쑥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온 순간에도, 무조건적인 신성함이 항상 빛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실제 수행을 통해 신성함을 얻어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신뢰의 불꽃과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본래의 금강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신성한 세계를 경작하는 것은 모든 현상적인 경험이 샴발라 깨달음의 일부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또는 삶의 구조에서 기본적인 깨달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신성함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신성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볼펜을 사용할 때나 머리를 빗을 때나 샤워를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모든 것에서 힘과 위엄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삶의 작은 디테일 속에는 더 큰 비전과 전사정신의 위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매 순간 함께합니다. 이것이 신성함의 정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상황에서 어려움과 비참함을 느낄지라도 전체 세상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깨어 있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도전과 좌절이 삶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좌절과 도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성은 항상 자신 안에 신성함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더 탐험해 들어가면, 신성함 안에 유머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 경우 유머는 세상을 조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쁨과 가벼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함의 이해는 실제로 공포와 부정성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와 신성함을 받아들이면 우리 존재는 비옥해집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러붙으려 해도 매우 매끄럽고도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공부의 시작 '받아들임'

신성함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하는지 보여주며 추악한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며 다른 사람이 자유롭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세상이 아주 밝게 빛나기 때문에 윤회의 세상 또는 저물어가는 태양의 세상을 속속들이 매우 분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전사가 천하무적이 되는 이유는 반대되는 세상을 매우 투명하게 전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미 다른 세상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전사는 공격당할 수 없고 도전을 만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신성함을 깨달으면 더 큰 외로움이 옵니다. 그것은 당신만 당신의 세상을 아는 느낌입니다. 당신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짝사랑의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성함의 원천입니다. 다정함이 당신의 경험을 균형 잡히게 하고, 그래서 당신은 갑옷을 입고 가슴을 치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사에게 있어, 지혜를 선언하는 것은 항상 부드러움과 슬픔을 동반합니다.

위대한 동쪽의 태양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해야 그 비전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첫 걸음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전사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받아들임과 탐구는 두려움과 많은 질문들을 불러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공부하는 재료가 되고 우리의 기본적인 작업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으며 두려움과 함께해야 한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두려움과 머뭇거림을 넘어 한 걸음 내딛습니다. 우리는 여정을 선택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사정신을 더 발전시킵니다.

우리는 전사의 길 위에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과 기술은 바람의 말 또는 룽타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바람의 말을 불러내는 과정은 신성한 세계인 전사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자세로 자리에 앉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사의 자세를 취하면 주변에 세상이 펼쳐짐을 느낍니다. 다음 단계인 위대한 동쪽의 태양을 숙고하면서 당신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육체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생기고 당신이 거의 위대한 동쪽의 태양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빛과 광채를 느낍니다. 당신이 이것을 느낄 때, 에너지를 만져야 합니다. 빠져들거나 과장하지 말고 그저 만지십시오.

그러고 나면 더 큰 에너지와 연결됨을 느낍니다. 그것은 개인적 현존 또는 사회 차원을 넘어서 있는 무엇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전사정신의 전통이라는 유산을 두드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전사의 왕과 여왕 그리고 당신이 바람의 말을 불러낸 것을 증명해 줄 증인 또는 판관으로 초대된 샴발라 혈통의 환영을 받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든 전심을 다하고 세심해지며 투명하고 실제적이 됩니다. 그것은 공(空)의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이 공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참된 공, 참되고 강력한 상상 또는 시각화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탕이 준비되고 손님과 증인이 초대되면, 당신은 실제로 바람의 말을 불러내거나 기를 준비가 됩니다. 말은 인간이 잡고 싶어 하는 야생적인 꿈을 대표합니다. 바람의 말을 불러내는 과정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즐거운 마음,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을 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거기에는 슬픔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물론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말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계속해서 최상의 마음 상태로 말을 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슬픔의 진정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당신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말을 아주 잘 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생각은 그러한 본성이 좌절되어 옵니다. 당신은 진실과 진정성, 깨달은 전사의 상태를 붙들거나 구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묶여 있던 마음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경험을 확신하기 위해 사례를 찾거나 논리를 세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의심을 넘어선 진정한 슬픔과 기쁨의 최상위층을 경험하는 강력한 감각이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는 아무런 시끄러움이 없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멈춥니다. 잠재의식적인 마음을 만들려는 의도는 그 시점에서 문젯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상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흘러가도록 놔둡니다. 자연스럽게 강력하게. 당신이 온전히, 완전히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도전과 좌절은 삶의 이치
극복하며 '참본성' 깨달아
감사·신성함 수용할 때
내면 부정성과 두려움 사라져

세상과 함께 웃고 울어라

바람의 말을 불러낸 결과는 부서진 심장을 가진 우주의 제왕으로 상징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또한 부서진 심장 때문에 초라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많은 존재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타게 되면, 우주를 정복할 것 같은 무엇을 얼핏 보게 됩니다. 이것은 힘과 부를 얻고 다른 사람을 평정한다는 점에서의 우주 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심리적입니다. 우리는 전체성과 실재의 느낌에 대한 궁극적 경험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당신에게 정복해야 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정복됨으로써 필요한 것을 정복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근본적인 참본성, 진정성, 그리고 두려움 없음을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합리적이지만 당신이 샴발라 지혜에 다가갈수록, 당신은 이러한 가르침의 말도 안 되는 측면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앉아서 명상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 당신 자신에게서 그리고 사회에서 수많은 문제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당신 자신이나 세상을 부정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을 등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에 매달리는 작은 마음을 포기하고, 두려움과 두려움 없음을 통해 삶의 여정을 계속할 때, 당신의 세상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샴발라 전통에서 전사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공격이나 전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사는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만큼 충분히 용맹한 사람입니다. 용기는 삶의 매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엄마의 젖꼭지를 빠는 걸 두려워하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의 세상과 연결되도록 그 아기를 도와야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영양 공급의 원천을 거부하지 않기 위해 전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사가 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함축되어 있지만,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정의는 참본성을 껴안는 것입니다.

샴발라 전통에서, 우리는 심장이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많이 웁니다. 우리는 참본성의 입장에서 싸울 만한 가치라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물어가는 태양과 싸웁니다. 우리의 장애물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전사의 울음은 다른 종류의 울음이여 전사의 전투는 다른 종류의 전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공격성을 갖지 않은 전사로서, 당신은 두려움이 없고 선합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당신은 절대 실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즐겁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가장 큰 어둠 속에도 빛은 늘 있습니다. 그 빛은 미소와 함께 옵니다. 샴발라의 미소, 두려움 없음의 미소, 인간 가능성의 최상 중의 최상을 깨달은 미소입니다. 모든 가르침들은 샴발라의 가장 뜨거운 피가 흐르는 당신들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류 가족입니다. 우리를 함께 웃고 함께 울게 하십시오. 〈끝〉

이 글은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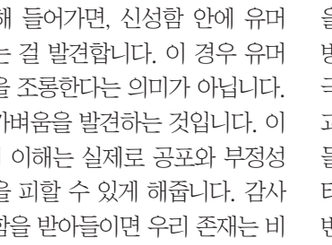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입종 및 사암등록 모집안내

법인등록번호 : 205421-0000520

대한민국의 승려라면 누구나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으로 병들어 가는 한국 불교를 바로 잡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를 펼쳐 나갈 사찰 및 각 지역 교구장, 종도님을 널리 모십니다.

사찰등록신청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 인감날인
■ 임대일 경우(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주지 임명 관련서류

■ 서약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3매 (여권사진 규격)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개인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총무원

전라남도 영암군 산호리 614번지 ☎ 066)222-6366
대구시 동구 파계로 120길 91-1 자인사 종무실
010-6399-0020 / 팩스 053)984-1129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서래(西來)의 한 곡조

"서래의 이 한 곡조 / 천고에 아는 이 없네 / 그 여음에 하늘 밖으로 올라가니 / 바람과 구름이 이 소리에 화답하네 – 서산 청허 스님의 〈아름다운 가락은 하늘로 올라가고〉"

온종일 그 서래의 한 곡조에 마음을 뺏기고 저녁이 올 때에 밖으로 나가 앉으니, 산마루 나무 곁으로 바람이 지나고, 서쪽 하늘엔 흰 구름 몰려드네. 노장의 공부를 함부로 읽었을까. 바람에도 구름에도 아는 바 없이 저녁만 깊어갈 뿐, 소리 이전의 말(聲前一句)이란 찾을 길이 없네. 산마루엔 바람이 쉬지 않고 하늘엔 구름이 가득하니, 서래의 곡조만 점점 분명해지는 이 저녁을 어찌할까. 흔들릴 물고기도 없이 처마 끝에서 풍경만 흔들고 있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행복한 가정 시스템

한 지붕 아래 '한 마음 살림' 차려라

가족에도 시스템이 있다. 부부 간에는 부부 간의 시스템이, 부모자녀 간에는 부모자녀 간의 시스템이 있다. 행복한 가정, 유쾌한 가정, 자존감이 높은 가정은 의도하지 않아도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

가족 시스템이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이 곧장 사회관계, 대인관계의 기초 시스템이 되기 때문이다.

가족 시스템은 한 마디로 그 가정 안에 흐르는 '장력(場力)'이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그 가정에 임하는 마음 자세이자 가족 구성원 간에 맺은 신사협정이기도 하다. 때문에 가족 시스템이 붕괴되면 그 집안은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된다.

가족 시스템은 3가지 기초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대하는 마음 자세이다. 부부 또는 부모자녀 간에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100퍼센트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빈 마음 그릇이 필요하다. 상대를 온전히 안아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텅 빈 마음 즉, 허심(虛心)을 말한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빈 그릇처럼 먼저 내 마음을 온전히 비워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의 말을 100퍼센트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 상대방과 말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 그릇은 내 생각과 느낌으로 꽉 차 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상대방의 말을 내 마음속에 완전하고 오롯하게 담을 수 없다. 그때부터 상대방과 나 사이에는 이상기류가 흐르며 오고가는 생각과 감정이 초점을 잃고 흐트러지게 된다. 그 결과 오랜 대화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켜 순식간에 관계 먹구름이 낄 수도 있다.

내 마음 그릇에 오로지 내 생각만 담고 있다 보니 나는 내 생각에만 빠져있고 상대방도 자신의 생각만 전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 그릇에 자신의 생각만 담고 있으니 본의 아니게 관계 충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먼저 내 마음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 관계 충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사소한 일로 부모자식 간에, 부부 간에 감정이 부딪히게 되고, 때로는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다며 따로 마음 살림을 차리게 돼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기초 시스템은 경청이다. 경청은 내가 앵무새나 녹음기가 되어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할 수 있을 만큼 온 정신과 귀를 집중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말한다. 사실 성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경청만큼 중요한 기초 시스템은 없다. 내 마음 그릇을 아무리 비워도 상대방의 말을 정성을 다해 듣지 않으면 내 마음 그릇에 상대방의 말은 고이지 않는다. 그 결과 내 마음 그릇에서 흘러나가는 말 또한 정확하고 명료하게 흘러나가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사소한 오해가 쌓일 수 있고, 대화의 초점도 흐려져 결국은 피곤한 인간관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기초 시스템은 그때 그 상황에 흐르는 느낌(감정)과 주제에 충실 하는 것이다. 그때 그 상황에 흐르는 너와 나의 정서와 주제에 온전히 몰입할 때 진정한 소통과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형성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순간의 느낌과 주제에 몰입하지 못한 채 잡념을 떠올리다가 줄거리와 주제를 놓치고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자기 스스로 파놓은 느낌과 감정의 함정에 빠져 분란의 불씨를 제공하게 된다.

가정, 대인관계 기초 시스템

허심·경청 자세 유지해

행복한 가정생활 꾸려야

사회도 함께 행복해져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등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세 번째 기초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많은 부부와 부모 자녀들이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느낌과 생각에 깨어있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 주장하다보니 마음이 통하지 않게 되고 서로에게서 벽만 느끼게 된다. 부부간에, 부모자녀 간에 벽과 단절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이 세 번째 기초 시스템 때문이다.

이 세 가지 가족 기초 시스템은 건강한 가정은 물론 건강한 대인관계와 건강한 학교생활, 건강한 직장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관계 시스템이다.

인간관계를 가질 때마다 먼저 내 마음 그릇을 완전히 비움으로써 상대방의 말을 100퍼센트 수용할 준비를 마친 뒤, 온 정성을 다해 상대방의 말과 감정에 마음을 기울임으로써 내 마음 그릇에 그 뜻과 느낌을 새긴 후, 초점과 주제에 어긋나지 않게 내 뜻과 감정을 소통하고 나누면 그 어떤 인간관계도 성공적인 인간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학교공부나 직장업무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경우 수업시간에 빈 마음으로 내 공부 그릇을 완전히 비운 뒤 선생님의 강의내용에 온전히 깨어 온 정성을 다해 경청하고 몰입하면 우등생이 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우등생이 된다.

직장생활도 같다. 업무에 임할 때 내 마음 그릇에서 먼저 내 생각을 비운 뒤 온 정성을 다해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그때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에 깨어 몰입하다보면 저절로 해결책도 나오고 승진과 연봉도 저절로 앞서가게 된다.

가족 시스템에 이 세 가지 기초 시스템만 잘 실천하고 살면 아무리 힘든 부부나 부모자식 사이라도 머지않아 유쾌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탈바꿈한다. 더불어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또한 눈부신 자리로 자리매김된다.

저명한 가족힐링 전문가인 버지니어 사티어는 '가족은 세상을 압축해놓은 소우주'라고 했다. 모든 관계의 첫 출발점은 가족이고, 가족 시스템이다. 그 가족 시스템이 번지고 번져 이웃이 되고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고 한 울타리 우주가 된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동심원에 내 가족이 있고, 그 동심원 한 가운데 초점에 내가 있다. 내가 먼저 내 기초 인간관계 시스템을 바로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다.

나 혼자만 행복해서는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과 강남역 사건과 구의역 사건에서 겪었듯 내 이웃과 사회와 국가가 불행하면 내 삶도 자연히 불행해진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초 관계시스템이 바로 그렇게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해지는 관계 페달이다. '하나의 모래알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고 읊었던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처럼 가족이 세상을 압축해놓은 '소우주'인 것은 그 때문이다. 하나의 모래알인 나와 한 송이의 들꽃인 우리 가족 속에 내가 먼저 뛰어들어 내가 먼저 천국을 건설해야 한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 선 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대행 스님

이 공부하는 데는 대승이다 소승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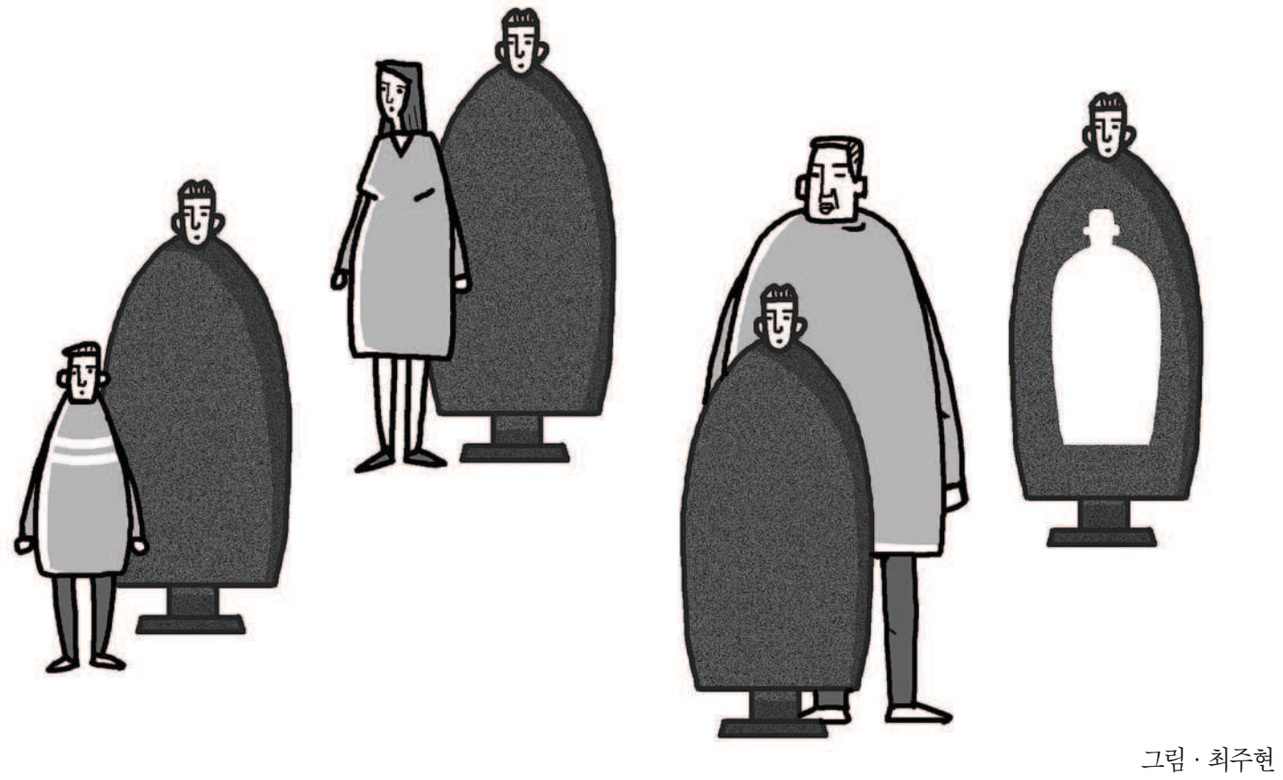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대승이 옳은지 소승이 옳은지

질문 대승불교 교단과 소승불교 교단 사이에는 교리의 면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불제자로서 수행의 기준이 다르고 수행의 목적이 다름으로 인하여, 각 교단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배척하며 이단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마음공부를 해 나가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비유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조 홍인 선사가 『금강경』 강의를 하시니까 육조 스님께서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했죠. "불성이 스스로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마음이 내 불성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불성이 스스로 끄달리지 않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체 모든 생활이 걸리지 않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불성이 스스로 일체 만법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요건 내가 알아듣기 쉬우라고 조금 더 보태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성이 스스로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랬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즉 이 세상 이치를 종합해서 말하자면 삼천대천세계 우주 천하가 다 근본이 있습니다. 그 근본이 어디에 직결돼 있느냐.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천지의 근본은 마음의 근본이니라.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치의 진리는 인간의 마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마음공부를 하는 데는 대승, 소승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하면 잘살고 못사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듯이 '사람' 하면 그냥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좀 전에 육조 스님 말씀에 나왔듯이 우리 참인간의 마음,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그 마음,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어떠한 대(對)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게 뭔지 일러 드리겠습니다.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한 것은 무슨 뜻인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 생활을 하는 것을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아내가 "여보, 인제 오세요?" 하면 남편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아이가 "아빠!" 그러고 들어오니까 남편 됐던 건 없어지고 금방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 아비야! 인제 오니? 나 좀 보자." 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또 어머니한테로 가니까 고만 아들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화하는 세상입니다. 화해서 찰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정되게 보는 거, 고정되게 듣는 거, 고정되게 가고 오는 거, 고정되게 먹는 거, 고정되게 만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이 고정되게 머물러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진리고 도(道)요, 길이고 참선이고 참입니다. 이 공부하는 데는 대승이다 소승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간편하게 얘기합시다. 상을 차려 놓는 데에 접시도 있고 종지도 있고 사발도 있고 대접도 있고 큰 접시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시겠으니까 상에다가 온통 다 차려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승, 소승이 있을까요? 여러분! "종지는 안 쓸 거다. 대접만 쓸 거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지만 써야겠다. 이게 옳다.' 이런다면 종지만 가지고 어떻게 상을 차리며 '대접만 쓸 거다.', '큰 그릇만 쓸 것이다.' 한다면 큰 그릇만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며 '접시만 쓸 것이다.' 한다면 접시만 가지고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이걸로 비유합시다.

일체 만법을 일심으로 들이고 낼 때에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느니라.' 하는 것은 걸리지 않게 몽땅 버려서 몽땅 갖추어 가지고 있게 만드는, 실천궁행하는 법입니다. 실천이 아니라면 부처님이 정법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론으로만 경을, 팔만대장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위로 꿰고 옆으로 꿴다 하더라도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그릇 마시는 것만 못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거는 이차적인 문제죠. 진짜 배고프고 정말 목마르고 갈증이 날 때는 냉장고 문을 턱 열곤 한 그릇 쭉 마시는 겁니다. 그런 뒤에야 죽고 사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니 그건 이차적이죠.

목마를 때 그냥 마시는 것이 그대로 찰나의 행이요, 정법이요, 중용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는 것이 바로 불법이요, 참선이며, 그대로 행선입니다. 아주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거기 무슨 이론이 들어갑니까? 거기 무슨 이의가 붙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앉을 게 있습니까? 이것을 잘 판단해서 여러분이 자기 몸과 가정과 사회, 국가는 물론 세계, 우주까지도 한 손에 넣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원통력을 길러서 원심력으로써 행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즉 말하자면 '아내다' 하면 벌써 가설이 된 거고 '자식이다' 하면 가설이 된 겁니다. '남편이다' 하는 것도 가설이 된 겁니다. 전선의 가설이 됐으니까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거기까지 다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만법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간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따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시비가 왜 붙습니까?

불법과 세간 법을 둘 아니게 융합하려면

질문 저는 진리의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인간의 정치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한 부처님 법에 근거해서 인간의 그 정치 사회가 조직되거나 구성되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부처님 법과 인간 사회의 법이 둘이 아니게 융합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게 물론 둘이 아니죠. 다 둘이 아니건만 모든 사람이 막이 막혀서 정신계를 조금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막아 놓고 생각을 못 하니까 일이 그릇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옛날에 지구의 생명들을 물로 죽게 하고 불로 죽게 했지만 인제는 너희들의 마음먹는 대로 되느니라. 마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살게 하느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야 상대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부터 알아라. 그래야 남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일체제불의 마음도 알 수 있느니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죠, 전부가. 그런데 우리들의 법은 그냥 법이라 하고 막 떠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법은 공법이에요. 이 몸 하날 가지고도 공법이고, 모두 전체가 공법이고, 공생이고 공심이고 공체고 공용이고 공식이에요,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그르게 돌아갈 수가 없는데, 사람들을 보세요. 이렇게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들 안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국사로다가 스님을 청했는데 선지식, 즉 말하자면 마음과 근본, 그것을 깨치셔서 이끌어 가는 그런 분이라야 바로 국사로 모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국사를 모시고 살 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명예, 이익, 이런 것만 가지고선 모두 대통령을 하려고들 하시니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사람들은 다 그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아, 그 사람이 돼야 우리한테도 좋고 그렇다." 하고 찍거든요, 또. 전체를 보질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를 인제 때에 따라서 우리들이 생각나는 대로 자꾸자꾸 관하고 하면, 그대로 또 좋게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살림에 따라서 다 벌어지고 헤어지고 하는 거니까요.

몸과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질문 얼마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많이 다치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불교에 관심이 많아 불법의 이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득을 했다고 여겼는데, 막상 내 몸이 불편하게 되니 괜히 짜증도 나고 신경질적이 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정말 내 몸과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 수행자들은 그런 이치를 알아도

☞ 26면으로 계속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23274964492600

■ 강의내용 : 4 ~ 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도무지 잠이 안와 !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 푹자지 못해 !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자기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포기해서 일임시키라!

☞ 25면에서 계속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 보지 않고는 그 도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기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거와 모르는 거를 다 그 주인공에 일임시키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거길 믿고 거기에 감사하고, 들이고 내는 것도 거기다가 들이고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는 동시에 내 이 육의 기능은 모든 것을 거기에서, 즉 말하자면 감독이 되는 거죠, 모든 게. 기능의 감독자로서 전부 응용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인체 안에서 모든 생리적인 작용을 하는 거를 다 관리인으로서 하다가 보면 바로 참 제작자가 되는 거죠. 배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배역으로 이 안에서 생리적인 작용을 하는, 즉 말하자면 곤충이 다 나한테는 호법신장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만 사천 털구멍도, 업보가 되려면 그 털구멍 하나에 한 생의 업보가 된다 하지마는 그것이 호법신이 된다면 일분일초도 안 돼서 자기가 항상 다니면서 자길 보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그렇게 그 주인공에 모든 걸 몰락 일임시켜 버리고, 잠재해 있는 자기 실상이 지금 현재 의식과 계합이 된다면 그렇게 좋은 보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으로써 일체 만법을 자기 마음대로 응용하고 참, 하늘과 땅과 상응하면서, 모든 일체 유생 무생과 다 상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둘로 보질 않고 하나로서 다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 안에 들어 있는 곤충의 생명이나 내 큰 생명이나 둘이 아니죠,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겁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겁을 내기 때문에 일임해도 진짜 되질 않지, 겁을 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믿는 게 되거든요. 진짜 자기 이 육신마저도 주인공에다가 내버리는 격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던져라, 던져라." 하는 거죠. "몰락 던져라. 던지면 건져진다."

그러니 업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와 부가 둘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악과 선이 둘이 아니죠. 이게 전부 해말갛게 이렇게, 연기가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에너지가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구름이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들이. 생각 내기 이전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거를 조절을 하는 거는, 빼 쓰고 잠그고 하는 거는 마음, 바로 지금 내는 마음, 이거죠. 그것을 조절하려면 나도 물질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그림자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참나에게 모든 걸 일임하는 거죠. '네가 형성시켰고, 네가 움죽거리게 했고, 네가 생각나게 하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탁 맡겨 버리세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거기다 요구를 하고요. 감사하는 것도 전체니까, 전체가 돌아가는 거니까 감사해도 거기 하나만 감사하면 전체가 다 감사를 주고받고, 함이 없이 우주간 법계에서도 다 상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것이 이렇다 이것이 이렇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팔만대장경이 이 세상 돌아가는 진리인데, 어디서 또 찾겠습니까? 항상 날마다 보고 있는데. 불교가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불교가 생활이고, 생활이 불교고, 종교가 생활이니까. 내가 근본이고,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바로 화두고, 나라는 존재가 있기에 모든 존재가 있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모든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자신의 모두를 갖다가 포기하고, 포기하되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포기해서 일임시키라 이겁니다. 당신께서 형성시킨 거니까. 기계를 하나 만들어 놨다면 기계 만든 사람이 더 잘 고치지, 기계 안 만든 사람이 더 잘 고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이 기계라면 기계 만든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배워서 알고 있는 삼법인(三法印) 중에 '제법무아(諸法無我)'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제법에는 이름하여 붙일 것이 없다.'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법에 이름하여 붙일 것이 없다면 오늘 수행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이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또 '나'라고 할 것이 없다면 업은 어디에 붙은 것입니까?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얘길 항상 합니다만, 여러분이 찰나찰나 아버지 노릇 하고, 엄마 노릇 하고, 자식 노릇 하고, 형제 노릇 하고 그러죠? 그렇게 찰나찰나 생활하며 돌아가되 찰나찰나 그렇게 많은 모습으로, 천차만별로 돌아가는데 어떤 노릇 할 때 꼬집어 나라고 할 수 없으니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함이 없이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될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될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자식이 될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이 사이가 떨어지지 않고 찰나찰나 나투며 화해서 돌아가니까, 나라는 걸 이름해서 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했노라. 나는 없노라. 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노라. 나는 한 일이 없노라." 하는 겁니다. 또 나는 여러분한테 설법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쳇바퀴 돌아가듯 남편 노릇 했다, 자식 노릇 했다, 아버지 노릇 했다 하면서 순간순간 돌아가는데 어떤 거 할 때에 남편이 했다고 그러고, 어떤 거 할 때에 아들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니 나라는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고, 자식 노릇 하고, 사위 노릇 하고, 친구 노릇 하면서 여여하게 돌아가는데 어찌 붙을 게 있겠습니까.

공해서 없다는 거를 알면 붙을 게 없을 것이고, 천차만별로 바깥으로 끄달리고 '내가 있다, 내가 했다, 내가 줬다' 하면서 '나, 나, 나' 이러고 돌아가면 그냥 매사에 걸려서 돌아가죠.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먹는 대로 소화가 잘되면 그대로 여여한 거고, 어떠한 거든지 욕심을 내고 먹으면 체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대변이 제대로 나가지 않으니 걸려서 죽습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잘 써서 소화가 잘되면 걸림 없이 돌아가고, 모든 걸 재료로 알고 실천을 해서 체험을 한다면 마음의 발전이 되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고, 과학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창조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내 걸려서 무심의 50% 정신세계는 모르고 물질세계만 알아서 절름발이로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정신세계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어서 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육으로 잡아먹혀야 잡아먹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을 뺏어 먹고 사니까 정신을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그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 수행을 누가 하는지, 내가 없으면서 내가 있는 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궁금한 그것마저 맡겨 놓아 한번 본인 스스로 체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으로 팔만대장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위로 꿰고 옆으로 꿴다 하더라도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그릇 마시는 것만 못합니다.

사실 우린 재밌는 공부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병 증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도 벌써 '어이쿠, 이건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는데….' 하면 벌써 이거 그냥…. 병원에서도 전체 10%라면 3%밖에는 자기가 책정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깐 7%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개를 꺄우뚱꺄우뚱하다가, 자기가 의사로서의, 박사로서의 체면도 있으니까, 무슨 병이다 이러곤 내놓는다는 얘깁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병이다 그러더라도 '아이, 그까짓 거….' 이렇게 하지만, 딴 사람이 어디 그럽니까? '아이고, 이 병에 걸렸으니 인제 큰일 났구나. 시한부 인생이로구나.' 하고선 낙담을 하고 마음으로써 그렇게 될 때, 그 병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병이. 막 바로 그 병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악성이다 이러더라도 '이거는 주인공이 다 해 놓은 거니까 악성이고 나발이고, 없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한다면 그냥 악성이고 뭐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 좀 할 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공부시키느라고 몸도 일부러 아프게도 하고 일부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하고 이런다고요. 그러니 그 재료를 갖고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몸을 함께 수련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질문 한마음 공부는 정신적인 공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 몸은 육체와 정신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단련으로서 단전호흡이라든지 그런 공부를 병행하면 좀 효과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안 됩니다. 단전호흡이라는 것은 육체에 기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좀 더 돕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를 돕는 거지 어떠한 정신을 돕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면 머리로 다 기를 빼지 못합니다. 넣으면 빼야 되거든요. 빼지 못한다면 그냥 정신분열자가 되기도 합니다. 머리로다가 열이 모이면 그냥 피를 토하게 되고 또 정신분열이 되고 그러죠. 이런 거를 무척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마는 한데 모으는 거를 어차피 하려면 마음을 모으지, 단전을 해서 기를 모으지 말라 이거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냥 어디고 마음을 내놓으라고 그런다면 내놓을 거는 없지만,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궁무진한 거죠. 그런데 단전을 해서 잘못돼 가지고 온 선생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조카 하나도 장교거든요. 그런데 머리로다가 열이 나서 그냥 여기가 벌겋게 돼서 인제는 작업도 못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우리가 밥을 먹고도 대변을 못 누면 부작용이 생기죠? 그와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에 그대로 컴퓨터에다, 그전에 과거에 입력이 된 컴퓨터에다가, 주인공이라는 게 바로 그거니까 '주인공! 나를 넘어트린 것도 너니까 나를 일으키는 것도 너다.' 그러고, 일으켜졌으면 '감사하다.', 일으켜지지 않았으면 '일으켜지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맡겨 놓으세요. 이렇게 사는 방법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단전을 한다 하고 구부리고 앉아서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쁜 세상에? 일분일초가 아쉬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참선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가서 일하는 것도 참선이요, 먹는 것도 참선이요, 누운 것도 참선, 자는 것도 참선 아주, 사랑하는 것도 참선, 아, 모두 참선 아닌 게 없는데, 모두들 절에 간다면 무슨 멸치 꽁다리도 먹지 말아야 하고,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하고, 남편하고 자지도 말아야 하고, 뭐 목욕재계해야 하고, 아침에 또 백팔 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죄 굶주려 놓고는 그냥 가는 거야, 저 혼자. 허허허. 이게 가정을 이룩하는 부부입니까. 가정을 이룩하고 살아나가는 게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를 왜 모르는지….

"서로 다복하게, 아침에 일찍 나가는 애들한테도, 도시락을 싸 주더라도 그렇고 안 싸 주더라도,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부드럽게 해 줘라. 아무리 나쁘게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평등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라."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식도 잘못 빗나가지 않고, 뿌리를 길러 주기 때문에 그 가지나 이파리는 왕성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그냥 따뜻한 데로 고이게 마련인데 이것은 그저 만나기만 하면 "어이구, 너 어디 갔다 왔니?" 이러고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러면서 그냥…. 남편도 그렇고, 조금만 어디 가서 저거해도 그냥…. 좀 더 사랑하고 믿는다면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여기다 맡기세요, 잘못되지 않게. 주인공은 둘이 아니니까.

가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가설이 돼 있는데 무얼 믿지 못하겠습니까? 가설이 돼 있는데 이 주먹 안에서 어디 가겠습니까? 이 전기 가설 돼 있듯이 가설이 돼 있는데 말입니다. 그쪽 주먹 안에서도 가설이 돼 있고, 이쪽 주먹 안에서도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우린 자가발전소거든요. 그러니 항상 그렇게, 조금 못 미더워도 '주인공만이 빨리 오시게 할 수 있어. 당신, 빨리 와.' 하면 어딘가 모르게 빨리 가고 싶어서 허둥지둥 온다는 거죠. 허허, 그게 자력의 통신입니다.



불자 세상보기

사드배치 결정과 요동치는 한반도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지난 7월 8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 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말쯤 사드배치문제를 최종결정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드배치를 전격 발표한 배경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2270호가 이행 중인 가운데도 북한이 괌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최고지도자들이 나서 한반도에서의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화되자 배치결정을 앞당기고 우리의 대북 핵미사일 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안보우선주의 관점에서 사드배치를 둘러싼 남남갈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여론을 설득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7일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혐의로 첫 제재대상으로 올린 직후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전격 발표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미국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명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으로선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한국의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나아가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한국을 끌어들여 중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일본은 환영했고,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러시아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제 북한 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 촉발한 사드배치문제가 동북아 전략구도에도 영향을 주면서 '한 · 미 · 일' 대 '북 · 중 · 러'의 '신냉전'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중국과 미국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중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 · 중 간의 '신형대국관계'가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냉전시대처럼 양진영으로 나뉘어 본격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반도 사드배치를 계기로 미국이 MD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경우 신냉전적 갈등구조 형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포기를 위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이어 사드배치를 결정함으로써 군사적 선제공격 옵션을 제외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사용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다는 안보우선론의 관점에서 사드배치 결정이 이뤄짐으로써 대중국, 러시아 관계 악화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공언하면서 실전배치를 서두르는 지금, 경제 등 다른 부분에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사드배치를 서둘 수밖에 없다는 안보우선논리를 펴고 있다. 복합적 상호의존성의 시대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해결 노력을 포기하고 군사안보위주의 끝장게임(End game)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드배치문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갈등할 경우 북핵 압박공조를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대북 압박공조가 깨지고 신냉전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바라는 나라는 북한뿐일 것이다. 신냉전구도가 형성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껴안기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는 해법은 이스라엘 방식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 등 대공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드배치로 입을 경제적 손실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앞당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는 것이다.

발언대

삼귀의 '귀의승' 해석 논쟁

한글 삼귀의보다 수행 · 지계에 마음 쓰자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한글 삼귀의 가운데 세 번째 '귀의승 중중존'의 우리 말 번역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아서 몇마디 해본다. 한글 삼귀의가 잘못되어서 현재 특정종단을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 승단이 타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론부터 말하면 승려들의 타락은 승단 및 사회 분위기 그리고 개인의 일탈행위 등에 원인과 배경이 있다. 그것을 한글 삼귀의 가운데 세 번째 '귀의승' 해석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안이한 해석 아닐까?

본인이 소속한 종단이거나 특정 종단이어서 범계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하거나 변호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계를 줄 때에 전계사께서 해주시는 말씀과 율장에 의하면 때때로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되새기면서 지계의식을 일깨우는 것은 바람직하고 권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포살이다. 모여 살면서 스스로의 부족함과 다른 이의 모자람을 살펴서 반성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자자이다.

'삼귀의가 아니라 이귀의'라는 말이나 '스님들에게 귀의하면 안 된다'거나 '승가에, 상가에 귀의한다'는 표현에는 더 살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견해들을 접하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단체인 상가나 승가를 귀의대상인 승보로 하든,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쌍팔배를 승보로 하든 우리말로 옮길 때는 앞의 불보, 법보처럼 다 옮겨 같은 기준과 표현으로 써야 한다고.

우리말 삼귀의 탄생 배경은 더 살펴야겠으나 말과 문장구조, 교리적으로 보아도 잘한 옮김이다. 그냥 스님이나 스님들이 아니라 거룩한 스님. 스님들은 귀의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스님'이 아니라 '거룩한 스님들'이므로 단체를 규정한다는 개념에도 맞는다.

현재의 승려, 승려들, 승단에 관한 지율, 수학, 수행에 관한 비판은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말 삼귀의의 세 번째 '귀의승'를 부정하는 것은 다시 살피기를 한 번 더 제안한다. 한글 삼귀의 문장에는 부처님과 가르침에도 들어있는 '거룩한'이 스님들께도 똑같이 들어 있다.

그냥 스님이 아니라 거룩한 스님 그것도 단수의 스님이 아니라 복수의 거룩한 스님에게 귀의하는 것은 빠알리어의 상가와 견주어 어긋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승려를 포함한 불자들의 지계의식 저하는 다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승속 모두에게 금하고 있는 행위들을 승속 모두 내놓고 하거나 숨기고 하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5계인 '살도음망주'는 승속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지키는 이들이 많지 않는 게 저간의 현실이다.

불교의 구성을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승단 · 승가 · 상가)에 관한 믿음의 종교라고 정의할 때 삼귀의를 온전히 하고 5계를 수지하는 이를 일러 불자라고 한다. 더 나아가 10계를 지니면 예비 승려인 사미, 사미니라 하고 250, 348등 구족계를 수지하는 이를 비구, 비구니라 한다.

초기불교, 상좌부 불교의 입장이든 대승불교, 대중부 불교의 입장이든 자신의 지향점과 소속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그 교단의 계율을 지니고 충실히 따르면 된다.

부디 한글 삼귀의는 그대로 두고 다른 것을 주제로 삼아 비판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대학불교네트워크' 추진에 거는 기대

현직 불자교수들이 각 신행포교 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포교 활동을 일원화하기 위해 '대학불교네트워크'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가 추진하는 '대학불교네트워크'는 침체 위기의 대학생 포교를 되살리기 위한 자구책이다. '대학불교네트워크'는 범종단-대학생-학계-신도회가 긴밀한 소통을 하며 대학생 포교에 나서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다. 그간 종단이나 단체별로 각각 실시하던 포교를 하나의 체재로 집중하자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부산지역에서 교수와 신도회, 사찰 등이 연계해 실시한 대학생 포교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교불련 측도 이를 적극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산 교불련은 현직 교수들이 108 모임을 결성, 매월 1만원씩 후원금을 걷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기법회와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다. 여기에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공양을 지원하고, 홍법사 등 일선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대불련 부산지역 동문회도 후원하며 원활한 대학생 포교가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3년 정도가 지나자 정기법회에 50~60명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참석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교불련은 대학불교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연구하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학불교네트워크는 그간 각개전투로 진행됐던 대학생 포교에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다. 함께 살아가고 운영한다는 의식 없이는 장기적인 조직이 되지 못한다. 교불련이 추진하는 대학불교네트워크가 대학생 포교 활성화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직선제 법안 상정, 허언되지 않길

대중공사에서의 직선제 선호여론을 반영해 지난 6월 중앙종회에서 구성된 총무원장직선선출제특별위원회가 7월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 특위위원들은 11월 중앙종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월 3회의 활발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위 위원들의 열의 넘치는 결정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그동안 대중공사 등에서 직선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던 허정 스님이 위원에서 해촉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허정 스님이 '자의에 의해서 참여하셨느냐'는 문자를 특위 위원들에게 보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허정 스님의 변에 의하면 특위 위원 중 특위 활동에 관심이 없는 스님도 일부 포함됐으며 이에 특위 구성에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스님의 말은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모욕감을 주었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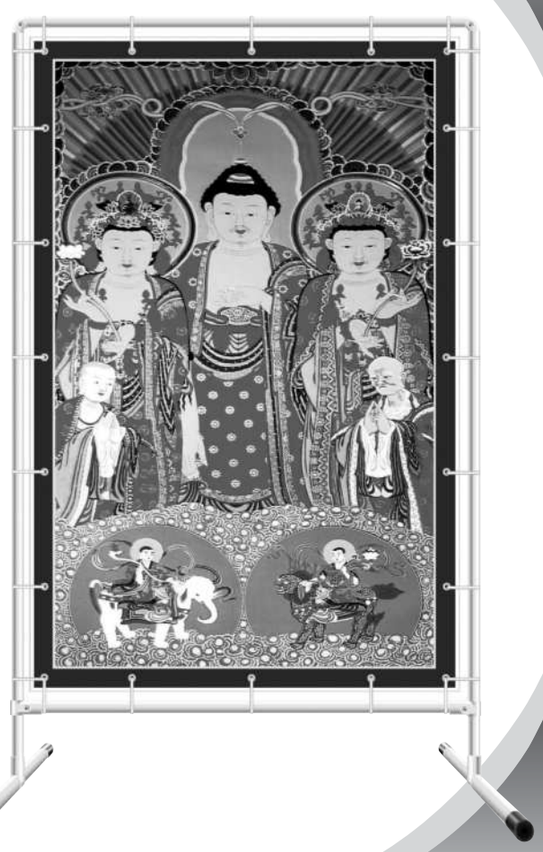
위원장 태관 스님은 "특위에 대한 불신과 어용집단으로 보는 인식 하에 함께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종도들의 직선제에 대한 열망과 특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시 돌아보자면 직선제 특위는 한가지 목표를 지니고 구성됐다. 바로 종회에 직선제에 대한 훌륭한 안건을 성안해 상정하는 것이다. 이미 종회에는 종헌종법특위에서 성안한 염화미소법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선택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직선제 특위에서 남은 4개월 동안 치열한 연구와 논의, 또 여론수렴을 통해 11월 종회에 훌륭한 안건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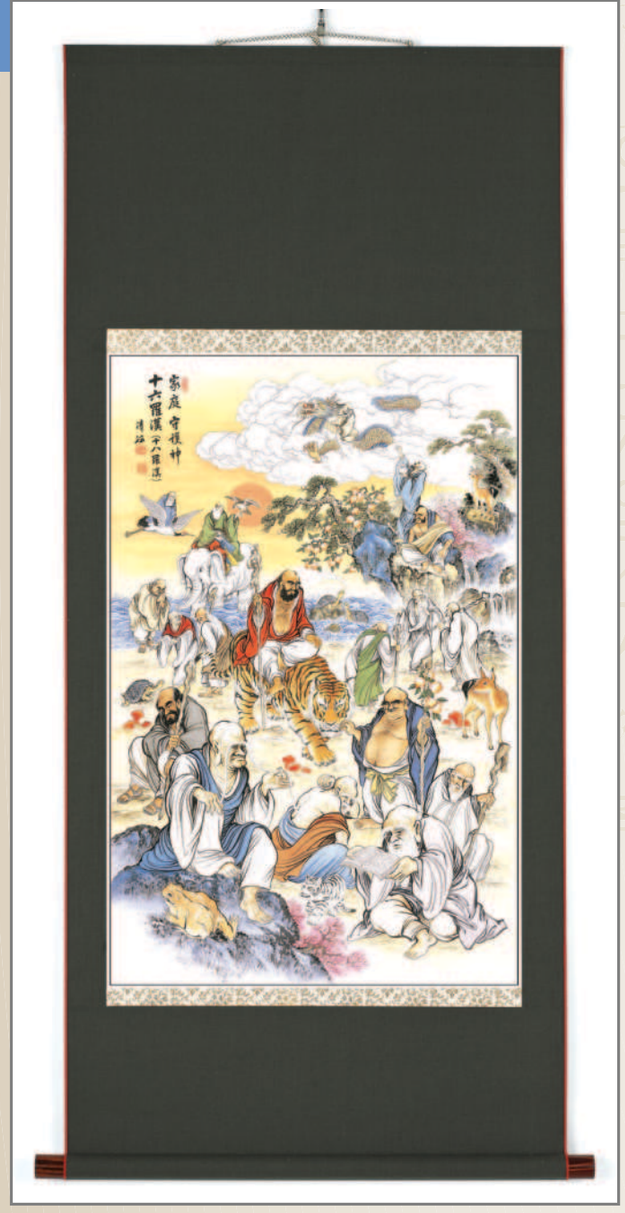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16나한도(18나한), 포대화상도, 달마도

이상 작품들은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 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교카렌다를 통해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직접 세가지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한도(18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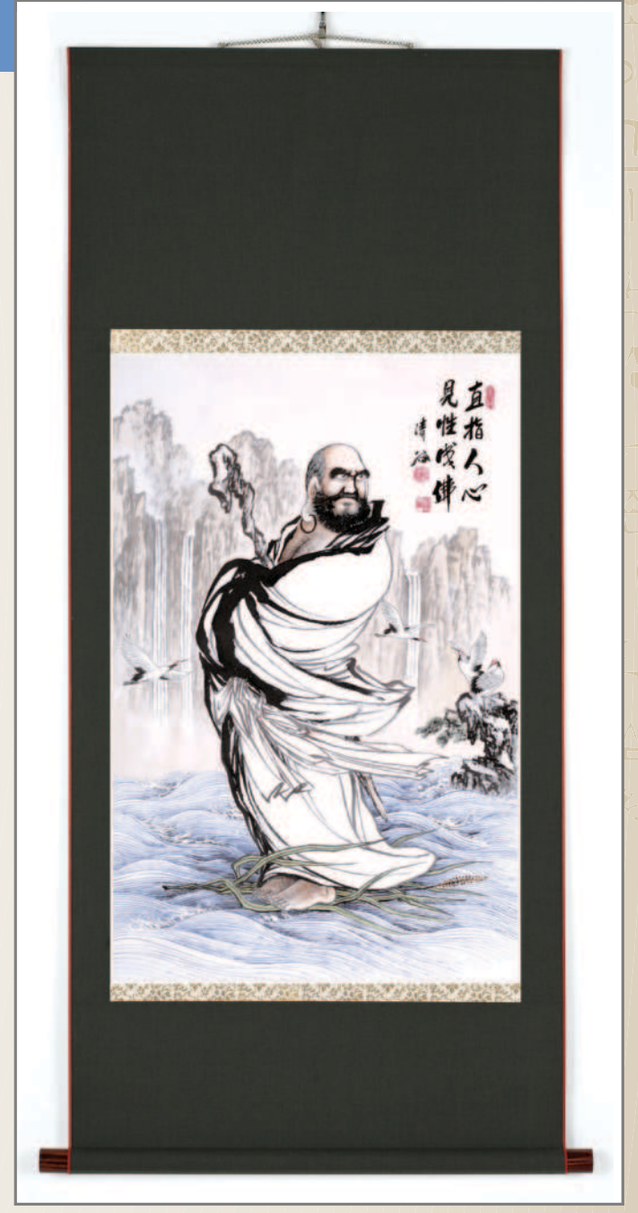
나한(아라한의 준말)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이들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현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 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한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분 한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영원한 수호신으로 모셔 주기를 바랍니다.

포대화상



커다란 포대자루을 메고 다닌다고 하여 포대화상이라고 하며 포대자루 속에는 모든게 다 들어있어서 중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꺼내어 준다고 합니다. 천하을 다 포용할 수 있을것 같은 커다란 배와 언제나 활짝웃는 모습의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생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고 하여 복달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복을 상징하는 대표되는 모습입니다.

달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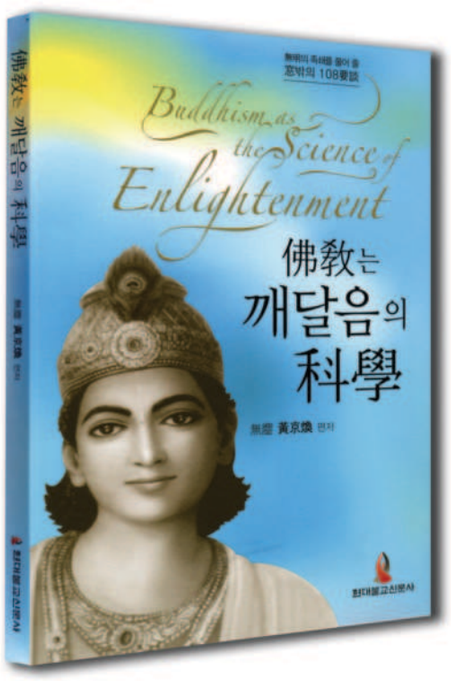
달마대사 께서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유명한 소림사의 9년동안의 면벽 참선은 달마대사께서 부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감히 법접을 할수 없을것 같은 강직한 모습의 달마대사의 모습은 발산하는 강력한 기로 인해 잡귀가 물러나고 삼재가 소멸되어 가정이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 길이 120㎝ × 폭 54㎝ • 가격 : 100,000원

16나한도을 구입하시는 분에겐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보내 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근본불교의 마르지 않는 샘에서 길어올린 **영원한 자유인의 길**



* 무진 황경환 편저 | 신국판 | 280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3

無明의 족쇄를 풀어 줄 **窓 밖의 108 要談**

佛教는 깨달음의 科學

Buddhism as the Science of Enlightenment

황경환은 하늘이 손수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가 펴낸 수상집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의 원고를 읽어 보며 불교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나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가 원효나 의상 같은 고승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칸트나 헤겔 같은 논리를 가졌다는 말도 아니지만, 신라의 옛 서울에 터를 잡고 작은 사업을 하나 일으켜 최선을 다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본받으려는, 또 하나의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인간 황경환의 모습이 아름다워 이 글을 쓰는 바이다.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주문
054) 744-8211~2
팩스 054) 744-8213

무진 황경환 선생이 엄선한 주옥같은 108요담을 읽다보면, 많은 경전을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전에 대한 깊은 통찰에도 새삼 옷깃을 여미게 된다.

—퇴현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

이 책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근본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그가 인용한 불설은 주로 5부 니까야라는 문헌인데, 부처님의 초기 음성에 대한 가장 가까운 내용들이다. 둘째는 불교 사상의 현대적 해석이다. 과학적 지식이나 사회적 요청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풀어쓰려고 하는 노력이 값지다. 따라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겠고, 또 익숙하게 불교적 신행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鄭柄朝 (동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파(世波)가 그대 앞에 닥친다 해도 그것에 정복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직 이 길을 꿋꿋이 걷고 또 걸어서 언젠가 그대가 의지하고 있는 오온의 쪽배가 가라앉기 전에 반드시 법을 보고 법을 알아 도(道)와 과(果)를 성취토록 하소서."

— 발원문 중에서